

4-19-2015

가정 교회 사역을 통한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방안: 진목 교회를 중심으로

Yong Jin Lee 이용진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a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이용진, "가정 교회 사역을 통한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방안: 진목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5.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RECOVERY OF THE COMMUNAL CHARACTER OF A RURAL CHURCH THROUGH HOUSE CHURCH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IN MOK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YONG JIN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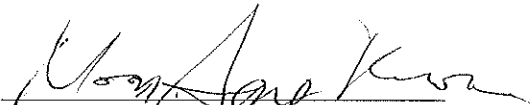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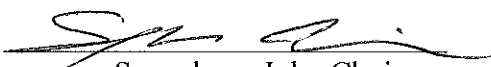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Seungkeun John Choi


Jin Ki Hwang

April 19, 2015

**AN EFFECTIVE STRATEGY FOR RECOVERY OF
THE COMMUNAL CHARACTER OF A RURAL
CHURCH THROUGH HOUSE CHURCH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IN MOK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YONG JIN LEE

APRIL 2015

가정 교회 사역을 통한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방안
- 진목 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이 용 진

2015년 4월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Recovery of the Communal Character of a Rural Church
through House Church Ministr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Jin Mok Presbyterian Church

Yong Jin Lee

Doctor of Ministry

2015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ace the problem in my pastoral ministry, in particular, the decrease of membership in rural churches. While small group ministry is difficult in a rural church, and rural churches are poor in all respects, the biggest problem is the destruction of the communal character, the essence of the church, by superfluous conflicts. This paper addresses this problem with a house church structure

The first chapter (the introduction),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communal character of a rural church, states the purpose, the research method, and the range of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claims that economic problems and problems of the home undermine the church's communal character, and this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church community, especially spiritually. We claim that a healthy church community comes through organic community.

The third chapter discuss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small groups in a rural church. It then proposes that a house church structur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ural church, and it considers the principles of the house church.

The fourth chapter introduces the history and pastoral situation of the Jin Mok Presbyterian Church: the problems causing the decline of our church's communal character, absence of leaders, superman complex of ministers, issues of church property. It also presents the church's program and limitations for the past

four years.

The fifth chapter proposes a “Day Community” suited for the reality of a rural church in Korea. The home church group serves others by cooking, providing a bed. They play games with each other. We learn of Christ’s love and sacrifice through this “Day Community” program. I do not think one hundred percent recovery takes place through just one program. Nevertheless, this program points toward solutions for recovering the communal character of a rural church.

This paper is a confession of a rural pastor who seeks to pursue a happy church community through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Though we hurt each other, community life will continue to fill in the gaps of the other so that hatred will not destroy our lives. We may not be able to find lifelong answers, but we have to seek a way to recover the church community, and I believe that God will recover his church.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 D.

Seungkeun John Choi, Ph. D.

Jin Ki Hwang, Ph. D.

감사의 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의 사랑에 사로잡혀 주의 종의 길을 결단하고 25년이라는 시간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쁜 목회의 일정을 핑계 삼아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논문보다는 목회에 집중할 것이라는 자위감으로 부끄럽게 보낸 시간이 바로 지난 세월이었음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 회개합니다. 자신감을 앞세워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바라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습이 지난 세월 제 목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련을 묵묵히 이기도록 나에게 힘을 주신 모든 동역자 분들과 교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논문을 집필하도록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었던 내 사랑하는 고 강기성 군에게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교회의 수련회 현장에서 갑작스런 의사 사고로 나의 걸을 떠났던 한 어린 영혼의 죽음을 담임 목사로서 복도하며 목회의 끈을 놓고 싶은 마음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그와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교회를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논문을 집필하면서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갈등이 심각할 정도로 교회의 존재론에 영향을 미치며 교인들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가서 4년 정도 공부를 하는 동안 미국 생활을 경험하면서 얻은 중요한 교훈은 한국 교회의 분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문제만 보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본 논문은 행동하는 종이 되기 위한 첫 몸부림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성 파괴를 온 몸으로 막아 보려는 한 목회자의 고백입니다.

부족하지만 모든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논문의 지도를 항상 웃으면서 끝까지 정성스럽게 감독해 주신 권분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지도가 없었다면 논문의 제목만 잡고 아마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울 홀러 사무실에 첫 발을

내던던 때를 생각하시며 저의 졸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김태석 목사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논문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하루 공동체의 정신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셨던 교회의 장로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집필하는 과정까지 저를 물심 양면으로 도와 주신 장인 어른, 장모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제대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를 끝까지 이해해 준 나의 아내 김수연 사모, 자녀들인 예담과 하담에게 깊은 애정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교만과 아집에 뭉쳐 편협한 민족주의적 사고로 교회를 섬겼던 나에게 폭넓은 신학의 장과 타교단 목사님들과 교류의 장을 넓혀 주었던 홀러 신학교와 목회학 박사 과정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신 김세윤 박사님, 엄애선 박사님과 파사테나 제학 시절 항상 웃음으로 제 문제를 면담해 주신 황진기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2월

이 용 진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목적	1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농촌 교회와 공동체성 붕괴	5
제 1 절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원인	5
1.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현상	5
2.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원인	10
3. 공동체성 붕괴와 정신적, 영적 문제와의 관계	14
제 2 절 공동체성 붕괴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16
1. 건강한 예배 공동체 회복의 실패	16
2. 관계의 파괴로 인한 지역 전도의 어려움	18
3. 교회 구성원 갈등으로 인한 사명 의식 붕괴	22
제 3 절 교회와 공동체 신학	23
1.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성	23
2. 유기적 공동체를 통한 교회 공동체성	25
제 4 절 결론	27
제 3 장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정 교회	28
제 1 절 소그룹 운동의 종류와 그 한계 및 농촌 교회 소그룹 현실	28
1. 소그룹 운동의 종류	28
2. 소그룹 운동의 한계와 농촌 교회 소그룹의 현실	37
제 2 절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정 교회	45
1. 왜 가정 교회인 소그룹 운동에 주목해야 하는가?	45

2. 가정 교회 모델 : 화평 교회	47
3. 가정 교회를 통한 인식 변화	53
4. 가정 교회가 농촌 교회의 영적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57
제 3 절 가정 교회 원리	58
1. 양육 공동체	58
2. 예배 공동체	59
3. 교재 공동체	60
4. 선교 공동체	61
제 4 절 결론	61
제 4 장 진복 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	64
제 1 절 진복 교회의 역사	64
제 2 절 진복 교회의 목회적 상황	65
1. 지역 사회 이해	65
2. 진복 교회 교회 공동체성 붕괴 현상	67
3. 교회 내의 사머니즘적 요소와 헌세 구복 신앙	71
4.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교회 질서	73
5. 평신도 지도자의 부재	74
6. 목사 슈퍼맨 콤플렉스	75
7. 교회 재산 문제	78
제 3 절 진복 교회 중점 사역	79
1. 진복 교회 년도별 중점 복회 계획	79
2. 교인들을 치유하는 복회 프로그램	81
3. 지역 치유 프로그램의 강화	84
제 4 절 결론	86
제 5 장 진복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	87
제 1 절 농촌 교회 가족 상황의 이해	87

1. 부부 그룹	87
2. 자녀를 둔 그룹	89
3. 독신자 그룹	91
4. 복귀 노인 그룹	94
제 2 절 왜 진목 교회는 가정교회로 가야 하는가?	96
제 3 절 가정 교회 구조 변환 단계에서 농촌 교회의 한계	97
제 4 절 또 하나의 대안인 가족 교회의 정의와 구조 및 운영방식	99
제 5 절 세대 통합 가정교회	100
제 6 절 가정 교회 구조 정착을 위한 하루 공동체	103
1. 하루 공동체의 정의와 예수 공동체 정신	103
2. 하루 공동체의 기본적 진행 과정	106
3. 하루 공동체를 위한 교회 현실 분석	108
4. 하루 공동체 프로그램 진행 과정 및 평가	111
5. 하루 공동체 향후 계획	114
제 7 절 결론	115
제 6 장 결 론	116
참고문헌	120
Vita	125

표 목 차

<표 1> 100명 미만의 교인수에 따른 교회 수	6
<표 2> 100명 미만 연령별 교인수	7
<표 3> 교회학교별 예배 여부	8
<표 4> 총회로부터 생활 보장비 받는 자	9
<표 5> 예산 규모별 교회 수	9
<표 6> 진목 교회 년도별 표어와 목회 실천 목표	79
<표 7> 총 이혼 건수 및 조 이혼율 추이	92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의 제기와 목적

지금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시기에 살고 있다. 과거 70년대와 80년대를 겪어 오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기라고 기독교계 스스로 자랑을 일삼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신도 대비 영향력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초라할 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많은 대형 교회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교회 성장은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여러 이유로 교회를 옮겨가는 수평 이동에 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성장 이면에는 과거 건강한 교회 구조 속에서 성장한 많은 중년층들이 한국 사회의 사회 구조 변화 속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 가면서 생긴 건강한 교인들의 수평 이동도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곽성덕은 그의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 정체성의 원인을 사회 변화의 정체 현상, 교회 구성원들의 갈등 현상, 교회 지도자의 자질 문제, 급속한 교회의 세속화, 교회 지도자의 자질 문제, 건강한 교회론에 대한 가르침 부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¹⁾ 그러나 농촌 교회의 문제는 새로운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농촌이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농촌 교회의 문제에서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의 농촌은 많은 사회적 문제와 그로 야기된 가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농촌의 학교에 가보면 수많은 아이들의 가정이 결손 가정과 다문화 가정인 것을 알 수 있다. 결손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상황

1) 곽성덕, “전통교회 정체 극복과 활성화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10-16

에서 자란 아이들의 정서가 불안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농촌 가정들이 가정 파괴라는 위협 앞에 너무나도 무분별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 실제로 도시에서 건강한 가정 생활에 실패한 많은 중년, 혹은 젊은 가정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시골의 연로한 노부모에게 맡기고 도시에서 삶을 살아가며 부모에게 양육비를 제공하는 형태의 삶은 이미 많은 부분 현실화 되어 있다. 한국의 시골이 도시에 비해 공동체적이며 인간적이고 정서적이다라는 말은 이제는 옛말이 되어 버렸다. 오히려 훨씬 더 공격적이고, 피해 의식이 강하고, 훨씬 더 가정 결속력이 떨어진 가정들이 많이 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구성원들이 실제로 교회 내에서 관계를 형성할 때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경우를 수도 없이 묵도하면서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게 된다. 많은 농촌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확립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교회들의 시도가 제자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란 선교 단체의 지도자나 목사가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가르치며 훈련시켜 제자로 삼고, 또 제자된 그룹이 나중에 소그룹의 순장이나 목사가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제자 훈련의 목적은 그 집단에 적합한 사람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의 강단 중심의 설교로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 제자 훈련을 처음 시도한 사랑의 교회의 성공이 제자 훈련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에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의 부작용, 특별히 평신도들을 전부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는 비성서적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 훈련을 시도한다.²⁾ 그러나 이 제자 훈련 또한 도시의 대형교회 혹은 중형 교회들의 소그룹 활동과 모임 형태가 농촌 교회에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한국의 농촌 교회의 문제는 단순히 제자 훈련이나 구역 모임이 잘 진행된다고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농촌 교회들은 더 많은 사역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인적 자원의 부재, 부족한 교회 재정, 담임 목사의 슈퍼맨 콤플렉스, 교인들의 노령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인들의 정서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그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성

2) 권영문, *한국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문제점들* (부산: 세종 출판사, 2012), 128-136

형성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받는다.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구성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본 논문은 농촌 교회에서 벌어지는 구역 중심의 소그룹 활동을 비판하면서 가정 교회를 통한 건강한 교회 공동체성을 추구하되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진복 교회를 중심으로 농촌 교회에 맞는 모델링을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전체적으로 농촌 교회의 붕괴된 공동체성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가정 교회를 고찰함으로써 본 논문을 기술할 것이다. 기존에 농촌 교회에 진행되던 소그룹 모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농촌 교회에 적합한 공동체성을 가정 교회를 통하여 만들어 가되 농촌 교회가 가지는 한계, 현실을 직시하고 농촌 교회에 실현 가능한 가정 교회 정착을 유도하는 소그룹 모임의 단계로 ‘하루 공동체’를 제안하며 그 결속력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정 교회의 기초적인 틀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

본 논문을 총 여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농촌 지역 공동체성 상황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다룬다. 농촌 지역의 사회, 경제적 문제와 가정 문제,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직시함으로써 공동체성 붕괴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교회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전히 역할과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영적 회복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임을 고찰해 나갈 것이다.

제 3장에서는 기존의 공동체성과 회복과 가정 교회를 다룬다. 많은 교회들이 구역이라는 소그룹 이름으로 교회 내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다. 고착화된 구역 모임의 한계와 또한 생명력 없는 구역 모임으로 일관할 때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 교회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며 가정 교회의 성서적 전거를 서술하게 될 것이다.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담임하고 있는 진복 교회의 상황을 다룬다. 진복 교회의 배경과 역사 및 목회 현장을 분석하면서 교회 사역의 문제점과 사역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 5장에서는 가정 교회의 건강한 모델링을 고찰하면서 농촌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가정 교회의 모습인 가족 중심의 교회 그룹들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한계를 말할 것이다. 또한 세대 통합을 이루는 가족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 프로그램인 '하루 공동체'를 농촌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 모델링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다.

제 6장은 결론 장으로,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요약하고, 건강한 가정 교회 사역에 대한 제언과 함께 본 논문을 맺는다.

제 2 장

농촌 교회와 공동체성 붕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과거에 비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공동체성을 지향했던 교회의 모습도 과거에 비해 그만큼 개인주의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성 붕괴가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현상은 도시 교회와는 다른 원인의 모습을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원인과 그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 공동체 신학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농촌 지역 공동체성은 '지역 공동체성', 농촌 교회 안의 공동체성은 '교회 공동체성'이라는 용어로 지칭할 것이다.

제 1 절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원인

한국 교회 내의 농촌 교회 현실을 보면 교회 공동체의 붕괴가 훨씬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농촌 교회의 현실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은 농촌 교회의 공동체 붕괴가 한국 교회의 존재 위기와의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본 절에서는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현상과 붕괴 원인 및 공동체성 붕괴와 정신적, 영적 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현상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 현상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농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성 붕괴 현상은 참으로 심각하다. 한국 사회의 농경 문화는 오랜 세월을 거쳐 친족들이 거의 생을 다하는 날까지 만나는 집단적인 문화를 형성했

다. 이러한 농경적 접촉 문화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정착에서 오는 안정을 위해 낮이 다른 이방 사람과의 접촉보다는 아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자기의 생명을 개보적으로 이어가려는 충동이 강한 삶을 살게 했다.³⁾ 이러한 현상은 집단적 이기주의를 형성하는 폐단을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농촌의 개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중심으로 한 동류적(同類的) 지역 공동체성 형성에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의 농촌 교회는 교인의 고령화, 교인수 감소, 폐당회 속출, 재정 자립도 약화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 공동체성 붕괴 현상이 한계 상황까지 노출하게 된 것이다. CGN TV는 한국 기독교 장로 교단에서는 전국 397 농촌 교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다. <표 1>은 100명 미만의 교인수에 따른 교회 수를 표로 정리한 것인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71.7 퍼센트의 교회가 100명 미만의 교회임을 알 수 있다. 100명 미만의 교회라고 해서 농촌 교회의 현실이 어둡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표 1> 100명 미만의 교인수에 따른 교회 수⁴⁾

교인수(명)	교회수(개)	구분(개)	백분율(%)
50명 - 100	114	269개	71.7
40명 - 49	30		
30명 - 39	54		
20명 - 29	34		
10명 - 19	30		
9 이하	7		

그러나 <표 2>를 보면 농촌 교회의 현실이 매우 열악하고 미래가 상당히 암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2>는 100명 미만 연령별 교인수를 표로 담고 있다. 이 <표 2>를 살펴보면, 농촌 교회가 연령이 높을수록 교인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인들의 연령층 증가는 교회로 하여금 많은 일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또한 목회의 상당한 비중이 병상(病床) 중에 있는 교인들을 심방하거나 혹은 고령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노인 문제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3) 권분상, *성경적 공동체* (용인: 킹덤 북스, 2013), 106.

4) CGN TV 2005.02.04. 기사 인터뷰 인용.

Online: http://w1.cgntv.net/cgn_player/player.htm?vid=18582

<표 2> 100명 미만 연령별 교인수⁵⁾

	취 학 전	초 등 부	중 등 부	고 등 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대	80 대	90 대
교인수(명)	658	1,798	564	329	495	696	1,057	1,505	2,248	2,086	733	62
백분율(%)	5.4	14.7	4.6	2.7	4.0	5.7	8.6	12.3	18.4	17.1	6.0	0.5
연령구분	3,349				3,753				5,129			
백분율(%)	27.4				30.7				41.9			

결국 교회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목회가 아닌 현재의 교인을 잘 돌보고, 심방하는 일이 목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농촌 목회의 현실이다.

모든 교회 공동체의 기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교회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기본적 핵심이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일반 사회의 친교 모임과 다를 것이 없다. 아래의 <표 3>을 살펴보면,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교회 학교의 예배 여부는 어두운 농촌 교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3> 교회학교별 예배 여부⁶⁾

구분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자체적으로 드림	71.4 (294개 교회)	43.6 (173개 교회)	14.9 (59개 교회)
다른 교회와 연합	2.0 (8개 교회)	0 (0개 교회)	0.3 (1개 교회)
드리지 못함	14.4 (57개 교회)	30.2 (120개 교회)	46.3 (184개 교회)
장년부 예배와 함께	5.0 (20개 교회)	18.6 (74개 교회)	29.5 (117개 교회)
기타	0 (0개 교회)	0.5 (2개 교회)	0 (0개 교회)
무응답	4.5 (18개 교회)	7.1 (28개 교회)	9.1 (36개 교회)

5) 위 인터넷 기사.

6) 위 인터넷 기사.

농촌 교회의 교회학교 예배는 어린이부에서 중고등부를 거쳐 청년부로 갈수록 예배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부와 중고등부의 감소는 교회의 존재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농촌의 교회 공동체성 붕괴의 원인은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에 앞서 내부적인 교인 수의 감소가 그 이유가 되고 있다. 교회 학교 학생 수의 감소는 교인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교인수로 감소로 이어진다. 모든 교회 공동체성의 핵심 요소인 예배의 약화는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약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다. 교회학교의 예배를 경험한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 다시 교회로 돌아올 확률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보다 훨씬 그 가능성이 높다.

<표 4>를 살펴보면, 교회의 재정 자립도 약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재정 자립도 약화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목회 집중력 약화로 이어진다. 농촌 교회의 목자가가 총회의 생활 보장비를 받는 비율은 이미 30퍼센트를 넘어섰고 그 비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다.

<표 4> 총회로부터 생활 보장비 받는 자⁷⁾

	교회수(개)	백분율(%)
받는다	129	32.5
아니다	268	67.5
합계	397	100

그러한 이유로 이미 많은 목사의 사모들이 자신들의 생활비를 벌어들이기 위하여 생활 전선으로 뛰어들고 있다. 또한 어떤 교회는 목사까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이미 목사 가정의 물질 토대가 교회라는 등식은 깨어진 지 오래이다. 생활 전선에 뛰어들 목사가 교회의 공동체성 토대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목회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목회가 부수적인 하나의 영역으로 전락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목회 뿐 아니라 사회에서 일하는 직장 또

7) 위 인터넷 기사.

한 너무나도 중요한 영역이다. 목회자의 물질 토대가 교회가 아닌 것은 목회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목회와 직장을 병행하는 목회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진적으로 사역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가장으로서 자괴감에 빠져 그가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목회자의 내적 상태는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코 건강한 목회를 이룰 수 없다.

<표 5>는 교회의 1년 예산이 20,000,000원 이하 교회의 수를 살펴본 것이다. 약 35.3 퍼센트가 그 수치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교회의 재정 자립도가 어느 정도 규모인가 예단할 수 없지만 이런 재정 자립도에서는 결코 목회자의 생활비 조차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표 5> 예산 규모별 교회수⁸⁾

예산액(원)	교회수(개)	백분율 (%)
5,000,000 미만	8	2.0
5,000,000 - 10,000,000 미만	44	11.3
10,000,000 - 20,000,000 미만	86	22
20,000,000 이상	259	64.7

앞의 <표 2>에서, 주된 경제 인구인 20대에서 50대까지가 농촌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퍼센트인 것을 살펴보았다. 농촌 교회의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이유가 교회 내의 경제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교인들의 수입이 크지 않다는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농촌 교회에 남아 있어 그나마 교회의 역동적 프로그램에 중요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젊은층이 결국 밋별이를 위하여 일터로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농촌 교회의 현실이다. 목사는 목사대로, 교인은 교인대로 일터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그만큼 교회의 모든 모임은 줄어들게 마련이다. 결국 교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물질 토대 마련을 위하여 일터로 내몰리는 현상은 교회 공동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원인

한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그 기본이 가정이다. 교회도 사회도 가정이라는 기반

8) 위 인터넷 기사.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이다. 오늘날 우리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적인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다.

가. 경제적 문제

오늘날 한국 농촌 사회는 삶의 토대로부터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농촌 사회의 근본적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그 시발은 5·16 군사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 시기의 경제 개발 정책은 농경 중심인 우리 사회를 급속하게 산업화 사회로 변화시킨다. 한 사회가 산업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시기 한국 농촌의 노동력이 그 역할을 대체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농촌 사회에서 도시로의 이동 인구가 급속하게 팽창되게 된다.

산업화의 과정과 도시 경제의 집중화 현상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다. 선진국 미국에서 벌어지는 살인적인 경제 파탄의 늪에는 미국 농민도 거부할 수 없는 세계 경제로 통합과 그 현상을 조정하는 점은 세력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2003년 한농련(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인 이경해씨가 세계무역기구 장관급 회담이 진행될 무렵 스페인 칸쿤(Cancun)에서 무분별한 국가간 FTA가 농민을 다 죽인다고 하면서 자살을 감행했다.⁹⁾ 왜인가? 경제 통합과 자유 무역 협정이라는 먹음직한 선악과는 농민들로 하여금 빗으로 자신의 현재 재정 상태를 계속 지탱해야 하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로 이미 세계 농민과 우리 한국 농민이 밭살 당한 지 오래 되었다.

농촌 지역의 사회가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문제다. 1980년대 미국이 농업 위기를 겪은 적이 있는데, 당시 자살 인구가 중서부 지방에 몰렸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님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땅을 은행에 저당 잡혀 빼앗겼기 때문이다. 미국 농촌 지역의 여성들은 낮은 소득을 보충하느라고 농장 안팎일, 집안일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린다. 미국의 농촌 여성 가운데 적어도 25퍼센트가 여기에 속하며 농촌의 빈부 격차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¹⁰⁾

9) Raj Patel, *식량 전쟁*, 유지훈 역 (서울: 영림 카니널, 2008), 65.

10) Ibid., 51-52.

경제적 문제는 농촌 지역의 빈부 격차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만들었다. 특별히 경제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식량을 위시한 농산물 수요가 급격히 신장한 반면, 농업성장률의 상대적인 저조로 말미암아 농촌의 구매력도 활기를 띠지 못함으로써 농촌 경제문제는 심각한 국민경제의 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물가 상승률과 교육비는 결국 교회의 전통적 봉사 그룹의 기반이 되는 여성을 생활전선에 내몰고 있다. 더욱이 WTO체제의 출범에 의하여 농업도 국제적인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 일을 하여도 만성적인 빛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 속에 우리 농촌은 내몰려지게 된 것이다.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자신들의 경제적 재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 전선에 많이 뛰어들다 보니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임무가 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농촌 교회들이 부흥회를 진행하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낮 집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 믿음의 부족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로 일터로 나가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여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나. 가정적 문제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마도 사회의 가장 기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가정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현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의 가정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사실이며 농촌 사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은 국가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보호 의무를 헌법(36조)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요청은 가족정책 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국가는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가족 공동체 유지를 위한 경제적·물질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일정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인 통일된 가족정책이 없다.¹¹⁾

11)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 (서울: 경문사, 1995), 338.

한국 사회의 가정 문제가 가족 정책의 부재로 비롯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이러한 가족정책에 대한 부재는 사회 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는 가정 사역이라고 명명할 만큼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 속에서 가정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가정의 문제를 시스템 부재로 돌리는 것은 명백히 문제가 있다. 많은 부부들은 파경과 결혼의 불만 요인으로 엉뚱하게 시대이나 처가, 돈, 섹스를 탓한다. 그러나 결혼에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남녀 차이로 인한 갈등, 영적 건강의 결핍 등이다.¹²⁾ 도시화된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안전과 문화생활에 해택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사람의 삶에 불안과 병을 더 많이 가져다주고 있다. 범죄가 너무 심해서 밤에 외출하는 것은 공포의 외출로 변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적인 불안, 중학교로부터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숨 막힐 것 같은 입시 교육의 압박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문제, 아무리 아끼고 저축을 해도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층과 소수의 부유층과의 차이, 거기다가 심각한 교통난, 임금 인상을 초월하는 물가, 무자비할 정도의 경쟁의식으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고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고도의 긴장은 불안으로 탈바꿈하여, 불안은 다시 분노로 전환되어 사회 이곳 저곳에서 분별없이 터지고 있다. 이런 긴장감으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들은 음주와 함께 파멸의 행위로 빠져 들어가지만 이것은 자신에게나 사회에 위기의식을 가중시킬 뿐이다. 오늘의 도시화된 현대인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이리저리 부딪치고 쓰러지는 방향의 사람들이다. 정태기는 내적으로 위기와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아픔을 가지고 갈 때 고착화 될 수 있는 심리 상태를 지적한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을 해결하지 않고 운명이나 팔자 소관으로 돌린다. 이 심리 상태는 무감각, 무감동, 무관심의 심리 상태로 굳어지고 아픔을 아픔의 언어로 가지고 표현하지 못하게 되며 그것이 응어리로 남아 심리 상태도 무감각, 무감동, 무관심의 심리상태로 고착화된다.¹³⁾

12) Les Parrot III, Dr Leslie Parrot, 결혼, 정동섭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8), 19.

13)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 사회, 1992), 90.

자신의 건강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온전하게 치유받지 못한 현대인들이 사회에 그대로 유입되고 다시 그 불안 상태가 반복된다. 이렇듯 현대 사회는 위기의 연속이며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가정 또한 이러한 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한 개인의 위기는 곧바로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가정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학교요 성전이요 회당이요 기도처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현 상황은 지금 어떠한가? 아빠의 퇴근 시간은 자정이 나 된 시간이다. 아이들과 대화는 거의 없고 자신의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든다. 엄마는 연속극 때문에 밤 늦도록 텔레비전 앞을 떠나지 못하거나 아는 지인과 전화로 수다 삼매경에 빠져있다. 아이는 공부한다고 자신의 방에 있지만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져 있다. 팝송을 듣고 있는 것이다. 부부간의 대화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 상황은 이혼이라는 가정의 파멸을 몰고 오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무방치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가정을 방치한다. 또한 자신이 이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전부 가정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말 그 분주함이 가정을 위한 것인지 반문해야 할 것이다. 강정훈은 그의 책, *교회학교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어떤 봉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일(To do)가 아니라 사람이다. 어떤 사람(To be)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다.¹⁴⁾

일 중심의 사고는 결코 가정을 건강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의미한다. 가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썩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14) 강정훈, *교회학교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서울: 한국 문서 신교회, 2000), 114.

농촌 사회의 많은 가정들이 특별히 더욱 더 병들어 있다. 현대 사회적 가정적 불안 요소를 완충하는 사회적 안전 복지 형태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많은 가정들이 이혼이라는 가정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된다. 결국 당사자인 남녀는 헤어지는 그만이지만 자녀들은 그대로 남아서 농촌에 남아있는 인로하신 부모님에게 보내어진다. 농촌의 많은 노인들이 잠시 동안 혹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손자 혹은 심지어는 증손자까지도 맡아 키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요즘 농촌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나 보니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형성될 수 있는 가족애가 결여가 되며 농촌의 노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기형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용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아이들에게 과도한 자유시간 허용 등으로 거의 방임함으로써 철저하게 아이들을 친밀하고 깊숙하게 돌보지 못한다. 또한 그들의 육체적 한계와 병(病)등으로 인한 자기 관리의 실패로 이어진다. 더군다나 이러한 불합리한 가족 관계의 모습은 불행하게도 반복적인 패턴을 띄며 전개되는 것이 사실이다.

3. 공동체성 붕괴와 정신적, 영적 문제와의 관계

경제적 혹은 가정적인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농촌 사회는 공동체성 붕괴의 수순을 밟고 있다. 농촌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가정이라는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가치관 혼란과 외로움이라는 어두움의 단면 앞에 놓이다 보니 타자를 대하는 그들의 생활 태도도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적대로 사회적 관계의 틀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외로움에 지쳐본 사람은 타인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지나면 그냥 외로움에 익숙해져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귀찮아지는 삶을 살아간다.

오랜 기간동안 공동체를 연구한 김현진은 그의 책, *공동체 신학*에서 공동체의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대인들의 개인주의적 성향은 공동체성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증대시킨다. 현대인의 삶은 인간과 기계, 인간과 돈, 인간과 TV의 관계가 주종을 이룬다. 그러나 공동체 삶은 그 안에서 서로를 알

고 서로가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므로 서로가 신뢰하고 격려하며 자신들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동지이기에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세워질 수가 있다. 공동체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¹⁵⁾

자신들의 존재 기반을 타자와의 관계성에 기반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영적 암흑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다. 타자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는 종교적 관심을 결여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TV, 혹은 기계라는 도구적 관계의 형성이 본인한테 훨씬 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매스 미디어로 인한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파괴는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그 정도가 더욱 더 심하다. 농촌의 현실상 자신의 집을 벗어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기회가 도시에 비해 많지 않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스 미디어에 집중하는 현상이 도시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

교회는 공동체성이 무너진 농촌 사회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공동체성을 확립시키는 올바른 고민을 해야 할 시점에 있다. 무너진 공동체성은 분명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중요하다. 현대인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무관심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를 주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진 공동체성의 현실 속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신앙을 통하여 성경적 공동체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사람들이 단순히 모여서 숫자적인 조합을 이루고 많은 무리의 군중이 모였다고 해서 공동체성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헬리어로 “에클레시아”는 익숙한 단어이다. 주전 5세기경부터 한 도시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결정하기 위해 모였던 정기적인 “회합”이 “에클레시아”의 본래적 의미이다.¹⁶⁾ 그러나 후기의 바울 서신에서는 “에클레시아”에 대한 바울의 이해가 더 확장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이 그의 많은 서신들 가운데 “에클레시아”와 “엔 트리스도(en christo)”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에 그 근거를 들 수 있다.¹⁷⁾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순히 모임을 의미하는 회합이 아니라 그리

15)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416.

16)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장동수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62.

17) Ibid., 81.

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와 친교와 사랑을 전제로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만의 영역을 고수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적 단절 속에서 개인주의적인 삶에 몰입하는 농촌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지역 공동체성'과 '교회 공동체성'은 모두 걸어진 상황이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공동체성 붕괴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제 2 절 공동체성 붕괴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공동체성 붕괴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건강한 예배 공동체 회복의 실패와 관계의 파괴로 인한 지역 전도의 어려움 및 교회 구성원 갈등으로 인한 사명 의식 붕괴를 다루고자 한다.

1. 건강한 예배 공동체 회복의 실패

예배는 단순히 어떤 추상적 실재를 높이는 인간의 경배 행위를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 행위이다. 따라서 모든 예배는 항상 믿는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로 넘쳐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이다 (엡 2:12-13).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파괴되었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아름다운 여정이다. 지역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제와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 예배의 형식과 틀을 파괴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는 축제의 예배를 시도하고 있다.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다. 용서와 화해를 경험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 속에서 여전히 상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 예배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실만한 예배는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로 구성되며,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현실로 받아 들이며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유지된다. 성도들이 사귀어 바탕이 되는 코이노아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¹⁸⁾

공동체성이 붕괴된 사람들 즉, 코이노니아의 부재로 사랑이 결여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드러지는 예배는 의식적 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초대 교회의 공동체는 날마다 예배를 위하여 모이기에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떤 때는 코이노니아적 공동체였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결국 공동체성이 결여된 지역 사람들과 교회 구성원들로 드러지는 예배는 신뢰와 용서와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농촌 교회는 주일 낮 예배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중한 예배로 인식될 때가 많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위치를 높낮이를 세우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일지 모르겠으나 농촌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보다도 주일 오전에 드리는 낮 예배를 최상의 위치에 차지하는 예배로 인정한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른 예배는 참석률이 그 공동체의 관계성에 의하여 결정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헌신 예배를 진행하는 경우 자신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이 그 헌신 예배의 인도자나 특별히 기도자로 나선다면 심한 경우에는 각종 이유를 내세워 그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된 사람이 예배의 순서에 들어가게 되어 인도하는 예배는 그 시작부터 이미 마음에 단절이 시작되고, 자격 없는 사람이 이끌어 가는 예배는 예배로써 의미가 없다는 영적 교만이 시작되지만 그 위험성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2. 관계의 파괴로 인한 지역 전도의 어려움

농촌 교회 공동체 내부 관계 파괴와 지역 공동체와의 관계 파괴가 지역 전도를 막는 역할을 한다. 그리스도인의 관계 파괴는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기독교 예배는 근본적으로 삶과 분리될 수 없다(롬 12:1).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육체적 순종 안에서 행해진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자들이다.¹⁸⁾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신앙적 행동의 결과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호기심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18) 김현진, *공동체 신학*, 361.

19)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0), 57.

삶이 비그리스도인들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6:24-26, 개역 개정).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는 의미는 그의 신앙과 삶이 표리부동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 교회 역사에서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를 가르쳐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의 삶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믿음의 형제들은 교회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지역의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실천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가. 교회 공동체 내부의 관계 파괴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동안 참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며 부흥했다. 그러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기독교계의 원로인 손봉호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냉혹하게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개신교 역사상 지금의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교회는 없다. 둘째, 한국 교회는 금권 선거로 얼룩져 있다. 셋째, 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며 한국 교회는 지금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 넷째, 배관매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한국 교회의 변화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²⁰⁾

타락한 한국 교회의 현실은 교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추구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버리고 자본주의적 가치와 세상적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20) 손봉호, “한기총 회장 선거 막후 - 교회, 돈에 휘둘리나”, 시사저널, 1114호 인터뷰.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십자가 헌신과 섬김과 나눔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지고 서로를 공격하여 파괴하는 모습이 교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교회가 그 빛을 상실할 때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의 파괴 현상은 심각한 교회 분열을 야기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인 권문상은 그의 책, *부흥 어게인 1907*에서 한국인들의 후진적 분열상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선진국에 살고 있는 교포사회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분쟁과 분열이 문화적인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다.²¹⁾

한국 교회 공동체 분열의 원인이 교회 본질성의 비실천력에서 비롯되었든, 그것이 한국인들의 문화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든 한국 교회의 분열 양상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결과적으로 한국 교회는 싸움만 일삼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치지게 만들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교인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분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평범했던 자신의 일상에 분열과 혼란이라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비그리스도인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결국 이 두려움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신뢰성의 부족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회 내부적인 분열의 결과가 결국 복음의 전도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

한국의 농촌 교회를 돌아보다 보면 한 마을에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다. 교회의 수가 늘어난다고 자화자찬할지 모르나 그것은 교회 구성원들의 공동체적 고백에 따른 과충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니기에 전혀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 분열의 상황 속에서 전개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의 숫자 대비 교회의 숫자가 몇일까라는 물음은 전혀 비성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참으로 모호할 수 있겠으나 작은 마을에 원래는 1개였던 교회가 2개 이상의 모습으로 갈라져 있는 것은 비기독교들에게 엄청난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다.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갈라선 경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가 서로에게 관철되지 않아 갈라진 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에 민망할 지경이다.

21) 권문상, *부흥 어게인 1907* (성남: 도서출판 브니엘, 2006), 33.

나. 교회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의 관계 파괴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교부신학자인 어거스틴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혁자이다. 그 의미는 그리스도가 인간 생활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다시 생기를 불어 넣으며 거듭나게 한다는 데 있다.²²⁾ 교회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의 관계 파괴는 창조적 연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화적 변혁자로서 지역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기보다는 서로 쳐서 없애야 할 중세 십자군의 파괴적 발상이 교회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 존재한다.

많은 농촌 사회의 갈등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땅 문제이다. 옛날은 지금처럼 측량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로 자신의 땅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땅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불분명하게 세워지는 경우가 농촌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과거 농촌 새마을 운동 이후로 요즘 농촌 사회에 상하수도 공사 등 환경 개선 사업들이 한창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측량을 해보면 거의 태반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의 경계보다 많은 땅을 자신의 경계 지점으로 삼거나 심지어는 과거에 길이었던 곳도 자신이 임의로 막아 국가의 공여지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인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지역 사람들이 지역 사회 공동체 전체 소유 자산으로 사용되어야 할 국가 공유지를 침범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러한 일에 연루되었을 때, 이 일을 진행하였던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다. 특별히 지역 주민의 동의없이 무주공산(無主空山)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농촌 사회의 특징은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가 혈연 중심의 사회로 연결된 경우가 많다. 그러하다 보니 마을에서 벌어지는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교회 공동체 내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 구성원과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갈등은 점점 집단화의 양상을 띠고 전개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 사이에 평생 보지 않을 것 같은 원수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는 농촌 교회의 특수적인 상황인 것이다. 우리의 농촌 사회는 다른 도시 사회에 비해서 혈연과 학연 등의 개인적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체가

22) H. Richard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58), 260.

다. 이러한 모습은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집성촌을 이루는 경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친인척으로 연결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 농촌 교회의 특성상 지역의 문제점과 갈등이 그 지역의 경우로 국한되는 경우가 드물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이 교회로 유입된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 교인들에 대한 기대를 그만큼 더 많이 갖는 것이 사실이기에 분열과 갈등이 야기될 경우 실망도 적대감도 더 크게 작용한다.

교회는 이중적 의미에서 사도적이다. 첫째, 교회는 성경에 담긴 사도들의 증거와 믿음 위에 세워져 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계속 보내시는 도구이자 결과물이다.²³⁾ 결국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죄의 정체는 하나님을 향한 적의 곧 적대감이며, 이 적의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aversion)과 대적(opposition)으로 나타난다. 교회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의 관계 파괴가 진행되어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어쩌면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 혹은 두 집단을 연합시키는 공동체성의 회복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이요 사명인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이 남긴 다음의 글은 우리에게 화해의 사역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난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우주적 그리스도론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땅 위에 있는 생물은 물론, 천사, 분명히 불순종한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되며, 여기서 인격화된 창조의 지혜로 이해될 수 있는 그들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아래에 화해된 자로 통일되고 완성된다는 것이다.²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극명하다. 갈라진 이 세계를 그분의 사랑으로 화해시키고자 오셨다. 또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그분의 이 사역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신의 이웃을 싸워야 할 적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전략임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된다.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

23)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239.

24) Jürgen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김관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415.

으로 모든 만물의 화해자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성서의 고백이다.

한국의 농촌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중요한 분제이든, 사소한 분제이든 비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중심에 서는 일을 철저하게 삼가야 한다. 결국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자각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이웃과 화해하는 일에 던져야 할 것이다.

3. 교회 구성원 갈등으로 인한 사명 의식 붕괴

갈등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다. 하나는 그 갈등을 발전으로 이끄는 건설적 갈등 관리이고, 또 하나는 파멸로 이끄는 부정적 갈등 관리이다. 목회에 있어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²⁵⁾ 갈등은 경우에 따라서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갈등이 그 공동체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긍정적이지는 않다. 갈등이 그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의 원인과 과정이 결과를 향해서 건강한 구조를 이루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갈등은 부정적 갈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부정적 갈등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의식을 철저하게 붕괴시킨다.

교회는 공동체이다. 공동체란 “삶이 서로 의존관계를 지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한다.²⁶⁾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의 본질적 사명을 잊고 인간적인 갈등의 관계를 유지할 때 서로의 행동과 사고는 상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서로의 관계가 부정적인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부정적 갈등으로 중요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 갈등이 결코 갈등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를 공격하기 위한 벌미와 실마리에 온 힘과 정신을 쏟다보니 박상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사명을 망각한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 무속 종교와 우리의 지정학적 구조가 우리 조상들로 하여금 혈연적 가족 중심의 폐쇄적 공동체를 만들게 했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25) 김덕수,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 새우기* (성남: 도서출판 NCD, 2002), 150.

26)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출판사, 2004), 156.

사회성을 개발하는데 구조적인 한계를 갖게 했다.²⁷⁾ 교회 구성원들과 농촌 지역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민족적 특성의 한계일 수 있다. 교회 구성원들의 갈등의 원인이 우리의 민족적 문제이든, 혈연적 집단성이 원인이든 문제이든지 간에 교회가 갈등의 내용에 휩싸이게 되면 교회로서 사명 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 많은 농촌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 의식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무엇보다도 선교나 구제 등 물질적 나눔이 동반된 사명 확장 사업에는 인색하다. 더군다나 구제나 선교의 대상이 나와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는 교인이거나 이웃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적 사역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하는 결과로 작용한다.

제 3 절 교회와 공동체 신학

앞 절에서는 농촌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현상과 원인 및 공동체성 붕괴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절에서는 이 붕괴된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보다 먼저 바른 공동체 신학을 확립하고자 한다.

1. 교회의 본질과 공동체성

인간이 혼자보다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자연적인 욕구이다. 홀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인간도, 누구의 도움없이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이 없다. 유사 이래도 인간은 사회적이지 않은 때가 없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해있는 어디서든지 심정적으로든 이해관계에서든 일체감을 갖고자 한다.²⁸⁾ 서로 다른 타자가 만나 수없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공동체는 때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결국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촌이라고 해서 건강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다. 오히려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문제들이 농촌 교회의 교회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있다. 혼자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공동체성은 어쩌면 자

27) 권문상, *부흥 여객인 1907*, 121.

28)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178.

신과 상관없는 별개의 것이라고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순간 인간은 그에 따른 영적인 댓가를 치루어야 한다. 교회가 왜 공동체이어야 하는가? 김현진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동체는 철저한 제자도의 실천방식이기 때문이다. 셋째, 공동체는 개인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넷째, 공동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공동체는 마지막 때의 생활방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온전한 공동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곧 공동체요, 공동체가 곧 교회인 것이다.²⁹⁾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은 교회 본질의 구현 양식이다. 온전한 공동체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에서 시작됨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모형이다. 사단은 우리에게 서로를 향한 성령의 코이노니아 즉,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현대 교회의 많은 개인주의적 현상들은 공동체의 파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개인의 능력과 신비한 영역에만 머무르게 하려는 영지주의, 자신의 영적 체험을 바탕으로 공교회의 사도성을 부인하고 자신을 제사장으로 만들려는 신사도주의,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섬김의 일치를 거부하려는 분파주의 등과 같은 모든 움직임이 교회의 세속화이다. 세속적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개인주의적 관계로 전락한 그리스도교를 의미한다.

2. 유기적 공동체를 통한 교회 공동체성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개교회주의가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하다. 특별히 더불어 사는 전체로서의 공동체 의식보다 경쟁을 통한 개체로서의 개별의식은 길으로 볼 때 한국 교회의 비약적 부흥을 가져온 측면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상대를 향한 배려없는 성장은 반드시 불평등과

29) 김현진, *공동체 신학*, 413-414.

부정의의 결과들을 수반하며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이타적 헌신이 없는 개인을 위한 현세구복의 이기적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유교의 서열 문화와 가부장적 지배 구조가 만연한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섬김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권문상은 그의 책, *성경적 공동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 12:4-5)에서 보듯이 바울은 각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기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교회 구성원들은 상호 의존적이다.³⁰⁾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는 상호 의존적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서로 돕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해야 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서로 파괴된 관계로 신음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의 첫 공동체인 가정을 사탄이 공격한 이유는 사탄이 공동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악한 자는 “사탄(satan)”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뜻은 “대적자(adversary)” 또는 “적(enemy)”이다. 신약에서 사탄은 “마귀(devil)”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다. 이는 헬라이어 “디아발로(diaballo)”에서 유래된 말로 “분리시키다”라는 뜻이다.³¹⁾

대부분의 공동체성의 파괴가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너와 나를 철저히 분리시키고 단절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러한 분열과 분리의 현상은 사탄적 요소임이 분명하다. 우리는 너와 나라는 존재 양식 속에 우리라는 존재 양식이 있어야 함을 인정해야 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 양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라는 존재 양식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을 공식화하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서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서로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공동체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30)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226-227.

31) Gilbert Bilezikian, *공동체*,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 두란노 서원, 1998), 62.

극복하는 것은 그 차이를 바꾸기 위하여 힘을 쏟는 행위가 아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모습은 채워주는 섬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숙한 사람들이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주어야 한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수신자들을 더 성숙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과 나눈다. 그리스도인의 깨달음과 관련하여 강한 자와 세상적이고 약한 자들로 구분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구분을 통해 지체들을 두 단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숙에 이르는 다양한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³²⁾

결국 공동체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섬김의 공동체이어야 한다. 유기적 공동체로 가기 위한 신앙적 성숙은 언론훈이나 교회 직분이나 돈과 권력 등 세상적 가치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섬김과 배려를 통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이다.

많은 한국의 농촌 교회들이 유교적 가부장적 체제로부터 비롯된 리더십에 익숙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현상은 도시 교회에 비해 농촌 교회가 더 강하다. 그러나 권위주위적 리더십은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니다. 오히려 섬김의 리더십이 성경적이다.³³⁾ 그러나 이러한 가부장적 리더십 속에서도 우리네 농촌은 과거로부터 농사와 생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섬김과 협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다. 예전보다 확실히 공동체성이 무너진 것이 현실이지만 서로 관계를 통한 유기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모습으로서 농촌 교회만큼 유리한 조건은 없을 것이다.

제 4 절 결론

지금까지 한국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원인을 살펴 보았다.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원인이 본 연구자가 제시한 논지에 전부 포함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도 여전히 많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과 지역의 지역 공동체성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

32) Robert Banks, *바울의 공동체 사상*, 243.

33)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230.

성 파괴의 원인이 우리 힘으로 개선할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상당수는 그 원인이 우리의 내부적 요인에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회의 올바른 방향과 회복을 위하여 부너져가는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제기된 붕괴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가정 교회 사역을 논의하고자 한다.

제 3 장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가정 교회

본 장에서는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가정 교회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가정교회의 형태인 소그룹 운동의 종류와 그 한계 및 농촌 교회 소그룹 현실에 대하여 논의하고,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정 교회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가정 교회의 원리를 고찰할 것이다.

제 1 절 소그룹 운동의 종류와 그 한계 및 농촌 교회 소그룹 현실

본 절에서는 교회의 소그룹 운동과 소그룹 운동의 종류 및 그 한계, 특히 소그룹 리더의 부재 현상이 두드러진 농촌 교회의 현실 속에서 소그룹 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소그룹 운동의 종류

한국의 농촌 교회가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소그룹 유형의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운동을 교회 운영 방식에 도입하는 것은 이미 농촌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전반의 흐름이 되고 있다. 교회 성장학자인 명성훈은 소그룹의 유형을 가정 구역 그룹, 제자 훈련 그룹, 언약 그룹, 셀 그룹, 전도 양육 그룹, 회복 및 치유 그룹 여섯 가지로 나누었다.³⁴⁾ 그가 주장한 소그룹의 유형과 농촌 교회의 적용 방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가. 가정 구역 그룹(Home-cell Group)

34)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4), 62.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초대 교회의 교회 모형이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를 피하여 가장 은밀하게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가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사도행전의 고넬료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나 루디아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 등 모든 역사가 가정을 중심으로 일어난 상황적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 교회에서 가정 구역 예배를 활성화한 교회가 바로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이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가정 구역 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첫째,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며 지역을 단위로 하여 조직된다. 둘째, 담임 목사의 설교나 가르침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삶을 함께 나눈다. 셋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 교인들은 모임 때마다 뜨겁게 중보기도를 한다. 넷째,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개방적이다. 구역 모임에서는 서로의 병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해 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한다. 다섯째, 불신자들을 사랑으로 전도한다.³⁵⁾

가정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환경에 긴밀하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특별히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신앙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정을 제단 삼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신학적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측면도 있다.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간식을 대접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 특별히 과거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되었을 때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을 대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간식을 대접하는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다. 상대를 높이는 섬김의 의미요, 상대를 먹이는 살림의 의미요, 상대를 위해 내 것을 내어 놓는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가정 구역 그룹은 남자들이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정착하도록 많은 도움을 준다. 한국 교회의 불합리성 중 하나가 교회 내에서 일은 여자가 많이 하는데 교회의 사역자 리더 그룹에는 남자들이 많이 속하여 있는 것이다.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리더 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보상 심리로 여자들이 리더 그룹에 속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는 사실이다. 본 연구자가 문제를 삼는 것은 남자들이

35) Ibid., 62-64.

본인들의 헌신도에 비해서 교회의 리더 그룹에 속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남편을 교회의 구조 속에서 최고 정점에 위치하게 하려는 여자들의 경쟁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농촌 교회에서 더욱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남자들을 훈련시켜 가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신학적이지는 않아도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남자에 대해 미국 전국적으로 연구한 마이클(Michale McGill)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보통의 남자는 가족들과 친밀하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잘 알지 못한다.' 결국 많은 남자들이 가정에 있지만 감정은 가정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일년 정도 아버지가 가정에 없는 것이 비행의 발생이나 낮은 성취도, 그 밖의 청소년 문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³⁶⁾

이 시대의 바쁜 현대인들 특히 남자들을 그룹에 참석시키고 그 모임에 대한 멤버 의식을 가지게 하는 가장 좋은 구조가 바로 가정 구역 그룹이다. 가정을 통하여 모이는 그룹은 또한 남성들에게 가정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형성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의 많은 남성들이 가부장적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 가정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경험이 없다. 이러한 남자들이 가정 구역 그룹에서 편안한 환경과 자신의 가정을 좋은 이미지로 보여주고자 하는 자신의 자의적 의지가 결합되어 보다 건강한 남편과 아버지의 상이 이 모임을 통하여 정립될 수 있다.

농촌 교회는 비교적 가정에서 잘 모이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도시에 비해서 삶의 주기가 농사라는 커다란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구조로 전개되다 보니 서로 일하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비슷한 패턴 속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친화력이 도시에 비해 훨씬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정 구역 그룹이 활성화 되어있다. 그러나 가정 그룹의 구성원들의 멤버 구성은 지극히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정을 중심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단순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친목 모임 정도로 이해되며 남성들은 굳이 그 모임에 참석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식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농촌 교회의 현실이다.

나. 제자 훈련 그룹(Discipling Group)

36) Charles M. Sell, *가정 사역*,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219-220.

교회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존재이다. 평신도 신학은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부름심을 받은 존재라는 신앙 고백 위에서 출발한다.

평신도라는 말은 썩 좋은 말이 아니다. 원어 '라이코스'와 '라오스'가 우리말 평신도라는 단어의 성경적 뿌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르키는 말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평신도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평신도라는 말은 성직자와 대비되는 개념이다.³⁷⁾

어느 때부터 한국 교회가 대형화 되고 세속화 되면서 목회의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니 평신도는 교회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전락해 버렸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신앙은 철저히 자발적인 모습이 아닌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세우시는 데 그 사역의 온 정성을 쏟으셨다. 제자 훈련의 성경적 기초는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사역하신 모습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소수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집중하시고 제자도를 훈련시켰다.³⁸⁾ 평신도 신학이라는 말은 성직자와 대비되는 평신도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말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과정에서 영적 성장의 기회들을 박탈한 당한 체로 평신도라는 수동적 존재에 머물렀던 자신의 모습을 벗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찾아가려는 움직임과 고백인 것이다. 영적 성장이란 시간과 자원하는 마음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경험(특별히 역경), 공동체 안의 상호 점검해 주는 관계의 결과이다.³⁹⁾ 제자 훈련은 목적은 평신도의 영적인 성장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평신도들의 삶이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건강한 연합을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다. 제자 훈련 그룹의 전형적인 모델은 사랑의 교회이다.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 소그룹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37)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2004), 24.

38)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64.

39) Bill Donahue,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 김주성 역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1997), 204.

첫째, 교리적인 논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둘째, 강의식보다는 개인 대 개인 또는 소그룹 방식으로 훈련한다. 셋째, 공식적인 모임 뿐 아니라 비공식적 모임들도 장려한다. 넷째, 순장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 인도 체제를 가지고 있다. 다섯째, 이론에 머물지 않고 삶의 적용을 위해 신앙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⁴⁰⁾

제자 훈련 그룹은 그들의 삶에서 작은 예수가 되자는 실천적 운동이다. 신앙 고백과 삶이 괴리되어 거짓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삶의 건강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정착하며 살아가는 고백이 그들 삶의 목적인 것이다. 또한 제자 훈련은 사람에게 대한 희망으로 시작하는 운동이다. 사실 목회를 섬기다 보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교회에 있음으로 해서 교회에 긍정적인 결과보다 부정적인 결과와 영향력을 많이 안길 것 같은 사람을 만난다. 제자 훈련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아름다운 사역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그 시대 인물로 따지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제자 훈련이라는 귀한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만드셨다.

농촌 교회의 현실 속에서 제자 훈련을 시도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적당한 교재의 부재와 제자 훈련을 적용하기 위한 방법론의 한계이다. 제자 훈련의 교육 원리는 성경의 내용을 주입시키고 외우게 하는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성경을 삶에 적용시키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귀납적인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 그룹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의 내용들이 서로 공유되고 때론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지는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농촌 사회는 자신들의 문제가 서로에게 찰저하게 노출이 된 공동체이다. 또한 자신의 삶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피동적 민족성이 대화를 가로막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제자 훈련으로 시작된 제자 훈련 모임이 결국 성경 공부 형태로 귀결되는 형태가 농촌 교회에서 반복되는 제자 훈련 그룹이다.

40) 병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65.

다. 언약 그룹(Covenant Group)

제자 훈련을 진행하거나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멤버들의 불성실한 참여도 때문에 참으로 많은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각자의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소그룹 모임은 중요하지 않은 하나의 선택적 모임으로 전락할 때가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역이 섬김이고(골 1:25, 고전 12:5),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사명이다.⁴¹⁾ 그러나 이 섬김과 사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수고 없이는 이를 수 없는 것이다. 모임의 기본적인 멤버십이 부족한 이들을 위하여 많은 리더들이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 친교 모임을 갖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친교 모임이 정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친목 모임으로 전락하여 말 그대로 먹고 마시는 모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그룹이 바로 언약 그룹이다.

언약 그룹의 성경적 기초로 바울의 두란노 교회를 예로 들 수 있다(행 19:8-9) 바울은 에베소의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를 비방하는 방해자들이 있었다. 이 때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은 아마 바울과 함께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공부하기로 언약을 맺었다.⁴²⁾

소그룹 멤버들이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개인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가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개인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전할 때 비방하는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은 외부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바울이 취한 조치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라는 언약 그룹을 따로 세운 것이다. 이들은 분명한 목적 의식과 상호 약속된 규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멤버들의 참여 의식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자신들이 왜 모이는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그룹 유지를 위한 시간을 따로 들 필요성도 그만큼 적어진다.

41) Rick Warren, *목적이 이끄는 삶*, 고성삼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3), 367.

42)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66-67.

라. 셀 그룹(Cell Group)

명성훈은 그의 책에서 셀 그룹 교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셀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사역이 셀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한다. 둘째, 모든 셀은 전도에 의해서 배가 되거나 새로운 셀을 개척해야 한다. 셋째, 셀은 철저한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직된다. 놀라운 것은 셀 그룹 인도자에서 교구장까지 모두가 평신도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체제를 갖추는 것은 셀 그룹이 각기 독립된 가정 교회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넷째, 셀 그룹 목회에서는 셀 리더 훈련이 최우선 순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콜롬보 IBM 선교 교회의 새 신자는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훈련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셀 리더가 된다.⁴³⁾

셀 그룹 교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변식이다. 전통적 교회의 교구 제도는 유지 관리 구조이지만 셀 사역은 양육 구조가 내재된 셀 변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역이다.⁴⁴⁾ 셀이란 개방적이고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그룹으로서 교회 생활에 함께 얽혀 있는 것이다. 셀 교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매주 모인다.⁴⁵⁾ 랄프 나이버는 셀 교회는 그룹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가정에서 모여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신자들간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서로 간의 돌봄과 사역을 시행하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한다.⁴⁶⁾ 그가 정의하는 셀 모임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한 방식으로 매주 모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이는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셀 구성원들의 가정이라는 점이다. 셀에는 두 명의 지도자가 있다. 목자와 예비 목자가 있다. 이 두 사람의 영적 리더십 아래 8명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 셀을 이룬다.⁴⁷⁾ 셀 교회는 수평적 영적 관계를 지향하기보다는 영적인 성숙 단계를 정확히 정하고 그들을 피라미드로 이끌어 가는 영적 지도자들 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셀 교회의 최종 지도자는 바로 담임 목사이다.

셀 교회의 특징적 형태는 셀의 가장 최고 리더십에 담임 목사가 위치해 있지만

43) Ibid., 68-70.

44) 김택수,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 세우기*, 172.

45) Joel Comiskey, *셀 그룹 폭발*, 박영철 역 (서울: 도서 출판 NCD, 2000), 23.

46) 박영철, *셀 교회론*, 230.에서 재인용

47) Ibid., 236.

결국 그 셀의 번식 능력은 목자를 중심으로 한 셀 전체의 자율성과 역동성에 둔다.

그러나 농촌 교회의 경우는 이러한 분위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한 구조라고 믿는 농촌 교회의 정서적 특징 때문이다. 농촌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가 아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 전체 가정의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혼자 사는 분들의 과부들의 남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등진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자율성과 역동성을 강조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모습으로 이해될 때가 많다.

마. 전도 양육 소그룹(Evangelism and Nurturing Group)

불신자 전도와 양육 소그룹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알파 코스를 들 수 있다. 명성훈은 그의 책, 소그룹 성장 마인드에서 알파코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알파 코스는 영국의 홀리 트리니티 브롬턴 교회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불신자 양육 프로그램이다. ALPHA의 첫 번째 A는 “Anyone can come”이다. 말 그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L은 “Learning and Laughter”이다. 15개의 강의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배우며, 강의에는 적절한 웃음과 재미를 가함으로써 참석자들의 긴장을 풀게 한다. 세 번째 P는 “Pasta”인데 파스타는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즉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기독교적인 우정을 키우는 기회를 갖게 한다. 네 번째 H는 “Helping one another”로 서로 돕는 것이다. 하루 일정 중에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특히 이 시간에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섯 번째 A는 “Ask Anything”으로서 어떤 것이라도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⁸⁾

알파 코스의 핵심은 주말 수양회인데, 이곳에서 참석자들은 강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이 역사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알파에 참석한 이들이 느끼는 허탈감이 있다. 그것은 알파라는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이다. 매주 모여 아름다운 사랑과 친교를 가지다가 갑자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이다.

48)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71-73.

본 연구자가 과거 부목사로 시무하던 교회는 비교적 알파 프로그램이 잘되는 교회였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알파에 참여함으로써 강한 멤버십이 형성된 그 모습 그대로 셀 모임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물론 셀 교회가 가지는 셀 번식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구조는 아니었지만 전환된 그 셀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양육 과정은 그들에게 충분한 유익이 되었다. 특별히 한국의 알파 프로그램은 주관하는 알파 코리아는 다음의 4가지 양육 과정을 통하여 양육을 체계화한다. 유익한 삶(빌립보서에 근거한 9주간의 과정), 특별한 의문점을 찾아서(빈도수가 높은 질문에 근거한 7주간의 과정), 삶의 스타일에 도전하기(산상수훈에 근거한 19주간의 과정), 부흥의 본질(이사야서에 근거한 11주간의 과정)을 통하여 알파로 정착한 그리스도인을 세 생명을 키우는 사역자로 세워 나간다.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농촌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인적 역량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알파가 그 역동성을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신자들이 계속 초청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교회 상황은 그렇지 않으며 농촌 교회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래서 알파를 중심으로 자체 전도 활동팀을 꾸려 노방 전도, 축호 전도, 새신자 환영회 등 전도 양육 프로그램을 시도하지만 농촌 교회의 한계는 특별한 인적 자원의 구성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알파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준비자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전도 양육 프로그램은 특별히 농촌의 현상과 너무나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바. 치유 및 회복 그룹 (Healing and Recovery Group)

현대 사회의 다양한 병폐로 인해 인격의 분열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 전인적인 치유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⁴⁹⁾ 사람을 전인적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그 병의 현상만을 집중하는 유일회적인 활동이 아니다. 그 사람의 미래까지도 책임을 지어 치료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신실하시고 끝없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49) Ibid., 70-73.

예수의 비유에는 인격 장애를 가진 자가 치유를 받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는 '수리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코스메오(kosmeo)'라고 한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단장하다', '치장하다'라는 뜻이 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 인격이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황폐한 사람을 회복된 후에도 계속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이러한 지체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소그룹 활동이 적당하다. 치유 및 회복 소그룹은 비슷한 문제와 내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진다. 이 그룹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교회에 연결시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치유를 돕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농촌의 많은 교회들이 치유 및 회복에 관한 프로그램을 시도한다. 농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치유와 회복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당위적 환경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그만큼 도시 지역에 비해 공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농촌 지역에 치유 및 회복 공동체를 시도하는 경우는 그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 아니라 자격증을 소유한 목사가 특별한 곳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목회와 전혀 무관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교인들을 상대로 치유 및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억눌렸던 자아의 깊은 죄성을 오픈해야 할 시점이 다가올 때가 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닫는 역반응을 농촌 교회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 자신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알려져 다가오게 되는 소문의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문제에 대한 비밀성이 잘 보장되지 않는 농촌 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상처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소그룹 운동의 한계와 농촌 교회 소그룹의 현실

헨리 클라우드(Henry Cloud)와 존 타운센트(John Townsend)는 일반적인 소그룹

50) Wayne E. Oates,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와 치유*, 안효선 역 (서울: 에스라 서원, 1996), 176.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의존성, 불복종, 수동성, 수다, 공격성, 자아도취, 영화(靈化)의 문제 7 가지를 언급하였는데,⁵¹⁾ 본 항에서는 그 문제를 농촌 교회의 소그룹 현실에 비추어 살펴보려고 한다.

가. 의존성의 문제

그룹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하면 그 그룹은 매력이 없는 그룹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소그룹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데는 열린 마음과 정직한 호기심이 필요하며, 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려는 성의와 능력이 요구된다.⁵²⁾ 그러나 파묻힌 감정은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에게 되비치도록 한다. 자신이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의 약한 문제를 그룹에게 맡기려고 하는 의존성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하나님은 서로의 의존성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의존성이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때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

일부 의존적 사람들이 그룹에 문제를 가져오지만 정작 멤버들이 다가가면 그 문제가 단절된다. 그들은 위로와 수용을 모른다. 그럴 능력이 없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감정에 빠져들면 거기서 헤어 나오지 못해 그룹의 시간을 독점하게 된다. 할당된 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⁵³⁾

농촌 교회 내에는 역기능 가정과 독거 노인들이 많다. 역기능 가정은 항상 화약을 안고 불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독거 노인들의 경우 자식들이 있더라도 혼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외로움에 지나치리만큼 집착이 강한 경우가 있다. 항상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거나,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과 그룹을 찾아 헤멘다. 실제로 이들과 대화를 잘못 풀어가다 보면 신세 한탄에만 몇 시간 이상을 들어줘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같은

51) Henry Clou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윤종석 역 (서울: 좋은 씨앗, 2004) 6부 cf.

52) Douglas Stone, Bruce Patton, Sheila Heen, *대화의 심리학*, 김영신 역 (서울: 북21, 2003), 133.

53) Henry Clou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323-327.

내용의 주제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매주 반복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예배 중에도 자기가 연약하고 눈이 잘 안보여서 성경을 찾을 수 없음을 보여 주기 위하여 큰 소리로 성경 구절을 찾아 해매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의존성은 교회의 사역을 진행할 때 자신과 친한 사람이 그 일을 같이 시작해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나. 불복종의 문제

그룹을 이끌어 가는 인도자의 사역 중 중요한 사역은 그 그룹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豫言者)의 기능을 감당한다는 것이다. 설교는 흔히들 목회자가 독점하는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인도자는 기능적으로 목회자의 말씀 선포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에 대한 일반적인 목회자 상을 가지고 있다. 때론 이 생각이 자신이 생각하는 목회자 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⁵⁴⁾ 그만큼 말씀을 이끌어 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리더에게는 절대 순종을 바치지만, 그렇지 못한 리더에게는 불복종으로서 행동한다. 이러한 멤버들이 교회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멤버들은 권위에 반발심을 품고 그룹에 들어온다. 모든 규범에 반항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자와 그룹 멤버들을 권위주의적 지배자로 보고 도전한다. 소그룹의 가치는 나분히 어떻게 불복종 멤버와 그룹 자체가 둘 다 교정 과정에서 유익을 얻는가에 있다. 리더는 불복종을 그룹 성장의 저해 요소로 보지 말아야 한다. 불복종을 하나의 성장 이슈로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⁵⁵⁾

연말이 되면 농촌 교회의 소그룹 리더를 누구로 세우냐는 문제로 많은 교회들이 내홍을 겪는다. 교회 내의 리더십은 성경적인 권위와 그 리더십을 행사하는 리더의 인격에서 비롯되어야 건강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원으로 이러한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54) Thomas G. Long, *증인하는 설교*, 이우재, 황의무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7), 37.

55) Henry Clou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328-332.

자신과 좋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속한 그룹의 리더로 세워질 때 강력히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문제는 이러한 반발이 조직화 되고 이미 첫 모임이 시작된 상황 속에서 불복종이라는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다. 수동성의 문제

소그룹을 통하여 멤버들의 문제를 오픈하도록 하는 것은 리더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런데 입에 자석이 붙어 있다고 착각할 만큼 입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내성적인 차원의 문제와는 별개로 의기소침한 사람들을 종종 본다. 현대에 와서는 의기소침이 정신병적 차원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한 사람이 용기를 잃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삶에 지치고 자신감을 잃을 때, 종종 다른 사람들을 피하는 의기소침의 현상이 나타난다.⁵⁶⁾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일상적인 말을 표현하는 것에서조차 수동적인 모습을 지니게 된다.

수동성은 무능과는 다른 차원이다. 야구에 빗대어 말하자면 무능한 사람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삼진 아웃을 당하지만 수동적인 사람은 야에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다. 수동적인 자세에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수동적인 사람은 말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룹에 참으로 자신을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⁵⁷⁾

참석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참석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하여 그들이 태도와 감정을 살피 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런 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⁵⁸⁾ 참석자들이 경직되면 수동적인 모습을 띄게 마련이다.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참석자들이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 아부 말도 하지

56) Gary R. Collins, *크리스찬 카운슬링*, 피현희, 이해련 역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84), 130.

57) Henry Clou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333-337.

58) Bob Jacks, Betty Jacks, Ron Wormser, *소그룹을 통한 효과적인 전도*, 네비케이토 역 (서울: 네비케이토 출판사, 1999) 76-77.

양개 하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할 책임이 있다.

농촌 교회의 소그룹 활동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문제가 바로 이 수동성의 문제이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정하거나, 아니면 공동의 선교 주제를 정하고 그 일에 힘을 집중하자고 제안을 해도 중요한 것은 그룹의 멤버들이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는 한국적 문화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수동성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이해해야 할 듯하다. 특별히 젊은 사람보다 노인들의 경우 이 수동성의 문제는 더욱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명하복의 교회 구조에 익숙하며 소그룹 모임을 단순한 구역 예배로 인식하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소그룹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 놓도록 능동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 수다의 문제

자신의 내면적인 문제를 말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담고 있는 태도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도 좋지 않다. 그러나 상대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목적이 없이 상대가 이야기 할 틈도 주지 않고 말하는 태도는 상대를 팽창히 지치게 만든다.

수다쟁이들은 그 그룹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수다의 내용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자신의 삶과 문제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다른 멤버들에 대한 충고일 수 있다. 하지만 주제가 어떻게 되었든 수다쟁이들은 결국 그룹의 흐름을 지배한다.⁵⁹⁾

그리스도인의 침묵은 듣는 침묵이요, 겸손한 침묵, 겸손 때문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침묵이다. 그것이 말씀에 배인 침묵이다.⁶⁰⁾ 그런데 자신의 지나친 수다로 말미암아 그룹의 건전한 흐름을 막는 것은 심각한 위험이 아닐 수 없다.

농촌 교회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 분들의 끝을 모르는 수다이다. 노인들의 이야기는 항상 과거 지향적이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자신의 과거에 대한

59) Henry Clou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338-342.

60)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 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64), 102.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의 반복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여기서 지적하는 수다의 문제는 한 사람의 개인이 그룹 전체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주도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다의 문제는 모든 소그룹에 두루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마. 공격성

인간 생활 속에 관계를 맺다가 보면 공격적인 사람들을 발견한다. 공격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들의 반응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상대에게 두려는 비겁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공격적인 사람과 연쟁을 하다가 보면 그룹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경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

어느 그룹에 아주 공격적이고 억지 센 사람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자. 그와 서로 피하기 위하여 그냥 별 뜻없이 그를 가만히 놓아둔다면 멤버들은 점차적으로 그룹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은 벌어진 상황을 문제화하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공평하게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유도하며 문제를 해결한다.⁶¹⁾

농촌 지역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순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이야기 할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 현실은 아니라고 이미 2장에서 밝힌 바 있다. 그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른들이 정서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공격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적인 사람이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이 성격의 문제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자신의 사회적인 문제이든 공격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멤버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된다. 특별히 농촌 지역은 농번기와 농한기의 시기에 따라 교인들의 정서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농번기의 바쁜 시기가 되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시기가 이어질 때가 있다. 이끼 지친 멤버들이 특별한 모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일 수 있다. 그렇다고 소그룹 활동을 쉬자니 모임의 중

61) Henry Clou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343-347.

요한 맥이 끊어질 위험이 크다. 소그룹 자체의 건강을 위하여 몇몇의 농촌 교회들은 농번기에 구역 예배 혹은 목장 예배에 방학을 두기도 한다. 예배에 방학이 있는 것은 비성서적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분들에게 모임을 진행하는 것 자체도 비성서적이다.

바. 자아도취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자신만의 영역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를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박상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자기가 흠이나 문제가 없이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려는 멤버가 있다면 그의 자아 도취는 그룹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경우에는 참 자아를 감추려는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자아도취가 있고 자신의 자존심과 우월감에 비롯되는 자아도취 유형이 있다.⁶²⁾

농촌 사회는 특별히 사회적으로 자신의 위치가 낮다고 생각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현재의 문제와 처지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의 이미지로서 신앙을 받아 들일 때가 많다. 또한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앞세워 심지어 교회 내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와 권한을 종종 행사할 때가 있다.

요즘 농촌 교회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단적 요소의 침투이다. 농촌 교회에 이단이 접근하는 것은 어쩌면 도시 교회보다 어려울 수 있다. 도시 교회에 비해서 문제 대처 능력은 농촌 교회가 도시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신속하다. 교회 내, 가족 혹은 개인 간의 문제와 소식이 어느새 마을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것은 농촌 교회와 그 지역이 가지는 특성 중의 하나이다. 그러다 보니 이단에 대한 대처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신앙적 문제에 의해서 이단을 벌리하고 경계하기 보다는 관계에 의한 사람들의 충고에 더 빨리 순응하는 모습이 농촌 교회에는 존재한다. 농촌 교회가 경계해야 하는 이단의 문제는 외부에서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이 아

62) Ibid., 348-353.

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이단적 요소이다. 이단은 아니지만 영지주의적인 모습이나 신사도 계열의 성령 운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마치 자신이 무슨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영지주의적 종교관은 영혼과 신의 직접적인 관계가 기록한 자와 거의 연애하듯 마주치도록 돕는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교회의 공적인 인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발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들인가 아닌가에 신경을 쓰기 보다는,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시켜 주는 언약함, 진실성, 그리고 친근한 자발성을 풍기고 있는지 아닌지에 더 신경을 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과 실천을 스스로 경험 위에 놓고 정당화 하고 있다.⁶³⁾ 이러한 신앙의 영향을 받은 개인이 그룹을 이끌어 가는 인도자가 될 때는 그 파급력이 상당하다. 특별히 자신의 삶에서 패배적 삶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어 교리적으로 아무런 토대가 없는 농촌 교인들을 유혹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농촌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사. 영화(靈化)

영화란 무익한 입바른 대답에 지나지 않는 고상한 영적 설명이나 충고를 늘어놓는 것이다. 이것은 당면한 진짜 이슈를 피한다. 이것은 아픈 사람과 같이 아파하라는 성경의 진짜 원리를 놓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⁶⁴⁾

농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노인 문제이다. 특별히 노인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외로움이다. 노인들의 외로움은 바로 지지(支持)세력의 확보를 통해서 그 외로움이 해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외로움을 겪은 노인들은 오히려 자기 친족보다 자신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간다. 노인들이 자신의 지지(支持)세력을 확보하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은 바로 상대방을 칭찬하는 것이다. 무조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칭찬은 자신의 집안에서 며느리와 사위로서, 아내와 남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한 개인에게 커다란 힘과 위로가 된다. 가족들에게는 이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처를 준 개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사가 되어 있는 신앙과 삶의 괴리가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이미 문제가

63) Michael Horton,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김성웅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221.

64) Henry Clou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354-358.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미 천사가 되어버린 개인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모습을 숨기게 된다. 이런 사람은 그룹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정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그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이 전부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결론을 성급히 내리고 다른 멤버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제 2 절 새로운 대안으로서 가정 교회

많은 소그룹 운동이 시도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존의 소그룹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참으로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소그룹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가정 교회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가정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가정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을 설명해 나갈 것이다.

1. 왜 가정 교회인 소그룹 운동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사회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인 불가피하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대가족이 중심을 이루던 우리 사회는 이제 소수의 가족이 존재하는 핵가족으로 바뀌었다. 이웃 관계 또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과거 우리 사회의 자랑이었던 이웃 간의 상호 교제는 지금 거의 단절되고 사라진지 오래이다. 직장에 대한 의식도 변화한 지 오래이다.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된 지 이미 오래이며 도처에서 가장들이 실직의 아픔을 겪는다.

교회의 생활도 많은 몸살과 변화를 겪고 있다. 문화적인 활동과 공연 부제 현상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사회에 교회가 과거 행하였던 모든 프로그램은 그 사회의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요즘 사회는 어떠한가? 오늘날 상당수의 교인들은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상실하였으며 교회를 주일 날 오전 예배에만 참석하는 기능을 가진 곳으로 이해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 넘쳐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

화를 이루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강력한 리더십은 선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창출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의 특징이 변화라고 본다면 분명 교회의 리더십 역시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이다. 변화의 시대에 맞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칼 조지에 의하면, 미래형 교회인 메타 교회는 소그룹을 통한 교회 활동을 강조하고, 목사는 평신도 훈련을 위한 사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⁶⁵⁾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의 몸집 불리기에 주목하는 양적 성장을 반성하고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 교회가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많은 소그룹 운동 중 우리는 왜 가정 교회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것은 목회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목회란 개인이 바르게 인도되고 교육과 교훈을 통해 양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방법에 있어 개인적이고 사랑스러운 가족적 돌봄을 통하여 치료되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 특별히 현대인의 영적인 문제는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원인과 양상이 다양하다. 현대 교회는 자연적으로 현대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목회 전반에 인간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정신적 문제를 통합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목회의 모습이 현대 목회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가정 교회의 장로는 영적인 아버지를 의미한다. 신앙적 장로이기 이전에 그 가정 교회를 책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는 것이다. 한국의 아버지의 모습은 가부장적 권위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복숨도 버리고, 인생도 바치는 그런 헌신적 이미지로서의 모습도 있다.

한국의 가정이 가부장적 문화의 역기능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공동체의 해법을 가족에서 찾으려는 이유는 한국 문화가 가지는 순기능적 요소 때문이다. 가부장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를 길러낸 한국의 순수 가족 개념은 교회 안에서 성별, 나이별, 혈연과 지연별,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는 성경적 공동체의 원형이다.⁶⁶⁾

65) 채이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 하우스, 2005), 21.

66) 권문상, *부흥 여객인 1907*, 271.

한국적 문화 상황 속에서 가정 교회의 영적 아버지인 장로는 신유 받고 있는 가정 교회 구성원들을 성경의 유기적인 특성인 섬김과 배려를 통한 십자가 사랑으로 가장 잘 인도할 수 있다. 서구 사회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 운동은 한국 사회와는 전혀 맞지 않는 옷이다. 비록 소그룹 운동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한국적 문화 상황과 유사한 가정 교회가 우리 사회에 가장 잘 맞는 구조일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적 구조의 전형적 특징을 안고 있는 농촌 교회에도 굉장히 잘 맞는 구조일 수 있다. 한국 사회는 다른 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 사회이다. 한국 사회의 단결력은 가히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IMF 시절 금모으기 운동, 태안 유조선 사고 전국민 기름띠 제거 운동, 월드컵 거리 응원 문화 등 한국인들은 무엇인가 중심 모토가 주어지면 굉장한 모습으로 강한 결속력을 보여준다. 또한 이 결속력은 위기의 상황에서 더욱 더 빛을 발휘한다. 지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이 한국인들로 하여금 강한 결속력을 가지게 하는 DNA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기 속에서 서로 힘을 합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능력은 이미 한국 사회가 역사와 삶을 통하여 체험한 산물이다. 가정 교회의 핵심 정신인 ‘모든 성도가 헌신된 사역자다’라는 정신은 이미 우리 민족의 위기 극복 능력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한국 농촌 교회의 현실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적 자원의 결여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문제를 놓고 현실만을 탓할 수 없다. 모든 성도가 다같이 일하는 구조는 모든 성도가 헌신된 모습으로 사역하는 가정 교회 구조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기에 가정 교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적 사역이다.

2. 가정 교회 모델 : 화평 교회

가정 교회를 농촌 교회에 적용시킨 사례로 성공한 모델링은 한국 교회에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교회를 농촌 교회에 집목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농촌 교회의 현실이 대부분 장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 내에서 장로가 가지는 교권으로 인한 폐해가 참으로 심각하다. 또한 그로 인하여 당회장의 지도력이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가정 교회는 장로가 그 모임의 지도력을 행사한다. 농촌 교회에서 가지는 담임 복사와 장로의 지도력은

이미 가부장적 문화 속에 원하는 위치 않던지 교회의 최상위에 존재한다.

또한 가정 교회가 가지는 건강한 성서적 운영 원리와 구성원들의 결속력은 가정 교회라는 용어에서 나오는 친근감과 함께 부너져 내려 가는 농촌 교회에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 교회에서 가정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일산의 화평 교회를 중심으로 가정 교회의 상황을 고찰할 것이다. 화평교회에는 제자훈련을 기초로 한 가정교회의 경우이다. 화평교회의 가정교회 운동은 담임목사인 최상태가 제자훈련을 통해 배출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계속적인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 고안했다. 그 결과, 훈련된 평신도들에게 교제, 성경공부, 전도와 선교 등의 사역을 이끌게 함으로 그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담임 목사인 최상태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울 수 있고 훈련된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가정교회임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목회의 에너지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 최상태 목사는 그의 책에서 그가 가정 교회를 주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가정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사역이다. 가정교회를 일시적인 신학 사조나 방법으로 이해서는 안된다. 유대교 가운데 가정은 유월절의 종교의식, 즉 일주일 간의 성스러운 음식과 기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배경이 된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떡을 떼는 일”이 “가정들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언급한다. 골로새서 3장 18절 - 4장 1절과 에베소서 5장 22절 - 6장 9절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18절 - 3장 7절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롬 16:5, 고전 16:19), 눅마(골 4:15), 빌레몬(몬 1:2)의 가정에 있는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 시대 가정이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⁷⁾

가정 교회가 성경적이다라는 의미는 초대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시절 가정 교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정신이 예배, 선교, 교제 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향한 정신을 아름답게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앞에 놓고 그것을 해석하는 연역적 접근 방법이 아니다. 가정 교회의 시작은 구조적인 관계의 틀 속에 갇혀 하나님의 정신과 본질을 잃어가는 현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러하기에 기존의 교회라는 틀을 가지고 그

67)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32-34.

정신에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교회의 기본을 이루는 가정이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그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출발한다.

둘째, 구성원이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하는 현대인이지만 인간은 홀로 있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삶의 허무와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나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답은 아닐 수도 있다. 모든 문제는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발생되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에게서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병이 있다. 바로 화병이다. 화병이란 적개심을 처리하지 못하고 억압으로써 생기는 병, 또는 격렬한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잊어 버리려고 억압을 함으로써 생기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특별히 한국인들은 가정 속에 남편과 시부모 혹은 부모와 형제들 관계 속에서 가부장적 서열 문화를 통하여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민족이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문제점은 이러한 관계가 사회적으로 확대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관계를 통한 스트레스가 무섭다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피하면 안된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각기 다른 사람이 만나 작은 공동체를 이루는 첫 시작은 부부이다. 부부는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봐야 한다. 같은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물이 아니다. 스콧 스탠리(Scott Stanley)는 부부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4가지 중요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는 확대(escalation: 서로 부정적인 반응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대화에서 적대감이 커지는 현상), 둘째는 무효화(invalidation: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성격을 교묘히 또는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유형), 셋째는 부정적인 해석(negative interpretation: 한 편이 계속해서 상대방의 동기를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넷째는 회피(avoidance: 이야기 도중 입을 다물거나 화제를 전혀 다른 쪽을 돌리려는 행위)이다.⁶⁹⁾

확대, 무효화, 부정적 해석, 회피의 문제는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68) 이동식, *현대인과 스트레스* (서울: 불광 출판부, 1991), 86.

69) Scott Stanley et al, *세상에서 가장 실재적인 결혼 생활 지침서*, 정동섭, 안신우 역 (서울: 한국 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1), 47-64.

서로 다른 객체가 그룹 구성원이 되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하나의 작은 가정일 수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환상이다. 그러나 가정 교회는 핵심은 우리가 상대에게 겪을 수 있는 확대, 무효화, 부정적 해석, 회피를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교회 공동체이다. 개인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한 현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가족애를 바탕으로 성장할 있는 구조가 가정 교회이다.

가정 교회는 그 구성원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깊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이다. 가정 교회의 구성원들은 가정 교회를 통해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 자매임을 체험한다. 또한 자신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상한 감정에 대한 치유 효과도 크다.⁷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한 형제 의식은 단순히 예배를 같이 드리는 예배 공동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교회에서는 삶의 문제들을 함께 나누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여러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한다. 또한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경험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평신도 지도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다. 건강한 평신도 사역은 목회자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네트워크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목회자는 사역을 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부산물들로 인하여 종종 스트레스를 받는다. 홀로 하는 것은 기도이다. 사역은 함께 하는 것이다. 평신도들과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대인 관계를 나누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⁷¹⁾ 하나님의 복음은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해서는 아니된다. 특별히 목회자 중심의 교회는 과거 한국 시대의 역사적 부산물과도 같다. 구한말과 전쟁과 보릿고개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를 극복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 강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는 한국 교회에게 모세와도 같은 존재이다. 모세의 리더십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 리더십으로 바뀌듯이 변화된 한국 사회에는 이처럼 섬김과 나눔을 통한 리더

70) 이동식, *현대인과 스트레스*, 34.

71) Donald Harvey, Gene Williams, *목회자 가정 그들만의 스트레스*, 김재택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109.

십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인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교회에 평신도들이 펼쳐나가는 리더십의 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상태는 다음과 같이 평신도 사역의 소중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위기는 평신도의 위기가 아니라 목사의 위기이다. 평신도들은 점점 깨어 사역하기를 희망하는데 목사들은 평신도들을 등용하여 사역자로 세우기를 꺼려하고 있다. 평신도와 목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모든 평신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으며, 서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⁷²⁾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 사역을 강조한다. 그러나 평신도 사역을 진행하면서 목회자와 리더십 충돌이 생겨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다. 어설픈 평신도 사역의 시도는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에게 평신도 사역에 대한 심한 오해를 남게 하여 평신도에게 목회의 일정 부분을 나누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낳게 한다. 그리고 더욱 더 자신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고립시키는 함정에 빠지곤 한다. 이러한 모습은 목회자 자신에게나 교회에게나 교인들에게도 불행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인간의 한계성이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 심검과 배려를 통하여 서로를 일으켜 세워 주는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구조는 목회자와 교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선교와 전도에 효과적이다. 현대의 교회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것에 이견(異見)을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다. 기존의 구조를 갱신하는 직접적인 방안도 좋은 것일 수 있겠으나 기존 세력에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특별히 종교 단체에서는 이러한 반발이 더욱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교회가 어떻게 갱신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 갱신이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로 집중될 때 가능하다. 교회 자체를 새롭게 하지는 차원을 넘어 교회의 담을 넘고 교회의 지평을 넓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다.⁷³⁾ 가정 교회 또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72)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35.

73) 한국 선교 신학회, 선교학 개론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1), 232.

가정 교회를 통한 전도와 선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가정교회는 말로 평신도들이 복음 전도를 위해 가장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최적의 도구이다. 각 가정 교회별로 각 구성원들이 가족 이상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전도하며, 선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나라의 선교사들과 각 가정교회를 연결하여 협력할 때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증폭될 수 있다.⁷⁴⁾

특별히 가정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있어 효과적인 구조이다. 효과적인 구조이기에 가정 교회가 건강한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정 교회가 가지는 구조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정신이 그 모임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라는 이야기이다.

다섯째 장소의 제약이 없다. 한국 사회는 주거 공간에 대한 욕심이 다른 민족에 비해 굉장히 강한 민족이다. 자신의 온 인생을 바쳐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소원인 나라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유일할 것이다. 이는 개인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많은 교회들이 그들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로 독립적인 예배 공간에 두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 외형적 치장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왔다. 교회 건물이 목사의 복회 열매를 평가하는 잣대인 양 인식되어 왔다.

가정 교회는 장소와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적 제한 또한 없다. 구성원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역을 감당할 만한 토양만 갖추어진다면 장소로 인한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⁷⁵⁾

모든 성도의 가정이 언젠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져야 할 약속의 땅이다. 우리 주위의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상품이나 제품, 시장의 가치와 경험에 의존하도록 교회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소비 성향은 일반 대중과 구별되지 않는다.⁷⁶⁾ 자신이 교인이기에 자신의 가정도 교회이며

74) 최상배,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35-36.

75) Ibid., 36.

76) Mark Labberton, *제일 소명*, 하보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4), 64-65.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착각이다. 이미 우리의 가정은 현대 사회의 대중 문화 속에 병들어 있다.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재단이라는 인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장소적 제약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편리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모이는 어느 곳이든지 그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임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다.

3. 가정 교회를 통한 인식 변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 가정 교회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하여 혹은 교인들을 잘 잘 듣는 수동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자 훈련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가정 교회는 교회가 건강한 구조로 가기 위한 좋은 구조이다. 가정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기존 교회 인식에 대한 변화는 첫째, 성도가 교회 기본인 핵심이다. 둘째, 모든 성도가 헌신된 사역자다. 셋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이다.

가. 성도는 교회 기본인 핵심

특히 토지와 집, 건물에 대한 편집증적 애착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의 건물 확보는 교회의 교회됨의 제일 우선순위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보니 자연이 교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곧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 없는 교회는 생각 하지도 못한다. 심지어 그것을 비성경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건물을 교회라고 가리킨 곳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래로 성도 즉,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성경은 '교회'(ekklesia)라는 말을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에 국한시킨다. 신약성경은 건물이나 그런 류의 것을 지칭하는 데에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적 없다.⁷⁷⁾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철근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성경에서나 초기 2세기 동안의 그리스도인의 시대에

77) Ibid, 102

서는 건물이 교회라고 불리워진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⁷⁸⁾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다. 이것이 가정교회의 핵심가치이다. 그러므로 가정교회는 사람 그 자체를 고귀히 이긴다.

오늘날 한국 농촌 교회의 현실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종종 사람의 가치에 대하여 그리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려는 유혹에 쉽사리 빠져 든다. 특별히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노인들이라면 이러한 유혹은 거부하기 힘들다. ‘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는 이런 폐배주의적인 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교인을 교회 운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사람이 교회라는 가정 교회의 가치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농촌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는 바른 성서적 시각을 제공한다.

나. 모든 성도는 헌신된 사역자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점점 공연(公演)처럼 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소수의 배우나 가수들이 공연 혹은 콘서트를 벌이는 것처럼, 성도들은 점점 더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에 몸을 묻고 앉아 무대 위에서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가 주도하는 예배를 관람하고 있다. 그리고 공연과 같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썰물처럼 일상의 삶으로 빠져 나간다. 그 결과, 객석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배와 교회 생활에 있어서, 특정한 자기 역할과 사명, 자기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관하며 수동적이 되어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는 몹시 공허하고 무의미하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한 가지 불길한 걸림요소를 지적한다면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충분하다. 그것은 사람을 사로잡을 정도로 충분히 아름답고 웅장하다. 예복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징, 음악, 시, 그림, 웅변술, 임숙한 말투, 좋은 음향 시설, 이런 것들이 어울어져서 예배자들의 마음을 한껏 사로 잡는다.⁷⁹⁾ 그러나 동시에 교회 내에서 무언가 자기 활동을 찾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그 길은 오직 전문 사역자에게로만 제한되어 있는 기현상이 일어난다. 그 결과 교회는 전반적인 능력을 상실

78) Ron Trudinger, *가정 소그룹 모임*, 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22.

79) A. W. Tozer, *예배인가 쇼인가*,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4), 61.

해 버렸다. 회중 교회의 경우 전체 교인의 약 20 퍼센트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역하고 나머지 80 퍼센트는 수동적으로 교회 생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많은 성도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스타 시스템을 양산한다. 일반 성도들은 의자에 앉아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앞에 나서 줄 스타를 원한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대신해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인도해 줄 인간 중보자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회중교회 시스템이 가져오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온전함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거대한 회중교회 시스템 속에서 성도라는 한 개인은 얼마든지 쉽게 자신을 숨길 수 있다.

가정 교회의 사역 주체가 평신도라는 의미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의 수동성과 피동성을 거부한다. 각 성도들은 평신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대로 자신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교회의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므로 참된 교회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교인들의 헌신은 자연스럽게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구분이라는 지주를 깨뜨린다.⁸⁰⁾ 물론 특정한 역할에 따라, 특정한 때에 가정교회 내에서도 다른 성도들 앞에 나서는 성도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8명에서 12명 정도의 회중들 앞에 나서는 사역자를 과연 스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구조 속에서는 자신을 숨기거나 감출 수 없다.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꾸밀 수 없다. 가정교회는 모든 가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다.⁸¹⁾ 그러므로 가정교회에서는 모두가 자기 신앙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된다. 이것은 그만큼 공동체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자연스럽게 혹은 초자연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리더들을 표면에 떠오르게 한다. 리더들은 공동체 안에서 검증받고 인정받는다. 가정교회 안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 비전에 대한 깊은 헌신은 진정한 영성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모든 환경 속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따르고 교회 비전에 전고히 서 있는 리더들의 수는 증가하게 된다.⁸²⁾

농촌 교회들이 도시의 교회들이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도전하기

80) Wolf Simson, *가정 교회*, 황진기 역 (서울: 도서출판 국제 제자원, 2004), 85.

81) Ibid., 146.

82) Lawrence Khong, *신사도적 셀교회*,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실교회출판부, 2000), 97.

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프로그램 형태를 고수하게 된다면 상황은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사역 참여에 있어 20 퍼센트의 능동성과 80 퍼센트의 수동성을 이야기하기보다 더 시급한 것은 이미 교회를 이끌어갈 구성원들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부족한 것일 뿐이지 전무한 것은 아니다. 도시 교회의 사역적 구조 속에서 교회 운영을 시도하다 보면 사역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자녀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표회를 했던 경험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잘해서 행복하기 보다는 자녀가 그 무대에 나왔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나 이웃을 섬기는 봉사의 의무나 혹은 전도, 선교의 모든 행위가 전문적이어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비록 앞에 나와 찬양 울동을 하는 노인들의 찬양은 전문적인 찬양팀들에 비해 그 전문성에서는 많이 뒤쳐질 것이다. 그러나 병어리의 찬양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음정과 박자가 틀린 노인들의 찬양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 교회는 이러한 농촌 교회의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삶의 방식

가정교회가 지니는 마지막 인식 변화는 교회는 어떠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닌,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다. 제도화 된 틀이 훨씬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교회 구조를 사회 구조로 바꾸려는 시도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정교회는 조직이 아닌, 삶 그 자체에 집중한다. 그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주재권(主宰權)에 온전히 복종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의미한다. 명복상의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고 실질적인 헌신과 복종을 이루는 삶에로의 회복을 이루이가는 것이다.⁸³⁾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마 16:24)이 바로 가정교회가 지니는 진정한 핵심가치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로 하는 그의 몸이다. 신약 성서의 사도행전 11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83) 박영철,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호, 74.

칭찬을 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왜인가?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일상의 삶 속에서 그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가정 교회는 삶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와 괴리시켜 고민하지 않는다. 이미 성도가 중요하고 성도 각 사람을 교회로 인식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바로 교회의 삶인 것이다.

4. 가정 교회가 농촌 교회의 영적 회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가정 교회 영성이 목회에 긍정적인 민은 교회 구성원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각종 원인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회 환경의 모습 속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의 포스트모던 시대는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과거 시대의 사람들은 모던의 시대를 경험한 세대이다. 모던의 시대를 경험했다는 것은 사상, 종교, 철학에서 변하지 않는 거대 담론을 경험했다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담론 앞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행복한 교회’이라는 담론이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에 정당한 사유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 교회의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평화롭지 못한 교회 생활을 하는 원인들이 되고 있다고 본 연구자는 주장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교회의 소그룹 운영 방식은 분명히 세대와 성별 중심이어서 소그룹의 효율적 운영 방식을 강조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 운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와 어려움을 소그룹 실패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부족한 모습을 서로 안아주는 공동체이다. 특별히 전 세대를 통합하는 가정 교회의 형태는 농촌 교회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노인들만 있는 소그룹 공동체에 아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많은 활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가정 교회의 운영을 통하여 서로가 아름다운 교제를 반복하다 보면 가정 교회의 장로는 자신도 모르게 그 존재감만으로도 교회 공동체에 커다란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가정 교회를 통하여 좋은 영적 아버지인 장로의 긍정적인 영향과 사랑을 받은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부르기 어려운 여호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기 쉽고 사랑스럽고 편한 압바(abba)(롬 8:15, 갈 4:6)⁸⁴⁾로 생각할 것이다.

제 3 절 가정 교회 원리

본 절에서는 가정 교회 원리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에 기초한 양육 공동체, 예배 공동체, 공동체적 교제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양육 공동체

양육이라 함은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을 섭취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자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열 두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계속 가르치시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주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⁸⁵⁾

양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룩한 사역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만 쓰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물을 가르켜 이야기 할 때 그 동물을 키운다, 혹은 기른다라고 표현하지 양육한다는 말은 결코 쓰지 않는다. 그렇다. 방법은 아주 중요하다. 물론 방법이 목적을 앞설 수는 없다. 그렇다고 방법을 도외시 할 수는 없다. 방법은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듯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목표에 큰 없어서는 안 될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리하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입증된 좋은 방법을 사역에 적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바로 이 과정에서는 리더의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성경 공부 교제를 선택함에 있어서 리더가 굳이 그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룹 구성원들에게 토의를 거쳐 우리 모임이 왜 그 성경 공부 교제를 선택해야 하는지 물어가는 형식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룹이 모임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이 공유되어야 한다.

84) 아람에서 ‘압바’의 의미는 우리가 부르는 ‘아빠’의 의미이다.

85) Ibid., 101.

성경 공부를 효과적으로 인도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첫째로 철저한 준비이다. 자신이 인도해야 할 성경 본문에 대하여 정독과 다독을 반복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들을 읽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가지고 가지는 않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인도자가 자료에 얽매이게 되어 말 그대로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전도 성경공부를 하는 방법이 한 가지 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성경 공부를 진행함에 있어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사람들이 제시한 방법과 지침을 잘 따라 해보라고 권장한다. 이미 효과가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초기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성공만큼 관심과 동기를 북돋아 주는 것도 없다. 첫 그룹에서 성공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게 되고 이를 토대로 사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⁸⁶⁾

2. 예배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주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다른 주된 이유는 예배는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이 하나님과 긴밀히 나누는 예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예배란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요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인간이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행위(대상 29: 11-13)"라고 정의될 수 있다.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만나는 자리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공동체의 구체적 사랑 행위를 하나님께 자연스럽고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 교회 공동체는

86) Bob Jacks, Betty Jacks, Ron Wormser, *소그룹을 통한 효과적 전도*, 128.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 소그룹 예배는 정형화된 주일 예배와 달리 다양성을 시도할 수 있다. 기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 말씀과 묵상과 나눔을 중심으로 한 예배, 리더의 설교에 초점을 둔 예배 등 여러 가지 예배를 시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쉼 교회에서는 소그룹 예배에 성만찬도 실행한다.⁸⁷⁾

특히 가정 교회의 원리 중 교제와 친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예배를 되외시하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태도이다. 가정 교회의 리더는 구성원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되기 위한 중표도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언약 백성이었음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3. 교제 공동체

인간에게는 친근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서로의 관심사와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 그러한 만남은 규칙적으로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소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하게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가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⁸⁸⁾ 모든 면에서 아름답고 편안한 교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자신들의 모임이 안전한 분위기, 판단 없는 태도, 정직함, 미래 지향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모임인지 멤버들과 대화해야 한다. 각자 이런 요소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예컨대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 그룹이 무슨 일이든 털어 놓아도 좋을 만큼 안전한가에 대해 아직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이 계십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지난 주 누군가 자기 삶의 실패를 언급하자 다들 몹시 나무라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닫힙니다.” 좋은 그룹은 교제에 필요한 것이 실제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한다.⁸⁹⁾

가정 교회의 친교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한 사람이 삶에 지쳐 자신의 가족에

87)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93-94.

88) Ron Nicholas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 신계구 역 (서울: IVP, 1986), 125.

89) Henry Cloud, John Townsend,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 90-91.

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가족의 사랑 때문이다. 그의 정서 속에는 가족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받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가정 교회의 친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르치는 강압적 분위기 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이라도 할지라도 아버지처럼 작은 아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 교회가 추구하는 교제 공동체이다.

4. 선교 공동체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신 다음 그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해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네 가지 단계의 훈련을 받도록 하셨다. (1) 실전을 통한 교육과정 (2) 리더십 입부 분담을 통한 교육과정 (3) 전도 파송을 통한 교육과정 (4) 전도 보고를 통한 교육 과정 이 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하신 것이다”⁹⁰⁾

실전을 통하여 유연성을 기르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을 배우고 최고의 사역 단계인 전도로 파송하는 것 이쩌면 이것이 우리가 지양해야 할 소그룹의 본래적 모습이다. 사실 상당히 많은 소그룹 비전의 목적이나 비전 등이 그 그룹을 단체의 존속을 위한 치유 집단 등으로 전략시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운영하신 소그룹의 최종 단계 목적은 바로 선교를 향한 파송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제 4 절 결론

사도들과 전도자들에 의해 세워진 각 지역의 초대교회들의 모습은 나름대로 독특하고 독자적이 모델로 발전하였다. 그것은 이 모델이 정형화된 틀로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그 지역과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지역적, 체계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로, 교회라 불리어졌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일상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통일된 정체성과 하나된 본질을 드러내주었기 때문이며,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그들의 공통된 삶의 방식이 바로 가정교회이다. 그러므로 이제

90)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32.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것은 초대교회가 보여준 신앙과 삶의 모범인 것이다. 가정교회는 선구자들을 위한 대안 교회가 아니다.⁹¹⁾ 가정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모델이 된, 평신도에 의하여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⁹²⁾ 한국 교회는 개혁이 필요한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교회는 언제나 그 사명을 따라서 갱신하는 공동체이다. 한국의 전통적 교회가 가정교회의 모습으로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가부장적 교회의 운영 형태와 피라미드 교회 구조에 익숙한 농촌 교회가 가정 교회의 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은 더욱 더 요원한 일이다. 역사적으로 가정교회가 들끓처럼 일어난 시기는 언제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의 시기와 일치하였다. 그러므로 교회가 매 시대 매 시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부흥이다. 개혁과 부흥은 평행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근본적 문제는 교회가 인간 중심적인 공동체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느냐이다.⁹³⁾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가정으로 부르셨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다. 한국 사회는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그 구성원들이 자신의 가진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아름다운 가족애를 지닌 민족이다. 우리가 서로 가족처럼 끈끈한 사랑과 정으로 뭉쳐 있다면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포기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교회 내에서 구현될 것이다. 심지어 미주 지역의 변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이 한인 교회의 분열 건이라는 오명도 벗게 될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환경적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네 농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리스도의 심장처럼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델이 바로 가정 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다음 장부터는 본 연구자가 사역하는 진복교회를 중심으로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농촌교회의 공동성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91) Lois Barrett, *가정교회 새우기*,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2), 10.

92)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3), 17.

93) 홍치모, “교회의 일치란 무엇인가?”, *신학지남*, 2002년 봄호, 80.

제 4 장

진목 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

본 장에서는 가정교회 사역을 통한 농촌교회의 공동체성 회복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본 연구자가 심기는 진목 교회의 상황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진목 교회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교회가 지나온 55년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진목 교회의 목회적 상황 즉, 지역 사회의 이해, 진목 교회 공동체성 붕괴 현상과 교회 내의 사미니즘적 요소와 현세 구복 신앙,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교회 질서, 평신도 지도자의 부재 및 목사 슈퍼맨 콤플렉스, 그리고 교회 재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진목 교회가 펼치고 있는 중점 사역을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진목 교회의 역사

1959년 7월 현재 교회의 위치에서 북서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진위 교회에서 집사로 시무하던 김○○ 영수가 개척 결의를 하고 1960년 임시 예배처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1964년 7월 20일 현재의 교회 장소에 교회당 신축 기공식을 진행하고 1969년 1월 5일 진위 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설립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가 제대로 교역자를 모실 형편이 되지 못하여 개척 목사인 김○○ 목사와 그 아들인 김○○ 전도사(후에 목사 안수 후 교회로 제칭빙), 그 며느리 민○○ 전도사(후에 목사 안수 후 교회로 제칭빙)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다. 교회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 보니 교역자가 젊은 시절 전도사로 교회에 청빙되어 왔다가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가 떠나는 과정에서 당회, 혹은 교인들과 목사들의 관계에서 갈등 관계를 형성한 채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1989년

8대 목사인 이○○ 목사가 부임하여 한때 교회의 젊은 세대가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는 모델로 주목 받기도 하였으나 3년 후에 사임을 하게 되었다. 1993년 9대 교역자인 김○○ 목사가 교회의 증축을 선포하고 선교를 위하여 25인승 대형 버스를 구입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교회의 3대 장로인 한○○ 장로도 임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8대 교역자인 이○○ 목사를 그리워하는 젊은 그룹과 9대 교역자인 김○○ 목사 사이에 목회 리더십 충돌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시기 교회의 젊은 그룹이 대거 교회를 떠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교회의 사택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사택이 전소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가 사택 없이 전전하는 상태가 지속 되었다. 사택이 없는 어려움은 10대 목사인 윤○○ 목사 때까지 지속되다가 교회의 사택을 현재의 부지(평택시 진위면 은산 5길 30)에 신축하고 옮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행정 구역상 교회는 용인, 사택은 평택인 이원화 체제가 시작되었다. 사택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살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사택 부지에는 많은 교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한 마을의 호구 수도 당시 교회의 사택이 있었던 마을보다 5배나 많았다. 타고난 친화력과 부지런함으로 무장된 10대 윤○○ 목사 때에 교회는 재정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비록 작은 숫자였지만 교역자 하나를 교회가 청빙하고 교회 살림을 운영해 가는 측면에서 진목 교회는 재정 자립이 확립된 교회로 발전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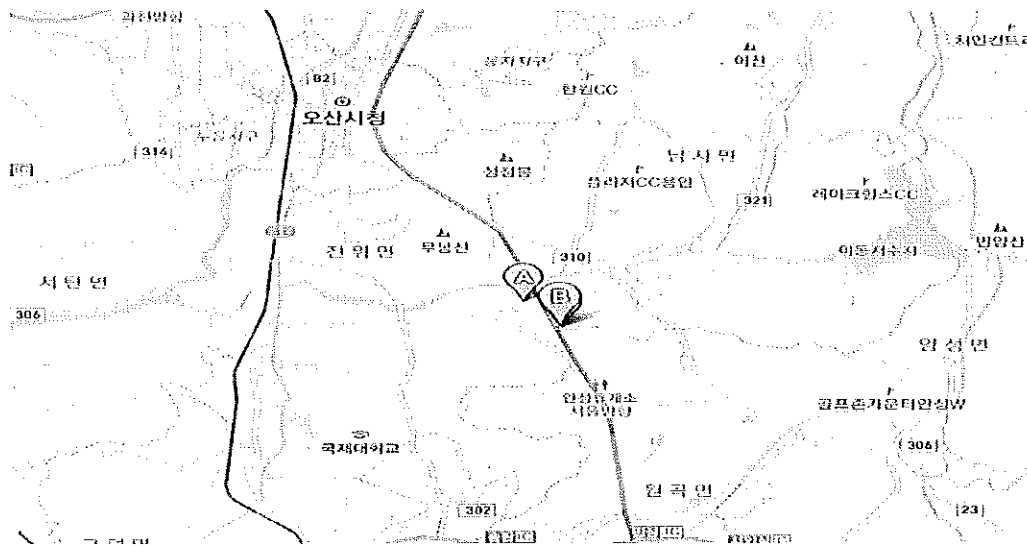
제 2 절 진목 교회의 목회적 상황

한 교회의 지역적 특성과 목회적 상황 진단은 목회의 기본 요소이다. 이러한 객관적 상황들을 무시하게 된다면 조직과 목표만을 강조하는 기계적 목회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 절은 지리적 위치를 포함한 진목 교회 주위의 지역 사회를 설명하고 진목 교회의 교회 공동체성 붕괴 현상과 이유를 서술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자가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해결을 위하여 진행하였던 목회적 대안들을 서술할 것이다.

1. 지역 사회 이해

다음의 <그림 1>을 살펴보면 지도상의 위치에 진북 교회는 두 곳이 나타난다. 원래 행정 구역상 교회가 있는 B지점 용인시 남사면 진북리와 사택이 있는 A지점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는 과거 경부 고속도로가 생기기 이전에 남사면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다. 고속도로의 생성으로 인하여 행정 구역상 지금의 사택 지역인 은산리 지역이 진위면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그림 1> 진북교회와 사택의 지도상 위치



따라서 행정 구역은 틀려도 은산리와 진북리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진북 교회의 행정 위치는 비록 용인시 남사면 진북리에 위치해 있지만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에 살고 있다. 또한, 그들의 생활권도 용인보다는 평택이나 송탄, 오산 등지가 그 주무대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교인들이 대부분 거주하는 은산리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

은산리는 덕암산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동쪽에 경부고속국도가 지난다. 자연 마을로는 은산(銀山), 산대(山岱), 기동(基洞), 방촌(傍村), 미동(米洞), 미등골(美登-), 은정골(銀井-), 상리(上里), 말미, 월정 등이 있다. 은산리는 은정과 산대를 병합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는 은을 케틴 은구덩이 산이 있다는 데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한다. 말미는 은산리의 뱀 위쪽에 있는 마을로 상리라고도 하였다. 기동은 앵터가 있

나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텃골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개국 공신 정도전 묘가 있으며, 정도전을 모신 정씨사당이 있다. 정도전 사당의 영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유교적 질서가 굉장히 강한 곳이며 또한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다니거나 부당을 섬기 곳이기도 하다. 특별히 이 지역은 교회가 동네에 세워질 때 교회의 건축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이 목사의 먹살을 붙잡고 반나절을 돌아다닐 정도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정서가 가득한 곳이기도 하다. 어차피 종교 생활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절에 다니는 것이 집안과 자손에 좋을 것이라는 사고가 지배하는 곳이기도 하다.

2. 진복교회 교회 공동체성 붕괴현상

가. 장로의 갈등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치리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함을 살핀다. 교인 중에 고난 당하는 자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⁹⁴⁾ 현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은 헌신과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자리로 전락한 지 오래이다. 섬김의 직분이 권력의 자리로 전락해 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예전의 장로직은 서로 안 하려고 사양하는 자리였으나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않다. 음으로 양으로 누구나 장로 되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도 많다.⁹⁵⁾ 이러한 사실을 장로 스스로 부인하고 싶은 것이 현실이겠지만 이미 한국 교회 내에 장로 그룹 간의 분쟁과 갈등은 시작된 지 오래이다. 물론 모든 인간이나 공동체의 발전은 갈등을 통한 정반합⁹⁶⁾ 구조 과정의 연장 선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당회에서 벌어지는

94)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헌법* (서울: 고려인쇄 공사, 2001), 61.

95) 이영무,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을 위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62에서 재인용, 김동호, *생사를 건 교회개혁* (서울: 규장문화사, 1999), 145-146.

96) 위키 백과 사전 : 정반합(正反合, 독일어: These, Antithese, Synthese, 영어: thesis, antithesis, synthesis)은 철학용어로 논리의 전개 방식의 하나이다. 여기서 '정'은, 어떤 것이 모순적 면모를 지닌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을 부정하여, 모순을 털어버린 상태를 '반'이라 한다. 하지만 '반'은 모순을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이 세상 모든 물체들은 모순적 면모를 지닐 수 밖에 없으므로, 그것에서 비될 것은 비리고 취할 것은 취한 상태인 '합'으로 나

분쟁을 교회 발전을 위한 정반합 발전 과정으로 이해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갈등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교회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갈등의 원인이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이기적인 상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당회의 갈등 양상은 그 모양만으로도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자가 부임할 당시 진복 교회는 원로 장로 2명, 시무 장로 2명이 섬기고 있었다. 목사를 향하여 자신이 동역하는 장로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복 교회는 상황은 그 협력 관계가 상생 관계에서 소모적 갈등을 야기하는 모습으로 이미 고착화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본 연구자와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나누는 개인적 대화에서 모든 장로가 상대의 약점을 대화의 주된 화제로 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특별히 시무 장로간의 신뢰성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교회의 시무 장로 한 사람이 기존의 교인 몇 사람과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자고 제안한 것은 그에 대한 반증의 예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시무 장로 두 사람은 자라온 가정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아버지의 부재이다. 한 사람은 아버지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아버지와 10년 가까이 왕래가 없었으며 나머지 한 사람은 어렸을 때 병으로 아버지가 별세하였다.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색은 세상을 향하여 항상 적대적 상실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적대성은 자신이 가족을 어린 나이부터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비롯된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라도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환경에 있으면 위험을 느끼고, 세상은 적대적이고 위험이 가득한 장소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 주도면밀하게 다른 사람들을 불신하는 것이 제 2의 천성이 되는 것이다.⁹⁷⁾

시골 교회는 장로의 사역 중 중요한 영역이 바로 재정 관리이다. 진복 교회의 경우는 2명의 시무 장로가 일년마다 돌아가면서 교회의 재정을 관리한다. 그런데 부임 초기 자신에게 넘어온 재정 장부의 수처와 남아 있는 재정이 서로 맞는 일이 발

아간다. 그러나 합 또한 모순적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합'은 다시 '정'이 된다. 이러한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정반합 이론이다.

97) Wayne E. Oates,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와 치유*, 85.

생했다. 그런데 서로 전혀 대화를 거부한 한 채로 장부의 수치가 맞지 않는 것을 상대 장로가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나. 교인 구성원들 갈등

갈등의 요소를 통하여 그 집단이 발전한다고 유물론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안이한 생각이다. 교인들 간의 갈등이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많다. 사회 계급과 집단의 갈등은 한 사회의 발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계적 사고 방식은 교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갈등의 원인이 합리적인 틀 속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비합리적인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수한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사회 발전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적 모순들도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갈등이 될 수 있다.⁹⁸⁾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적 모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을 추구하고자 하는 은혜로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상황의 비대칭성(히브리파, 헬라파)이 비건설적 갈등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의 분열 갈등의 원인이 히브리파 유대인의 지연(地緣)의식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의 문제는 이처럼 비사역적인 측면에서 발생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전체의 공동체성에 큰 해악을 미치는 상황으로 발전한다.

한국의 농촌 교회에서 교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무엇이 있을까? 본 연구자가 지난 4년 동안 농촌교회에서 겪거나 들어왔던 교인들 간의 분열 현상의 원인을 나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 (1) 옛날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 자신을 멸시하고 천대했던 기억
- (2) 자신의 자녀가 성공했을 때 마음으로 축하해 주지 않는 모습
- (3) 자신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실
- (4) 자신의 배우자와 너무 친하게 지내는 상황
- (5) 목회자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
- (6) 교회에서 나오는 선물 분배 과정에서 자신이 제외된 이유

98) 한국 철학 사상 연구회 편역, 철학 소사전 (서울 : 동녘, 1990), 5.

- (7) 교회에서 산 땅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8) 자신이 속한 복장(구역)에서 다른 복장(구역)으로 옮겨졌을 때 등등...

교회 교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의 양상을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농촌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을 기반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감정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갈등은 서로에 대한 미움을 뛰어넘어 교회의 미래 지향적 사역을 진행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독교 공동체라는 이름이 근사한 이름으로 기론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거의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에 대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인 관계와 구조로 실행에 옮기려 할 때는 마찰이 생기게 마련이다.⁹⁹⁾ 그런데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인 구성원들 간의 갈등 관계는 교회의 모든 활동에 교인들 서로가 부정적인 방해자 혹은 방관자가 되어 건강한 교회 공동체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은 천국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작업이다. 지금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지만 오시는 하나님을 대망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한다. 결국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하심은 피조물들의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다.¹⁰⁰⁾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교회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현존을 철저하게 기다리며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활동이 감정에 의한 갈등으로 좌절된다면 우리는 교회라는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갈등과 미움과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심각한 갈등은 교인들 사이에 신뢰성 부족의 결과를 낳게 한다. 서로의 신뢰성이 부족함으로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 서로에게 실수를 지적받지 않으려는 수동적이며 피동적 자세가 교회의 모든 활동에 만연하게 된다. 심지어 교회의 제직회나 공동 의회가 공동의 의견을 모아내는 협력의 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하여 평가 받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비건설적 형태까지도 발전하게 된다.

99) Marva J. Dawn, *희열의 공동체*, 이종태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4), 98.

100) Jürgen Moltmann, *오시는 하나님*, 455.

다. 원로 그룹과 젊은 그룹의 갈등

장로의 직책은 그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원로 장로와 시무 장로로 나뉘어 진다. 본 연구자가 교회에 부임할 당시 교회에는 원로 장로 2명과 시무 장로 2명이 있었다. 그런데 진복 교회에는 원로 장로와 시무 장로의 모습이 서로 협력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이 갈등은 과거 원로 장로들의 시무 활동 시절이 너무 억압적이고 비성서적이었다는 의견이 시무 장로와 젊은 그룹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원로들의 고민과 경험은 교회에 상당히 유익하다. 그러나 서로의 신뢰가 파괴된 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원로들의 고민은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진복 교회는 과거 교회가 부흥의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는 8대 담임 목사 이○○ 목사 시절에 대한 강한 향수가 있다. 그런데 젊은 그룹들은 이 시기 담임 목사의 사임에 원로 장로들의 비협력적 동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젊은 그룹 내면 속에 원로 장로들에 대한 강한 반발심이 자리잡고 있었다. 또한 원로 장로들은 은퇴로 인하여 사역의 중심에서 밀려난 자기 상실감이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상실감은 자신들의 존재감과 헌신을 알아 주지 않는다는 서운함으로 이미 그들 내부 깊숙이 자리 잡았다.

3. 교회 내의 샤머니즘적 요소와 현재 구복 신앙

하늘을 숭상하는 샤머니즘적 영성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독교의 영성이 같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기독교에도 분명 샤머니즘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형상을 요한은 세 가지 상징으로서 표현했다. 곧 하나님은 인격적 주체자로서의 자유의 ‘영’이요(요 4:24), 생명과 정의의 구현으로써 구성된 평화의 ‘빛’이시오(요일 1:5), 창조적 ‘사랑’이시다(요일 4:16). 이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유와 평화와 사랑으로 구성된 영성을 지니게 된다. 이 인격은 개인적 실존인 동시에 인간 관계를 통해 존재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존재한다.¹⁰¹⁾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이렇게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이기적인 영성이 아니다. 그리스도교의 영성은 보다 이타적이고, 공동체적이다.

샤머니즘은 인간과 초자연적 존재의 접촉이 그 영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 접

101)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26.

축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무당이나 신접하는 이의 존재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향력이 높다. 본 연구자가 살고 있는 용인의 남사면과 평택의 진위면은 예로부터 무당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신내림을 받을 때 작두도 댔던 무당 할머니가 있어서 그 마을의 주요 현안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 한국의 교회 내에 왜 샤머니즘 형태의 신앙이 창궐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본 연구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하비콕스는 한국 교회의 특징을 영성, 음악, 여성으로 규정하였다. 그는 그의 책 7장에서 한국 교회에서 여성들이 성령운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체험, 즉 하나님과 각 개인의 직접적인 만남의 체험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¹⁰²⁾ 결국 가부장적 가정 환경 속에서 억압 받았던 여성들이 성령 체험이라는 절대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요소가 한국 교회에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령의 체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성적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강조하신 사항이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이 영(spirit)과 진리(truth)라고 증언한다.(요4:22-23).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진리를 중요시하지 않고 샤머니즘적 요소만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영적인 현상이 일반화 되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豫言者)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존재와 자신을 연결해 주는 샤머니즘적 영성의 연결 고리로 이해되는 사고가 확립되었다. 강대상을 중심으로 선포되는 목사의 말씀에 집중하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제정립하려는 신앙보다 복회자와의 관계가 신앙 유지의 중요한 척도가 되어 버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담임 목사와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그룹이 밥을 몇 번 먹었느냐가 신앙의 중요한 척도 기준이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가족 중심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가족 구성원이 가족에 충실하다고 해서 출세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집안’이 잘되는 것과 사회에서 가족 성원이 성공하는 것은 동일시되고 있다.¹⁰³⁾ 자신 집안의 평화와 안녕과 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한국 사회 어머니의 당연한 모습이며 이러한 역할을 주로 여자가 도맡아서 한 것은 바로 한국 사회의 특징 중 하

102) Harvey Cox, *영성 음악 여성*, 유지황 역 (서울 : 동연, 1999), 183-206

103) 여성 한국 사회 연구회, *가족과 한국 사회* (서울 : 경문사, 1995), 48.

나이다. 국가적인 관료 종교인 유교는 가부장적 조상 숭배와 천도 숭앙을 지고의 이념으로 삼았으며 여기서 여성은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한편 상민들의 민간 신앙의 경우에도 촌락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마을굿 역시 남성들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에 비해서 가정 내의 신앙 행위는 주로 여성들에 의해 관장되어 왔으며 무속 신앙은 여성들을 매개로 번성해 왔다.¹⁰⁴⁾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혈연적 사랑과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회의 개방적 상황과 가족들의 출세와 번영을 기원하는 유교적 출세 이념이 결합되어 한국 교회는 구복 신앙의 형태를 유지한다.

본 연구자의 교회도 해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을 정하고 특별 집회나 새벽 예배를 진행한다. 이러한 집회를 교회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다 보면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가 현세구복 신앙을 많이 추구하는 현상을 금방 알 수 있다. 집회의 주제와 목표가 바로 자녀들의 구원과 축복이라면 그 집회에 참석하는 참석율이 다른 집회와 다르게 확연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별히 여성들의 참석률이 훨씬 압도적이다.

4.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교회 질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는 유교가 있다. 물론 무교와 불교 혹은 사머니즘도 한국 사회의 문화와 심성에 기저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의 체제나 실제적인 가족문제, 그리고 가치관의 문제에서는 유교가 압도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유교적 질서의 핵심은 바로 초법적 힘이 한국 사회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치적으로 배움으로써 적절하게 작동해야 할 전문가들의 경고 사이렌을 듣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고 사이렌이 울리지 못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기능들은 골다공증처럼 내부적으로 부식되어 조금의 충격만 주어지면 붕괴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¹⁰⁵⁾ 교회에서 배로는 당회가 이 초법적 힘을 행사할 때가 있다. 교회의 최고의사 결정 구조는 공동 의회라는 전 교인의 민주적 절차이다. 그러나 한국의 농촌 교회의 모든 사안들은 당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유교적 질서의 폐해는 나이가 들어 은퇴하는 원로 그룹과 새로운 젊은 그룹 간의 갈등의 불씨로 남는

104) Ibid.

105) 김정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 출판사, 1999), 144.

다. 또한 교회의 모든 조직이 나이를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나이가 어린 그룹은 나이가 많은 그룹을 섬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교회의 구조가 이러한 구조이어야만 은혜롭게 생각하는 교인들을 양산해 낸다.

결국 나이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효라는 유교적 질서의 이념 속에 묻혀 교회는 나이 많은 사람의 충고는 어른의 사랑이고 나이 어린 사람의 충고는 버릇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부임 초기 시절 교회의 평등 지향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남신도 설거지를 제안한 바 있다. 담임 목사인 본 연구자가 설거지를 시작하였다. 많은 교인들이 감명을 받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분위기는 어색했다. 유교적 문화의 틀 속에서 담임 목사의 설거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려움 그 자체였던 것이다. 또한 장로들의 설거지도 마찬가지였다. 교인들의 반대 뿐 아니라 장로들 스스로도 자신이 설거지를 하는 것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있었다.

5. 평신도 지도자의 부재

미국 사회에서 한때 회중식을 지키고 있던 교회의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걱정스러울 만큼 교회를 떠났다. 왜 그들은 교회를 떠났을까?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떠난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율법과 규칙에 근거한 제도적인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 아닌 건물과 위원회의 하나님, 경험적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지식과 정보를 주시는 하나님, 영적 성화의 하나님이 아닌 행동 수정의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¹⁰⁶⁾ 전 세계적으로 평신도 사역이 극대화 되는 현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제들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부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제 1의 종교 개혁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평신도에게 분배되는 현상은 제 2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역사상 아주 특별한 선교 정책을 가지고 있다. 자립, 자치, 자력 전파라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다. 한국 교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재정적 자립을 강조하였으며 한국 교회의 성장 이면에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헌금 참여가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⁰⁷⁾ 한국 사회에서 평신도

106) William A. Beckham, *제 2의 종교 개혁*,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성남: 도서출판 NCD, 2000), 199.

107) 박우용, *현대 교회와 교회 재정* (서울: 하늘 기획, 1999), 33.

사역이 증대되어 온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이처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평신도 중심의 토양적 환경이 큰 몫을 하고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없는 사실이다. 교회가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목사에게 집중된 교회 권력을 되찾아 와야 한다는 혁명적 발상의 전환이 아닌 교회 자체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면에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장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더 강도 높게 개발시키는 것을 그들의 중요한 일로 생각한다. 이런 지도자들은 성도 개개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¹⁰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모든 족속을 훈련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다(마 28:18-20). 양육과 훈련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우며,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골 1:28).¹⁰⁹⁾ 따라서 평신도가 목회가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는 성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많이 증대되어 왔다. 훈련되지 않는 평신도의 리더십은 교회 내에서 피라미드형 교회 운영구조와 잘 결합되어 교회 운영 측면에서 결국 또 다른 독재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양산해 내는 폐해가 일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의 리더십이 확립해야 교회는 보다 성경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현재 농촌 교회가 안고 있는 평신도 리더십의 부재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이다. 기존의 훈련되지 않은 평신도들의 평신도 리더십 부재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로 세울 근본적인 사람 부재가 그 큰 원인이다.

6. 목사 슈퍼맨 콤플렉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분주함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분주함은 사회 전반 뿐 아

108)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성남: 도서출판 NCD, 2001), 38.

109) Ibid., 39.

나라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사역 영역에서도 다양하게 드러난다. 분주한 목회가 오히려 건강한 목회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목사가 그 위치의 특성상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인 슈퍼맨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다. 슈퍼맨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결정을 내릴 때 남들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것에서도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기인한다.¹¹⁰⁾ 이러한 완벽한 일처리의 자세는 일의 능률을 오히려 떨어 뜨리는 원인이 되고 결국 목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겪게 된다. 목사의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전가 되는 가족 스트레스로 발전한다.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초기에 경제 공황, 전쟁, 재해,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런 사망이나 질병, 실직 등의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한 가족의 반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혼인, 첫 자녀 출산, 다양한 가족 의례와 행사, 사춘기 자녀와의 갈등, 가족 부양자의 정년 퇴직 등 일상적인 생활 사건들도 가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¹¹¹⁾ 결국 일상의 모든 목회적 환경이 가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은 목사 가정이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닐 것이다.

농촌 교회의 목사는 거의 대부분 혼자서 일을 감당해야 할 때가 많다. 주일 예배 설교 한 번 (오후 예배가 있는 경우에는 두 번), 수요일 예배 설교 한 번, 매일 새벽 예배 설교 다섯 번 이상, 경우에 따라 금요일 철야 한 번, 특별 심방 등 일주일에 열 편 정도의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현실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분재를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모든 일이 일주일간의 타임 스케줄(Time Schedule)에 의해서 적절하게 분배되어 일어나면 좋겠지만 목회에는 종종 기대하지 않은 시간에 큰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미 해야 할 목회의 일반적 영역 위에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목회가 즐거운 사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에 벅거운 스트레스를 동반한 일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살았던 세계는 훨씬 규모가 작긴 했지만 그분에게도 우리에게 익숙한

110) 미니 투데이 뉴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13013284485958&type=>

111) 여성 한국사회 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 290.

방해거리와 요구가 많았던 같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주의깊게 살펴 볼 때, 그 분이 서두르셨다거나 남을 '따라 잡아야' 했다거나 불시에 기습을 당했다는 경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예수님은 개인 비서 없이도 공적인 시간을 잘 사용하셨을 뿐 아니라, 기도와 묵상을 위한 자기만의 시간과 제자 훈련을 위해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보낼 시간도 직절히 할애하셨다.¹¹²⁾ 결국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한 목회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촌 교회는 복회자의 시간 관리가 쉽지 않다. 많은 농촌 교회는 젊은 일손들이 부족하다. 그러한 이유로 농촌 교회 목사들은 자신들이 직접 교회를 관리하거나 수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몸에 생기는 각종 문제들은 50 퍼센트 내지 85 퍼센트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 두통에서부터 심장마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을 다 포함한다. 스트레스, 즉 심박수나 혈압 그리고 신진대사 등과 같은 정상적 신체 기능이 붕괴되는 현상은 우리 신체를 '방위 반응'에 상태에 놓이게 만든다. 그 상태로 장기간 지내다 보면 질병에 대항해 싸우는 신체 능력이 저하된다.¹¹³⁾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많은 목사들이 부임 초기에는 목회에 열심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그 자체 구조의 분주함 때문에 슈퍼맨 콤플렉스의 경험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슈퍼맨 콤플렉스를 경험하고 있는 목사의 가정이 가정으로 안정된 구조를 형성할 리가 없다. 특별히 많은 목사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내면 깊숙이 감추고 있다가 가족에게 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사들은 유리 집에 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목사들의 삶에 간섭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싶어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목사의 잘못을 바로 잡아줄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목사의 흠을 보고 고쳐주려 한다.¹¹⁴⁾ 결국 그러한 교인들의 지적을 받은 목사는 더욱 더 자신의 일에 완전히 지려고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전가되고, 가족은 그 스트레스로 또 다른 가족 스트레스로 반응하게 되고, 가족 전체는 가족 위기를 경험

112) Gordon Macdonald, *내면 세계의 결서와 영적 성장*, 홍화옥 역 (서울: IVP, 1990), 131.

113) Blaine Allen, *그만두고 싶은 목사 그만둘 수 없는 목회*, 오현미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4), 169.

114) Donald Harvey, Gene Williams, *목사 가정 그들만의 스트레스*, 64.

하게 되는 어리석은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에 부임하여 교회 사역에 매진하다가 3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목회에 재동이 걸리게 되었다. 많은 일을 준비하고 앞으로 전진하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지 세워 놓은 목회 계획의 실천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임시 제직회와 당회가 본 연구자 자신에 대한 무기력함과 무능에 대한 평가의 자리가 될 것 같아 부담감이 내 내면을 누르는 심한 압박감을 경험하였다. 특별히 이 시기 중고등부 교회의 수련회의 과정에 원하지 않은 의사 사고가 발생하여 교회의 학생 하나가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회까지도 접어야 한다는 죄책감이 본 연구자를 사로잡았으며 다가오는 연말이 두려운 경험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학생의 부모인 우는 자를 향하여 위로하는 예수 가르침이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고 내가 그 가정에 무엇인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목회적 강박관념이 나를 짓눌렀다.

7. 교회 재산 문제

농촌 교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교회 재산 문제이다. 절대 농지의 경우 그 재산 소유주를 비영리 단체인 교회로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재산을 시무 장로 혹은 원로 장로의 명의로 관리한다. 또한 이러한 재산 관리가 한 때 은혜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의 고리가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회의 재산 문제를 명백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면 좋겠지만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부모 시대의 교회 갈등이 자식의 시대까지도 전가되어 공동의 교회 재산을 명의가 자신의 부모 앞으로 되었다고 해서 교회의 재산을 법적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그러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초대 장로가 교회의 갈등 구조 속에서 교회를 떠나게 된 후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교회 부지와 교회 건물을 이전하지 않은 채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장로가 별세 후 유언에 따라 교회의 부지는 교회로 반환되었지만 교회의 건물은 여전히 명의가 변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관청에 가서 교회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을 받으려 할 때마다 별세하신 교회 장로 아들의 허

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별시와 천대를 받고 쫓겨났다는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다. 교회 공동 자산인 교회의 건축물 대장의 소유 여부가 그 아들의 감정적 기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제 3 절 진목 교회 중점 사역

본 연구자가 진목교회에 부임한 지 4년이 되어간다. 본 절에서는 그동안 진목교회가 역점을 둔 중심사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목 교회의 년도별 중점 목회 계획을 살펴보고 교회들을 치유하는 목회 프로그램과 지역 치유 프로그램의 강화를 논의할 것이다.

1. 진목 교회 년도별 중점 목회 계획

다음의 <표 6>을 살펴 보면, 진목 교회의 년도별 목회 계획을 나열한 것이다.

<표 6> 진목 교회 년도별 표어와 목회 실천 목표

년도	교회 표어	성경 말씀	구체적 실천 목표
2012년도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	마 28:16-20	1.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 교회 전도팀 만들기 2. 말씀과 성령과 기도가 충만한 교회 : 기도 집회, 새벽 예배 강화 3. 신한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 : 장학 기금 조성, 지역 구제 사업
2013년도	여호와와의 능력으로 위로하라	사 53:3	1. 가정을 위로하자 : 가정 사역의 모델을 세우는 교회 2. 교회를 위로하자 : 성경 통독의 모델을 세우는 교회 3. 세계를 위로하자 : 단기 선교의 모델을 세우는 교회
2014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갈 6:14	1. 죄를 못 박는 삶 : 기록한 삶 생활화 - 전교인 가정 예배 세우기 2. 분열을 못 박는 삶

			: 교인 공동체 생활화) - 교인별 하루 공동체 세우기 3. 분노를 못 막는 삶 : 품성 치유 생활화 - 중장기 부부 세미나 전교인 치유 세미나 및 치유 집회
2015년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요일 4:11-12	1. 섬김으로 하나되는 공동체 : 전교인 하루 공동체 세우기 2. 봉사로 하나되는 공동체 : 로댐나무 봉사팀 세우기 3. 전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 소그룹 전도팀, 총동원 전도주일 집회 세우기

부임한 첫 해 2012년에는 교회의 기본적 신앙 생활에 은혜의 깊이를 더하는 것과 지역 사회를 향하여 교회의 좋지 않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지역 선교 사역(장학 기금, 구제, 개안 수술)을 진행하였다. 마을의 대동회가 벌어질 때 직접 가서 인사를 하고 부임 첫 해에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 대동회를 섬겼다.

2013년에는 교인들의 신앙 생활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기를 위하여 일주일간 성서 통독 집회를 열었다. 또한 단기 선교를 통하여 중고등부와 청년들의 신앙과 삶의 지경에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였다.

2014년은 목회에 있어서 침체의 시기이다. 지난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약간의 장년부 성장과 교육부의 파격적인 성장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교인들은 갈등의 구조 속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자 스스로도 과중한 일과 스트레스에 묻혀 서서히 지쳐가는 상황이었다. 특별히 교회의 예산이 부임 초기부터 서서히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고 매주 부족한 예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운 세 가지의 실천 계획을 한 가지도 이루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반기를 보냈다. 여름을 기점으로 전교인 치유 프로그램인 하루 공동체를 확립하려고 했지만 뜻하지 않게 여름 수련회 때 사랑하던 학생 하나가 불의의 익사 사고를 겪으며 교회는 말 그대로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교회의 모든 행사가 중지되고 온통 그 일을 해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다. 목회의 현장에서 도망치고

싶은 강력한 유혹이 본 연구자를 사로잡았으며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으로 본 연구자를 유도하였다. 학생의 죽음으로 교회가 몇 달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교회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또한 일주일간 금식 기도 주일을 선포하고 마지막 금요일에는 애찬식을 통하여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고 서로 눈물로 손을 잡고 기도하였다.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자면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 분열은 없을 것 같다는 환상이 본 연구자를 사로잡았다. 그러나 곧 또다시 상대에 대한 미움과 불신을 바탕으로 한 여러 움직임들이 포착되었다.

2015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자 자신의 목회에 대한 심각한 자기 반성으로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여 교회의 공동체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바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였고 이 목표를 구현하고자 농촌 교회에 가장 적합한 가정 교회 모델을 서로 경험하고자 2014년에 계획만 세웠다가 학생의 익사 사고로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하루 공동체를 시작하고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우게 된다.

2. 교인들을 치유하는 목회 프로그램

부임 초기 본 연구자를 가장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이 시무 장로 가정의 부부 관계가 위험한 수준으로 지탱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교인들 앞에서 때때로 아내를 향한 장로들의 분노가 너무나도 자주 표출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일부 한 가정을 제외하고는 남편을 향한 아내의 분노가 굉장히 위험 수위에 도달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장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교회 중직자들의 가정이 남편의 외도 의심과 이혼으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다. 좋은 가정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좋은 가정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가정 치유 목회를 교회의 가장 중점 사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가정의 치유는 한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서 시도하고자 했던 가정 치유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 하였다. 첫째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둘째는 담임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셋째는 목회 상담자와 전문 상담자가 해야 할 일이다.

가. 교회가 해야 할 일

(1) 가정 사역 위원회 조직의 문제이다.

가정 사역은 가정을 돕기 위한 모든 창조적인 노력이 집대성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정 사역은 단순히 교회의 여러 프로그램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아니다. 가정 사역을 통한 치유 사역은 교회 생활 전체에 배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 사회라는 개념으로 인식될 때 가장 훌륭히 해 낼 수 있다. 오늘날 가정들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불안정한 가정들이 많다. 높아가는 이혼율,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모들, 전통적인 가정들의 붕괴는 교회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기에 가정의 붕괴를 보면서 교회는 위기 의식을 느끼며, 가정을 바로 세우는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비정상적인 가정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¹¹⁵⁾

이런 측면에서 교회 안에 가정 사역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무척이나 바람직하다. 가정 사역 위원회는 선교, 교육, 봉사, 예배 부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요긴한 기관이다. 따라서 그냥 교회의 부설 조직으로 형식적인 모습을 취하기 보다는 그에 맞는 임원과 제정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또한 가정 사역에 은사가 있거나 관심이 있는 실행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 교회에서 가정 사역 위원회를 세우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농촌 교회의 특성상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 그 역할을 당회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치유 프로그램의 계획과 시행을 당회와 공유하였다.

(2) 수련회의 개발

수련회 집근의 가장 큰 유익은 아마 단기간의 기간 동안 포괄적인 유익을 준다는 것이다. 주말이나 혹은 한 주 전체를 가정 치유라는 것을 주제로 삼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매 해 년도마다 하루 혹은 1박 2일 코스로 전체 가족 치유 수련회를 총괄 기획하였다. 또한 가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수련회나 세미나의 주제는 너무 포괄적이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한 명 이상

115) Charles M. sell,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정동섭, 최민희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92), 20-42.

의 강사가 “기독교 가정”이라는 캔버스 전체를 큰 붓으로 넓게 칠 해 줄 것을 전제로 초빙된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일반적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생활하는 방법보다 가정에서 의사 소통하는 방법을 목적으로 택하는 것이 낫다.¹¹⁶⁾ 그렇지만 유일회적인 프로그램과 세미나는 현재 우리의 문제를 적시하고 물음을 던지는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 담임목사가 해야 할 일

목회에 있어서 가정을 돌보는 사역에 있어서 목회 상담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목회 상담의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신성종 목사는 21세기에는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면서 21세기에는 지도자 상이 바뀌는 교회와 목회 계획을 잘 세우는 교회와 시대를 이끄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하였다.¹¹⁷⁾ 목회자가 새로운 시대적인 안목이 없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 교회는 목회자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다. 목회자는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분명한 목회 철학을 세우는 역사 의식과 함께 비전과 추진력 그리고 청지기 정신을 가진 영적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무너지는 현대 사회의 가정을 향하여 목회자는 그 가정을 치유하는 목회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가정의 중요성은 알았으나 현실적으로 교회 구조가 가정 중심으로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가정에서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되풀이 되고 있다. 교회의 행사들이 시간을 요하므로 가정과 경쟁 관계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족들이 교회에 가면 종종 뿔뿔이 흩어진다.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정 생활보다 더 두드러진 행사에 참여토록 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행사는 가정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다.¹¹⁸⁾

본 연구자가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계속 중점을 두고 강조해 왔던 것이 바로 분주하지 않은 삶이었다. 교회에 와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를 했지만 박상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지쳐 버린 심신의 상태로 가족들을 대하다 보니 서로 공격적인 행동과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이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116) Ibid., 511-513.

117)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 도서출판 하나, 1994) 334.

118) Charles M. Sell, *가정 사역*, 72.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더 나아가 가정 생활이 건강해진다는 기계적 해석을 철저하게 거부하였다. 농촌 교회는 워낙 사람이 없다 보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특별히 사역의 분주함으로 지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이 바로 농촌 교회의 장로 그룹이다. 본 연구자는 사역에 지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구조로 장로들의 역할을 축소시켜 나갔다. 또한 담임 목사의 역할 중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설교이다. 특별히 2013년도 이후 많은 주일 설교를 화해와 용서라는 주제로 설교하였다. 교회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상대가 가족이든, 교인이든, 마을 지역 주민이든 몇 십년 동안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말을 하더라도 기초적인 일상 대화 이외에 어떤 내용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다. 목회 상담자와 전문 상담자가 해야 할 일

오늘날 한국의 몇몇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그리고 교회 규모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상담 사역에 관심이 있는 교회에서는 상담 전임 교역자나 전문 상담 사역자를 두고 상담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에서는 인적, 물질 사정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 내에 상담 전임 교역자나 전문 상담 사역자를 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교회의 교역자가 상담 사역에 매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현실은 농촌 교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형편상 상담 사역을 전담할 교역자나 전문 상담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평신도 중에 상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상담 교육을 받게 한 후 자원 봉사 차원에서 상담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상담에 관한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후원 구조가 형성되면 큰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¹¹⁹⁾ 그러나 본 연구자의 교회는 그럴만한 평신도 역량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2014년 교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여신도 3명을 안양샘병원의 전인 치유교육 훈련원에 12주 과정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아침 일찍부터 안양까지 가서 수업을 받기까지 매주 토요일 거의 10시간 가까이 공동으로 교육받은 그 기간은 서로 대화조차도 거부하던 여신도들에게 많은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하여 교육받은 여신도들 중에서 교

119) 심수명,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성남 : 도서출판 NCD, 2005), 403-404.

회의 상담 사역을 전담하는 여신도를 평신도 지도자로 세울 계획이 있었다. 교육원의 최종 평가를 끝내고 여신도들의 허락 하에 그들의 상담 과정과 평가서를 받은 후 이들이 교회의 상담을 이끌만한 내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전문적인 상담가에게 진단 받음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자신들의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지역 치유 프로그램의 강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무엇보다 종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 종의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긴 것 같이 그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향하여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에서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는 청년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희랍 사회에서 청년이라 함은 주로 24세에서 40세 미만의 사람들을 가르킨다고 볼 때 이때 사울은 적어도 25살에서 35세 미만은 되었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나이를 추정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가? 유대 사회에서 바로 사울의 위치를 기늠하기 위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 정도 나이면 이미 유대 사회에서는 바리새파 랍비 교육을 다 마무리 하고 유대교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¹²⁰⁾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전체적 사고의 틀이 완전히 변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교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려면 지역을 향한 전체적인 사고의 틀이 변화 되어야만 가능하다. 바울의 경우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 그에게 임하게 됨으로 그의 사고의 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이제 막 시작한 개척 교회는 오히려 이러한 것이 쉬울 수 있지만 이미 농촌 교회 교인들의 사고에는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돕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고가 팽배하다. 무엇보다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농촌 사람들의 일반적 인식은 그들의 가난은 그들의 게으름에게 비롯되었다는 것이었다. 교회는 상대의 가난이 구조적인 것이든, 그들의 게으름에서 비롯되었든 그로 인하여 고통 받는 이웃이 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와야 한다.

120) 최갑중, *바울연구 1* (서울 :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99) 21.

교회와 지역 사회의 파괴된 공동체성은 어떤 이유에서든 회복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본 연구자가 부임한 시기 지역 사회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 교회 부임을 한 후 마을 노인정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일반적인 농촌 마을에서 보여지는 따뜻함이 없었다. 교회가 있는 진북리는 교회를 떠났던 정○○ 장로의 일가 친척과 그와 관련된 사람이 살고 있었으며, 또한 그가 교회에서 장로로 시무할 때 마을 주민들과 좋지 못한 사이로 지내었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사람들은 그들대로, 그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대로 교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사택이 있는 은산리는 그 마을 속에서 교인들이 지역 주민들과 좋지 못한 감정의 고리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 또한 교회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교회가 지역을 향하여 잃었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선교와 봉사의 정신으로 그들을 섬길 때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무종교인 중 상당히 많은 사람은 과거에 종교인이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과거에는 개신교 신자였다고 한다.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개신교 교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고 한다. 개신교 교회가 너무 많아 귀찮아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한국 개신교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미 증발시켜 버린 지 오래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개신교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불신과 모멸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칼한 모습이다.¹²¹⁾ 이러한 사회적 비판에 편승하여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고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니 교회의 부흥은 참으로 요원할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지역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바로 ‘만남 한마당’이다. 교회에서 고기와 음료수를 대접하고 게임을 통하여 선물을 준비하고 노래 사랑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어울림은 참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만남의 축제’를 통하여 토요일에 지역 주민을 초청하고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여 놓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장학금, 구제 사업, 개안(開眼) 사업, 부활절 계란 나눔, 민속 병절 떡 돌리기 사업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121) 한완상, *예수 없는 예수 교회* (파주: 김영사, 2008), 135-136.

제 4 절 결론

지난 기간 목회를 되돌아보면 목회적으로 많은 시도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몇 가지 변화의 조짐도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목회 침체기와 교인들의 영성이 변화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목회의 위기가 왔었다. 또한 여전히 교인들 사이에 서로를 향하여 남아 있는 좋지 못한 악감정은 분명 풀어야 될 숙제이다. 담임 목회 4년 여정을 보내며 본 연구자에게 남는 한 가지 화두는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라는 공간을 통하여 행복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셨던 사랑이라는 단어이다. 형제와 자매의 연합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본 연구자가 섬기는 교회에 가장 시급한 것이라는 결론과 함께 본 장을 마무리하며,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진복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제 5 장

진목 교회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

앞 장에서는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진목 교회의 몸부림과 그 한계를 살펴 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체짐을 극복하고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가정 교회 사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농촌 교회 가족 상황의 이해를 도모하고, 왜 진목 교회가 가정교회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며, 가정 교회 구조 변환 단계에서 농촌 교회의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또 하나의 대안인 가족 교회의 정의와 구조 및 운영방식을 살펴볼 것이며, 세대를 통합한 가정교회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목교회에서 가정 교회 구조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하루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제 1 절 농촌 교회 가족 상황의 이해

농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그룹의 형태는 모든 소그룹 운영 형태의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농촌 교회의 가족 기초를 이루는 부부 그룹, 자녀를 둔 부부 그룹, 독신 그룹, 독거 노인 그룹을 살펴볼 것이다.

1. 부부 그룹

부부는 상대방 앞에서 부끄럼이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됨으로써 이 귀한 관계가 파괴가 되었다. 오늘날 많은 부부의 결혼 관계가 위기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것은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에게 들어와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언약을 회복해야 한다. 언약 결혼은 부부간의 불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발미얍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아버지와의 관계

와 같은 관계에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¹²²⁾

한국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가 원만한 가정이 교회의 공동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부부 관계의 깨어짐은 서로의 개인적인 성향으로 끝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는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또한 교회 내에 이혼의 아픔을 경험하거나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 공동체성 지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바른 결혼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에릭 프롬의 5가지 인간형에서 다섯 번째 인간형을 추구해야 한다. 그의 생산지향성(productive orientation) 인격¹²³⁾은 건강한 개인을 만들고 건강한 개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생산 지향적 성격의 인간은 자신의 무의식적인 충동과 갈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감정, 사고, 행동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비합리적인 가정이나 생각을 적게 가지고 부정적인 사고를 거의 하지 않으며 결혼 생활에 대해 끝까지 긍정적인 사고로 일관한다.¹²⁴⁾

이렇게 건강한 자아로 무장된 건강한 부부는 다른 부부들에게 영적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소그룹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교회는 무너진 부부 관계에 빠져 있는 부부를 회복시키고 이들을 훈련하여 교회 공동체의 다른 부부들에게 관계를 맺게 해야 한다.

농촌 교회 속에 속한 부부 관계와 도시 지역 부부 관계를 비교하여 건강한 척도를 나타내는 수치는 없다. 그런 관계를 수치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일이다. 그러나 목회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교회의 부부들의 관계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이혼까지도 불사하는 가정들

122) Diana S. Richmond Garland, Betty Hassler,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부부의 삶*, 교회 훈련부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18.

123) 임현영, "에릭 프롬의 인간과 사랑론", 임현영의 문학 세계, 제 112회, 연재발표번호 982842, Online: http://www.kll.co.kr/element_express cf.

124) Everett L. Worthington, *결혼 예비 상담*, 김창태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도 1995), 24.

도 있다. 농촌 교회에서 한 부부의 이혼 문제는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다. 농촌 교회에서 부부의 이혼은 말 그대로 하나됨의 파괴이다.

하나됨. 이것은 사랑의 최종 목표이다. 남녀가 처음 만날 때 꿈꾸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하나됨은 진히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결혼의 모습이다. 성경 말씀처럼 태초에 애덴 동산에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창 2:18)”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됨을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함께 있게 하셨다.¹²⁵⁾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파괴되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임을 가르치는 상담가들도 있다. 그러나 분명 중요한 것은 이혼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천국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다. 또한 농촌 교회에서 한 부부의 이혼은 한 가정의 깨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농촌의 특성상 농촌 교회는 서로 맺어지고 있는 인간 관계가 도시에 비해서 결속력이 강하다. 그러하기에 부부의 이혼은 자신이 맺고 있는 인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러한 영향력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부부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아니된다.

2. 자녀를 둔 부부 그룹

자녀는 그 그들이 성장하기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맡긴 것이다. 따라서 자녀는 가정의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으며 부부는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가 많다. 특별히 요즘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을 하는 가정이 종종 있다. 자신의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에 스스로 가장들이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자녀들도 그 자살 행위에 가담을 시킨다. 물론 자녀에게 말하지 않는다. 자기 자녀의 삶의 생존 여부도 부모인 자신이 결정한다는 사고는 그의 사고 깊숙한 무의식에 자녀를 소

125) Henry Cloud, John Townsend, *No!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 김진웅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109.

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농촌의 많은 가정들은 유교적인 가정 환경이 지배한다. 유교의 가장 큰 정신은 무엇인가? 최석만은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 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유교는 개인과 전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인 “가(家)”라는 통합체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것을 유교적 가족주의라고 하는데 이 가족주의의 중심에는 “혈친애(血親愛)” 즉 혈연 중심의 결속 관계가 그 중심을 이루고 이러한 관계는 하늘에 그 근본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는 인간의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¹²⁶⁾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변화할 수 없는 영속적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위계 질서가 결합되면서 항상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길을 지도하는 선생이 되어 버리는 관계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분명 그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지라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갈 5:13)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라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자녀의 올바른 지도를 위해서 훈계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종종 폭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문제는 부모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자녀를 길러본 부모라면 대개 한 두 번은 아이에게 매질을 하고픈 충동을 느꼈을지 모른다. 아이가 이유없이 울면서 때를 부리고, 반항할 때에는 이러한 기분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특별히 농촌 지역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도시에 비해 훨씬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동원될 때가 많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매질하는 것의 대부분은 아이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때의 부모의 정신상태 등에 좌우를 받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수잔 포워드스 자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에게는 공통된 특성을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요약하였다.

첫째, 자기의 충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결여가 된 사람이다. 둘째, 그들은 자기 자신도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며 자라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부모의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큰 욕구 불만을 안은 채 성장하여 어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넷째,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126) 최석만 외,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 (광주 :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83-84.

들이 알코올이나 약물에 의존하고 있는 수가 많다.¹²⁷⁾

자녀는 부모의 또 다른 일면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자녀와 관계를 잘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대화를 통해서 지금 자녀의 영적인 상황과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먼저 부모가 자녀의 확실한 후원인과 상담자가 되어 주어야 한다. 교회는 자녀와 부모가 서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주말 가족 수양회 혹은 부모에 대한 자녀 교육 프로그램 등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리하여 자녀와 부모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도록 교회는 분위기와 기회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독신자 그룹

독신이라는 의미가 원래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를 의미하는 뜻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독신은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자와 결혼을 했으나 아직 이혼을 통하여 독신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농촌 교회의 많은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시기가 지났는데 결혼을 하지 못하는 독신의 경우이다. 도시의 교회들은 교회 내에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들이 많았는데 농촌의 경우는 도시의 경우와는 틀리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남자의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 보다는 요즘 우리 사회의 농촌 기피 현상이 결혼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까지 침투하여 농촌의 총각들은 결혼 기피 대상의 우선 순위가 되어버린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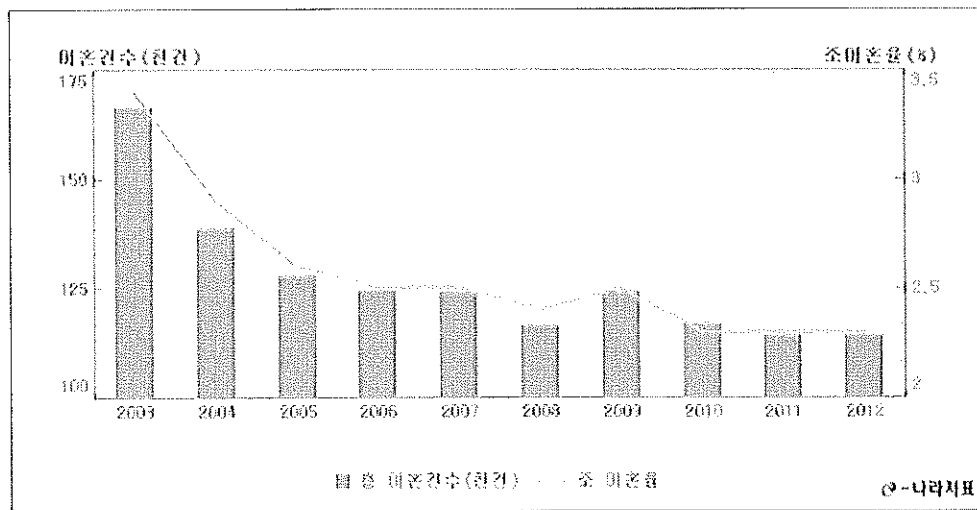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을 뛰어넘어 결혼의 두 대상인 남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제반 조건들(경제적 상황, 정신적 상황, 집안 등)을 통합하는 결합임과 동시에 유형적 예식의 형태를 통하는 결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혼이라 함은 서로 다른 여성이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을 성립하게 하는 두 주체는 철저히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혼이라 함은 서로 다른 두 문화의 범주가 하나의 큰 틀에서 융해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결혼이라

127) Susan Forward, *흔들리는 부모들*, 한창완 역 (서울: 사이언티아, 2000), 135-137.

함은 단순히 두 남녀의 동물적인 결합이나 목적론적으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과제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회적 환경들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 이혼 건수 및 조 이혼율 추이를 담고 있는 <표 7>을 보면, 결혼이 좋은 환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IMF 외환 위기 이후 경제적인 문제로 증가하던 이혼율이 2003년을 기점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표 7> 총 이혼 건수 및 조 이혼율 추이¹²⁸⁾



그러나 2005년 이후로 한해의 이혼 가정이 20,000 가구 이상으로 고정화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 가정의 이혼은 그 당사자들 뿐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며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통해 한 가정을 이루고 헤어지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결혼이라 함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텃밭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의 결합이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어쩌면 결혼이라 함은 화약을 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무모한 행동일

128) 국정 통계 정보 시스템, 년도별 총이혼 건수 및 조 이혼율, Online: <http://www.index.go.kr>
 조이혼율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굴레 속에서 사느니 독신을 추구하는 것은 훨씬 바람직할 수 있다. 독신 생활을 하게 되면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서 애써야 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돈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생활의 영역에서 기혼자에 비해 더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써 독신자는 평생 당면해야 할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현대 사회의 인간은 굳이 독신으로 살지 않더라도 수많은 영적인 문제에 봉착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결혼이라는 것을 사랑의 마지막 목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태도이다. 결혼은 그 과정을 통하여 같이 만들어 갈 공동체의 목표 속에 뛰어 드는 시작의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결혼을 눈 앞에 두고 있는 미혼자들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철저한 성서적 준비와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결혼에 대한 의미를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미혼자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를 시행 중에 있다. 교회에서 미혼자들을 위한 결혼 예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미래의 갈등 요소로 인하여 결혼 생활에 파국을 맞게 될 지도 모르는 익명의 부부를 위한 예방 차원의 역할도 있다.

농촌 교회에서 독신자 문제는 참으로 심각할 정도이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결혼 관 때문에 농촌에서 농촌의 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시집오는 미혼 여성들이 생각보다 적은 형편이다. 그래서 결혼할 정년은 되었으나 마땅한 대상을 찾지 못하고 총각으로 40대, 50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 결혼이 유행하여 결혼이 진행되지만 문화적, 언어적 차이에서 오는 다문화 가정의 가정 문제와 그들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 문제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또한 남아선호 사상에 의하여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비 균형의 문제는 농촌 총각들로 하여금 더욱더 결혼을 어렵게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농촌 교회에는 결혼에 실패하여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남성 교인들이 농촌 교회에 있다. 우리 사회의 특성상 자녀의 친권은 주로 아버지가 가지는 것이 관행이기에 자녀를 맡았기는 했지만 마땅히 양육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경우 부모와 한 지붕 안에 살기는 하지만 철저하게 집안 문제를 무신경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자신의 자녀들의 양육 문제를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신만의 성을 쌓아나가는 독신들이 늘어가고

있다. 꼭 혼자 살아서 독신이 아니라 이미 내적으로 독신의 단계에 이르러 독신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4. 독거 노인 그룹

농촌 지역의 독거 노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핵가족 사회로 접어들었다. 자신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늙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인 문제의 한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노인 문제라고 해서 노인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인식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노인 문제는 사람이 노인이 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등 모든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 중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의 생존권 문제이다. 한국 사회의 복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 우리네 농촌 노인들은 흔히 말하는 복지 사각 지대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예로부터 한국 사회는 부모의 노후 복지 문제를 자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자녀와 부모의 혈연적 관계로 인하여 부모가 연로하거나 병이 들었을 때 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맡겨지는 것이 불효라는 생각되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다. 많은 한국인들 특히 농촌 지역의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사회 경제적 환경은 자녀들로 하여금 농촌에 머물러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자신의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에는 서로를 의지하여 농촌에 살던 노인들이 배우자의 죽음으로 홀로 남았을 때 많은 자녀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마을을 떠난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외로움의 연속이며 아파트에서 외로움에 지쳐 죽어갈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는 홀로된 많은 노인들이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을 떠나 정서적인 단절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 그냥 홀로 집에 독거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자는 과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던 시절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인 복지 센터인 ADHC(Adult Day Health Center)¹²⁹⁾에서 일한 적이 있다. 노인들의

129) ADHC : 이 프로그램은 노인과 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위험이 만성이거나, 의료 인지 능력이 없거나,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장애를 가진 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라이선스가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일 건강 프로그램.

건강 정도에 따라 일주일에 2-5일까지 하루에 4시간씩 센터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결국 자신의 육체적 한계와 병을 경험하게 된다. 이 센터에서 주목하는 것은 노인 분들의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개선시키거나 아니면 24시간 케어 상태가 되기까지 잘 관리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육체적 상태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없다. 비록 있더라도 몇몇 교회나 비영리 단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노인 학교 수준이 전부이다. 그것도 날마다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로 한 번 정도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어려하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이 노인에게 재미는 제공하겠지만 노인들의 직접적인 삶에 개입하여 이들의 건강 문제, 정신 문제,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들은 본인 스스로 찾아야 하는 모습 가운데 있다. 노인 문제를 노인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처럼 무책임한 말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신체적 노화는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 및 행동의 감퇴나 저하를 의미하며,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일어나는 변화 과정을 뜻한다. 노년기에는 여러 가지 신체적 노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많아지며, 신장과 체중이 감소한다. 대뇌의 구조 및 기능 역시 감퇴하는데, 이로 인해 기억력과 인지적 통제 기능이 저하된다.¹³⁰⁾

이러한 노화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거나 비기독교인이거나 전부 경험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목회자는 자신의 교회의 노인 교인들이 이러한 노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라는 자각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국가 경제 위기가 찾아와 지역 경제를 마비시켜 지방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 실업 증가가 가구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 간 빈곤 격차를 확대하였다.¹³¹⁾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은 국가 전체의 가족 생활에 큰 변화를 주게 되었다. 부모

Online: http://www.aging.ca.gov/programsproviders/adhc-cbas/Program_Overview.asp

130) 진영선, *노년 : 인생 제 2막의 삶* (대구: 경북 대학교 출판부, 2014), 12.

131) 김교성, 노혜진, *한국의 빈곤* (서울: 나눔의 집, 2011), 158.

에게 돈을 보내 드리는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나마 자녀들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농촌 지역의 농촌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에서 나오는 노령 인금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턱없이 모자란다. 자녀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자니 자녀들의 삶도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다. 그나마 땅이라도 있는 사람은 세를 내주어 세를 통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지만 그나마 그것도 없는 사람은 살길이 막막하다. 이것이 현재 우리네 농촌 또한 농촌 교회 노인들이 처한 현실이다.

제 2 절 왜 진복 교회는 가정 교회로 가야 하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므로 교회 구조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합 혹은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 세속사회 속에 영향을 끼칠 교회를 세우려면 정교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정 교회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교회란 어떠한 시스템이 아닌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이다. 가정교회는 신자들에게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집착할 수 있게 해주며, 작은 규모이기에 친밀성과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 있는 작은 모임에서 서로 만났다는 사실과 일치한다.

성령 안에서의 친교는 그것에 자양분을 공급하는 구조가 있을 때에 더욱 왕성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온전한 친교가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농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진 원인을 2장과 3장을 통하여 다루었다. 또한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특수성을 4장에서 다각도로 지적하였다. 모든 관계의 무너짐에는 서로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무너져 버린 신뢰 관계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강대상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지는 것이 아니다. 강대상의 말씀이 교인들의 삶에서 말씀으로 역사되는 것이 신앙이라 할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은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 교인들과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밀접한 영향력을 미친다. 서로 신뢰가 무너진 공동체는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괴된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가정 교회는 그 리더를 중심으로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공적적인 구조이다. 가정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통하여 각 사람은 서로 치료적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 클라인 벨은 관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매개물로 간주하며 서로에게 치료할 수 있는 관계라면 삶 속에서 마짜 마른 부분에 신선한 물을 운반하는 “내부 관계수로”로 그 관계를 본다.¹³²⁾ 가정 교회 공동체는 그 친밀감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아름다운 영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수로를 가진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의 존재 방식은 상처와 미움을 주는 공격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를 통하여 서로를 감싸주는 모습을 회복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의 파괴로 인하여 병들어 있는 농촌의 모든 교회들은 회복되어야 한다. 이렇게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 교회들은 자신들의 공동의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다. 보다 목적 지향적이고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곳에 모인 그리스도 공동체는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되는 경험을 하게 되며 자신의 것을 나누고 아낌없이 통용하는 것으로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표현한다(행 2장). 그 후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었다. 가정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다면 가정 교회의 핵심 가치는 공동의 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 세상과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 때문에 자신들끼리 싸우고 투쟁하는 공동체인 것이다. 결국 가정 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너진 교회 공동체 속에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임과 동시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이기도 하다.

제 3 절 가정 교회 구조 변환 단계에서 농촌 교회의 한계

가정 교회가 농촌 사회로 정착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이야기 하자면 첫째로 교

132) Roger Hurdling, *치유나무*, 김예식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0), 377.

인들의 의식 구조 변화, 둘째로 리더의 발굴과 개발 문제, 셋째가 가정 교회의 분가 문제이다.

첫째, 교인들의 의식 구조 변화의 문제이다. 초대 교회 시대에 가정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 교회 모델의 원형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의 가정 교회가 우리의 모델링이 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바울의 은사론에도 불구하고 초대 가정 교회들 내에 교권주의가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초대 교회의 가장들은 의식적이고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교회의 기능에 발을 들여 놓았다. 가정의 중요한 일이 가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고대 사회의 규범이 교회에도 그대로 전달되어진 결과이다.¹³³⁾ 가정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당시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에 와서도 유효하다. 현대의 도시 교회 뿐 아니라 농촌 교회가 가정 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문제가 바로 교인들의 인식 변화의 문제이다. 이미 한국의 교권 구조 속에서 교육 받고, 훈련 받은 교인들이 평등과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 교회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별히 목회자에 대한 강한 영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자신의 위치와 목회자의 위치를 이분법화 하는 사고 방식에 익숙한 농촌 교회 교인들에게 가정 교회는 너무나도 생소한 구조이다.

둘째, 리더의 발굴과 개발 문제이다. 농촌 교회에 사람이 없고, 또한 적당한 리더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된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포용하고 인정하는 일련의 신념과 행동들이 있다. 그 문화가 장래의 리더들을 파악하고 개발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결정한다.¹³⁴⁾ 무슨 말인가? 아무리 농촌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현실에 맞는 리더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리더를 발굴해서 개발하는 것이 교회 목회자의 역할이다. 본 연구자가 사무하는 교회의 분체점 하나로 사머니즘에 입각한 영지주의를 들었다. 교회의 리더 발굴을 게을리 하면 교회 내에 영적인 은사를 과도하게 강조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모든 은사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평등하다는 아름다운 은사론이 위협을 받게 된다. 또한 은사에 대한 시기도 한 뼛을 하게 되어 분열이 야기된다. ¹³⁵⁾ 이에 대한 문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각종 은사를 가진 리더들을 발

133) 한정애, *교회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7), 48.

134) Bill Donahue, Russ Robinson,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 훈련원, 2003), 130.

갈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 운영의 원리이다.

가정교회에는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지도자가 없고, 대신 장로가 있다. 장로는 가정교회 안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경이 요구하는 장로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딤후전 3장).¹³⁶⁾ 그런데 문제는 가정 교회의 장로와 장로교 직제 속에서의 장로, 혹은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나타나게 된다. 그렇다고 농촌 교회에서 장로나 교회의 안수집사나 권사의 위치를 무시하고 가정 교회에 합당한 또 다른 장로를 세운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된다.

셋째, 가정 교회의 분가 문제이다. 가정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고, 모임 안에서 삶을 나누고, 사랑을 경험하며,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15명이 넘게 되면 이러한 관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외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가정교회는 12명을 초과할 경우 분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³⁷⁾ 그러나 농촌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농촌 교회의 현실상 교회 구성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에 대한 가정 교회의 분가 원칙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 교회의 본질과 근본은 하나님에 동일하게 주신 것이지만, 구조는 다를 수 있다. 구조는 지역적이고 유기적인 형태의 교회로 성육신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율통성 있는 표현 방법이기 때문이다.¹³⁸⁾ 농촌에서의 가정 교회는 가정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는 선교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가정 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치유될 것이라는 치유 목회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옳을 듯 하다.

제 4 절 또 하나의 대안인 가족 교회의 정의와 구조 및 운영 방식

농촌 교회에서 가정 교회는 어떠한 형식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바로 가족 교회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가족 교회란 그리

135) Ibid., 133.

136) Wolf Simson, *가정 교회*, 158.

137)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34.

138) Wolf Simson, *가정 교회*, 342.

스도인들이 가정이라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적인 친밀한 가족 정신 아래에서 개방성을 지향하는 코이노이아 공동체를 말한다.¹³⁹⁾ 가족 교회라 함께 혈연적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구성원 안에 친밀한 가족 정신으로 무장한 모든 그룹이 동참할 수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가족 교회의 기본 형태를 성인 10-15명 정도로 구성된 7-8 가정으로 형성된다.

권문상은 그의 책에서 가족 교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¹⁴⁰⁾

첫째, 가족 교회는 가정이라는 공간을 초월한다.

둘째, 가정 교회는 장소적이고 혈연적인 개념이 중시되는 반면 가족 교회는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인 개념이다.

셋째, 가정 교회는 지도자가 없는 완전 평등한 구조이지만 가족 교회는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인 반면 지도자가 아예 없는 구조는 아니다.

또한 가족 교회의 적합한 구조적 운영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¹⁴¹⁾

첫째, 교회 구조를 소그룹으로 재편하라.

둘째,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모임의 운영 방식에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 받아야 한다.

넷째, 담임 목사와 교회 평신도 위원회, 혹은 당회와 같은 교회의 합법적 처리 기관은 형제애를 바탕으로 각 가족 교회와 수평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각 가족 교회는 상호 의존적 구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

여섯째, 각 가족 교회는 초대 교회에서와 같이 주방을 중요한 공동체 교제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

일곱째, 각 가족 교회는 섬김의 리더십 체제 아래서 여러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담임 목사의 분신과 같은 리더들을 훈련해 파송해야 한다.

제 5 절 세대 통합 가정 교회

농촌 교회와 관련하여 혈연 중심과 그 모임을 이끌어 가는 장로의 리더십이 갖

139) 권문상, *부흥 이계인 1907*, 271.

140) *Ibid.*, 271-275 cf.

141) *Ibid.*, 281-286 cf.

강조되는 가정 교회의 장점과 가족 교회의 장점인 주방을 이용한 식탁 공동체와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운영 방식을 결합한 세대 통합 가정 교회를 세워야 한다.

또한, 농촌의 무너진 교회 공동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상처 받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무엇인가를 잃어가는 상실을 경험한다. 우리의 삶은 상실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태어나는 날로부터 온갖 것을 잃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 가정의 안락함과 부모의 안전과 안정된 어린 시절을 뒤로하며, 결혼과 동시에 독립과 자유를 상실하며,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죽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불가피하게 상실하게 된다.¹⁴²⁾ 이렇게 상실이라는 아픔 속에는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을 통하여 서로 연약한 사람끼리 함께 모여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앞에서 농촌 교회의 회의 기초를 이루는 부부 그룹, 자녀를 둔 부부 그룹, 자녀를 둔 그룹, 독신 그룹, 독거 노인 그룹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비록 규모가 작은 농촌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전부 안고 살아간다. 분명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촌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한 사람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사람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만큼 도시에 비해서 여전히 농촌은 개인 간의 인간 관계가 훨씬 더 결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 교회에 맞는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 각 그룹별로 세워 나가는 것보다 전체의 세대를 통합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우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에서 그룹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다가 보면 오히려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대를 통합하여 공동체를 구성할 때 분명 넘어서야 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대 간의 나타날 수 있는 문화, 사상, 관심 사항 등 세대 차이를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을 들고 싶다. 세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142) Archibald D. Hart, *우울증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 정동섭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0), 55.

문제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의 문제는 많은 부분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 속에서 형성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노인 그룹은 여가 시간 그냥 집에 앉아 쉬면 여가 활동으로 만족하지만 젊은 그룹은 에비랜드나 잠실 롯데월드,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욕구가 충족될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있다. 이것은 고도의 문화 산업이 조작해 낸 허위의식이다.¹⁴³⁾ 그리하기에 세대 차이로 세대간을 단절시켜 공동체성을 살리는 것은 합리성과 신리를 찾으려고 하고 공리주의적 발상이다. 농촌 사회의 특성을 전제로 할 때 가장 성경적인 공동체는 세대를 통합하여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세대통합적이기는 하지만 상호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 가족 내에서의 관계 증진을 위해 열리는 많은 가정생활 컨퍼런스나 세미나들이 세대 간의 상호 대화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알파 프로그램이나 대표적인 셀 컴퍼리스에서 유아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모임을 운영한다. 비록 유아를 관리하며 따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여전히 모든 세대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집중하면 할수록 세대간의 단절의 격차는 더욱 더 크게 벌어진다. 우리는 세대 통합적 공동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적극적인 가정학습 프로그램을 고안한 스캇 마일즈는 세대통합적 학습행사의 다섯 가지 독특한 요소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활동, 단순성, 비형식성, 축하와 참여이다.¹⁴⁴⁾

활동은 모든 연령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그룹은 이것을 잘 연구해야 한다. 단순성은 공부하는 학습 중심의 방법이 아니다. 섬김을 말하는 것보다 누군가 직접 섬기거나 신발을 닦아 주는 것 등으로 섬김의 정신을 배우는 것이 훨씬 인상적이다. 비형식성을 통하여 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훨씬 편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때로는 캐주얼한 의상들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비형식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최선의 장소는 교회보다는 가정이 적합하다. 축하의 유머와 농담을 구사하는 능력이다. 분위기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약한 부위를 터치하는 인신 공격성 유머는 절대 조심해야 한다. 함께 재미있게 놀

143)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 문화 이해*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9), 213.

144) Carl F. George et al, *소그룹 사역의 새로운 방향*, 한국 소그룹 목회 연구원 역 (소그룹 하우스, 2004), 86-89.

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참여는 특정한 그룹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분위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다. 모든 연령층에 걸쳐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제 6 절 가정 교회 구조 정착을 위한 하루 공동체

전통적 농촌 교회가 가정 교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회복 프로그램이 한국적 특성인 가족적 사교를 중심으로 가정 교회의 운영 방식에 맞게 경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가정에서 하루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한 그룹 또는 가정이 다른 그룹이나 가정을 섬기는 하루 공동체 생활을 주장하고 싶다.

1. 하루 공동체의 정의와 예수 공동체 정신

하루 공동체는 교회에 가정 교회가 정착되기 위하여 무너진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불음에서 그 시작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소그룹은 공동체적인 인격적 교제를 통한 긴밀한 관계망 형성이 동반될 때 결속력의 내구성과 항구성, 그리고 효율성이 극대화된다.¹⁴⁵⁾ 유대인들은 팡야에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그들의 공동체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족적 결속력을 강화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형제 의식이 지속되고 있다.¹⁴⁶⁾ 하루 공동에는 말 그대로 하루를 정하여 정해진 그룹이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가면서 가정 교회의 기초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다. 하루 공동체의 중요한 정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둘째,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셋째, 공동 복지를 정하여 움직이는 목적 지향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가. 식탁 공동체

식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단순히 밥을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리를 바라보며 함께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다. 식탁에 초대하여 밥

145) 권문상, “소그룹의 성공, 결속력 강화에 달렸다.”, *목회와 신학*, 2014년 12월호, 144.

146) Ibid., 143.

을 함께 먹는다는 의미는 함께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르비보셋을 찾아내어 왕인 자신의 식탁에 초대하여 밥을 먹은 다윗의 행동(삼하 9:1-13)은 단순히 요나단에 대한 은혜를 식사로 갚으려는 의도가 아니다. 르비보셋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다. 이처럼 가족 공동체에서 식탁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식탁 공동체에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words)만큼이나 분명하게 약속받았다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는 그가 세리 그리고 죄인과 함께 식사한 것을 도래하는 나라에 참여함을 약속한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⁷⁾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식사를 하는 것이 죄인과 세리와 식사를 한다는 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정해 놓은 신앙과 규범, 혹은 개인적인 관계의 파괴 문제 때문에 그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를 이방인처럼 대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혁명적인 것이며, 당시 권력자인 헤롯왕, 가야파(대제사장), 로마 자체의 권력과 정책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었다. 또한 그의 나라는 불의와 억압에 대한 도전이었다.¹⁴⁸⁾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와 형식으로 이미 죄인을 만들어 대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권력층에 대한 예수님의 또 다른 향기의 방식이 바로 식탁 공동체이다. 바로 이 식탁에서 예수는 그들이 이미 정하고 그들 삶 밖으로 내몰았던 세리와 죄인들과 당당히 식사를 하셨던 것이다. 공동체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원수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원수와도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 원수 혹은 원수와도 같은 사람과 밥을 같이 먹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식탁 공동체의 귀한 정신이다.

147) E. P. Sanders, *예수와 유대교*, 황종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288.

148) Marcus J. Borg, N. T. Wright, *예수의 의미*, 김준우 역 (서울: 한국 기독교 연구소, 2001), 69.

나. 섬김의 공동체

하루 공동체에서 중요한 정신은 섬김이다. 그리스도는 죄의 사슬에서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된다면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형제요,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이며 병든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¹⁴⁹⁾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막 10:45)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한 그룹이 다른 한 그룹을 처음부터 나중까지 온전하게 섬기는 것이 하루 공동체의 섬김의 정신이다. 그래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초청을 받은 가정에 들어가면 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섬김의 과정을 통하여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나 섬기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가정에 초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식탁을 준비해야 하고, 설거지도 초청을 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고, 저녁에 잠자리, 아침 밥 등 모든 면에서 섬김의 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특별히 섬김을 준비하는 가정은 준비하는 과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과중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주로 가정에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몫은 여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섬김을 준비하는 가정은 다른 그룹을 섬기되 그것이 자신의 가족 혹은 그룹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여 일을 분배하고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섬김에 동참해야 한다.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는 일이다. 안방이라 함은 자신들의 가장 은밀한 공간이며 가장 편안한 휴식처이다. 지나가는 나그네가 하룻밤을 묵기를 부탁할 때 자신의 창고나 사랑방을 내어줄 수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는 일을 전혀 다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다. 그들의 휴식과 안락함을 위하여 내가 가장 편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안방을 내어주는 행위를 통하여 하루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섬김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다. 목적 지향 공동체

목적 지향 공동체라고 해서 무엇인가 기찬한 것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다. 짧은 1

149) Jürgen Moltmann, *예수 그리스도의 길*, 김근진, 김명용 공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0), 219.

박 2일이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 두 그룹 혹은 두 가정이 주일 예배 순서에 특송이나 짧은 단막극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연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기창한 목적은 오히려 그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심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는 교회는 교인들의 사기를 북돋운다고 릭 워렌은 말한다.¹⁵⁰⁾

하루 공동체 생활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사랑이 예배라는 공통적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이 하루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한 사람의 행위가 전체 예배를 끌어가는 피라미드적 리더십이 아니라 모두가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 공통된 예배적 행위를 준비하는 목적 지향적 모습은 하루 공동체의 중요한 정신이다.

2. 하루 공동체의 기본적 진행 과정

하루 공동체가 유일회적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비록 하루 공동체가 비형식적인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부원칙적으로, 되는데로 그 공동체 활동을 시행하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그냥 하룻밤 같이 보내는 일회적인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자는 이 공동체의 준비 과정 가운데 5P 법칙을 적용하고 싶다.

가. Purpose (의도와 목적을 세우라)

목적이 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가야 할 장소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바다에 나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하루 공동체의 목적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말씀, 기도, 전도(선교), 교제(친교), 봉사라는 사명 중 교제와 친교를 그 목적에 두고 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사랑을 경험하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의 기초적 품성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자 함이다.

나. Program (실현 가능하고 협력 중심인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채우라)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성의 문제이다. 교회의 내적 역량과

150) Rick Warren, *새들백 교회 이야기*, 김현희, 박경희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102.

외적 역량을 철저하게 고려하여 교회의 상황에 맞는 성공 모델링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 벤치마킹¹⁵¹⁾의 연구 폭은 그것이 비기독교적 행사이든 기독교적인 행사이든 구분을 하는 태도는 좋지 못하다. 하루 공동체와 같이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공동생활을 기반으로 공동체 활동을 준비하기도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생활을 중심 기반으로 하여 가정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실행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가정에 맞는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남을 쉬기기도 전에 자신들은 이미 지쳐 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 Proposal (전체 계획을 세우라)

주제와 벤치마킹이 마무리 되었으면 각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모임을 통하여 전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딱딱한 행사 계획표보다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각자 자신이 할 일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계획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이 하루 공동체를 통하여 자신이 얻을 것을 간단한 명제로 정하여 목적을 진술하게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목적 진술을 하게 됨으로써 하루 공동체에 대한 온전한 책임 의식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 Process (목적에 맞는 과정을 이루라)

하루 공동체를 진행하다 보면 자신들이 계획한 프로그램 모습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가정의 하루 공동체 기획자는 수시로 그 과정을 체크하여 다음 프로그램과의 연결 과정을 자연스럽게 진행시켜야 한다. 하루 공동체의 중요한 정신인 식탁 공동체, 침김의 공동체, 목적 지향 공동체의 새 가지 정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간과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집에 초대된 그룹들이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이러한 기본 정신을 거부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다. 식탁 공동체 이후의 설거지 참여, 침김의 공동체 과정에서 안방에서 하루밤 자는 것 거부, 목적 지향 공동체 과정에서 참여 거부 등을 들 수 있다.

151) 벤치마킹이란 어느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차이를 비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들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 등을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기법이다.

마. Product (결과물을 남겨 다음 단계의 발판으로 삼으라)

하루 공동체를 진행한 후 평가회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회의 목적은 잘못된 것을 들춰내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잘 된 것을 발굴하여 칭찬하고 높이주는 평가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회의 참여자는 아주 중요하다. 이러 가지 이유로 해서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평가회에 참석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럴 경우 자신이 원하는 원치 않던 잘못된 것에 우선권을 두고 이야기하는 시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평가회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평가서는 하루 공동체의 전체 전략을 담당하는 당회나 전략팀에 그 자료를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하루 공동체를 위한 교회 현실 분석

가. 교회 인원 구성

교역자(2명) - 이○○(40대) 김○○(30대)

장로현황(4명) - 최○○(70대) 한○○(70대) 김○○(50대) 최○○(50대)

병역권사(8명) - 길○○(70대) 김○○(70대) 문○○(80대) 박○○(80대)
성○○(70대) 유○○(80대) 이○○(70대) 이○○(70대)

권사회원(6명) - 김○○(70대) 김○○(70대) 송○○(70대) 유○○(60대)
장○○(70대) 조○○(70대)

남자집사(7명) - 박○○(70대) 구○○(50대) 김○○(50대)
강○○(40대) 김○○(40대) 윤○○(40대) 이○○(40대)

여자집사(15명) - 박○○(80대) 박○○(70대) 방○○(70대) 김○○(60대)
김○○(60대) 김○○(50대) 한○○(50대) 최○○(50대)
김○○(50대) 나○○(50대) 정○○(50대) 김○○(50대)
문○○(40대) 전○○(40대) 임○○(40대)

남자성도(6명) - 김○○(80대) 최○○(60대) 하○○(40대) 송○○(40대)
박○○(40대) 진○○(30대)

여자성도(2명) - 안○○(40대) 김○○(30대)

남자청년(5명) - 김○○(30대) 장○○(20대) 윤○○(20대) 강○○(20대)
 안○○(20대) 여자청년(1명) - 최○○(20대)
 남중등부(3명) - 최○○ 송○○ 김○○ 김진○ 여중등부(1명) - 이○○
 남초등부(10명) - 박 ○ 박○○ 김○○ 박○○ 이○○ 이○○ 정○○
 정○○ 진○○ 전○○
 여초등부(7명) - 김○○ 김○○ 신○○ 이○○ 김○○ 임○○ 김○○
 남유치부(3명) - 최○○ 김○○ 김○○

나. 그룹별 가정 구성

(교회 다니는 남자 연장자를 기준, 남편이 다니지 않으면 여자 연장자 순으로)

부부 그룹(5가정) : 최○○ 한○○ 김○○ 박○○ 성○○

배우자 한 사람만 교회 다니는 부부 그룹(6가정) : 김○○ 김○○ 최○○
 문○○ 구○○ 박○○

자녀를 둔 부부 그룹(8가정) : 김○○ 최○○ 강○○ 하○○ 김○○
 김○○ 송○○ 진○○

독신자 그룹(4가정) : 이○○ 윤○○ 정○○ 김○○ 나○○

독기노인 그룹(2가정) : 이○○ 유○○

자녀와 사는 노인 그룹(7가정) : 조○○ 박○○ 박○○ 박○○ 이○○
 장○○ 김○○

다. 장소적 어려움

가정에서 하루 공동체를 진행할 때 장소적 어려움은 다음의 경우에서 나타난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거나 믿지 않는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극심한 반대의 현상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성을 지향하다가 가정 공동체의 평화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교인의 대표적인 가정 하나 혹은 가까운 수련회 장소를 정하여 그룹별 공동체 생활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전체 그룹 프로그램을 이끌어 갈 디렉터가 필요하며 이럴 경우 목회자보다는 교회의 장로 혹은 가정 교회 리더를 훈련시켜 섬기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시간적 어려움

하루 공동체의 핵심 중 하나가 초대 가정이 참석한 가정에게 자신의 안방을 내어 주는 섬김의 정신이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 가정의 구성원들과 함께 사는 가정은 시간을 내어 밖에서 하룻밤 자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구성원들은 자신의 가족 특히 크리스천 아내를 둔 비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이러한 상황 자체를 이해하려고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럴 때는 꼭 1박 2일 수련회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 처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일정한 장소를 얻어 1일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특별히 장소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펜션이나 경치가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다.

4. 하루 공동체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평가

본 논문의 하루 공동체 평가는 당회를 중심으로 진행 과정과 생활을 평가하고자 한다. 실제로 당회의 공동체성 파괴를 본 연구자도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며 당회의 공동체성 회복이 교회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다. 또한 당회가 하루 공동체 이후에 평가회를 거치 교회에 가장 필요한 하루 공동체를 시행하고 재평가해야 하는 기획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당회의 하루 공동체를 우선으로 한 것이다. 하루 공동체의 시작과 진행과 평가와 교회에 맞는 하루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의 참여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당회에 속한 목회자와 장로의 리더십은 섬김이라는 리더십 속에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우선 먼저 담임 목사의 가정이 초대 가정이 되어 본 교회의 시무 장로 가정 2가정을 세대 통합 방식의 하루 공동체로 초대하여 시행하고 평가를 진행하고자 한다.

가. 첫 번째 하루 공동체 경험

초대 가정	참석 가정
직분 : 목회자 가정	직분 : 장로 가정
초대자 명단	참석자 명단
이○○(40대), 김○○(30대), ○○(초등) 이○○(초등)	김○○(50대), 김○○(50대), 진○○(30대) 김○○(30대), 김○○(30대), 진○○(유치) 진○○(유아)

시간별 프로그램 순서		
시간	프로그램	비고
15:00 ~ 16:00	이○○ 목사 가정이 가족 회의 의를 통해 섬김의 방법 공유	:이○○, 김○○ (음식 준비) :이○○ (냅킨 준비) :이○○ (수저 정리)
18:30 ~ 19:00	환영의 노래를 통해 참석자 가정을 맞이하는 순서 진행	환영의 노래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는'의 후렴후 부분을 하기로 함
19:00 ~ 20:00	식사대접	:이○○ (밥, 불고기) :이○○ (국) :이○○ (국 나르기) :이○○ (밥 나르기)
20:00 ~ 20:20	설거지	초대 가정이 진행한다. 일회용 그릇 사 용으로 시간을 절약한다.
20:20 ~ 21:00	다과	차와 과일을 함께 먹으며 일상적인 대 화를 유도한다. 하루 공동체 간증자 김 ○○ 자매로 확정.
21:00 ~ 21:30	웃놀이 진행 (이기는 것이 놀이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도)	가족별로 팀을 나누어 진행하고 게임 에 패한 가정이 이긴 가정에게 하루 공동체 이후에 치킨 2마리 대접한다.
21:30 ~ 22:00	에찬식 (에찬식을 진행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 가족 에찬 (사랑 에찬) : 다른 가족 에찬 (섬김 에찬) : 자신 에찬 (존중 에찬)
22:00	취침	초대 가정이 참석 가정의 연장자에 자 신들의 안방을 내어주는 섬김의 과정
다음날 가족끼리 같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후 초대 가정에서 참석 가정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나. 첫 번째 하루 공동체 평가

평가 기준	사전 계획	사후 평가
Purpose (의도와 목적을 세우라)	참석자들이 집에 오기 전에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하여 서로의 역할을 공유한다.	짧은 가족 회의와 반복된 학습 효과의 부족으로 식사 시간에 약간 분주하고 바쁜 느낌을 받았다.
향후 프로그램 : 참석 가정을 초대하기 일주일 전부터 가족 회의를 통하여 하루 공동체의 목적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진행과 결과를 위하여 가족 기도회를 준비한다.		
Program (실현 가능하고 협력 중심인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채우라)	웃놀이를 통하여 가족의 단합을 모색하고자 함	나이 어린 학생들의 게임 승부욕이 오히려 많은 아쉬움을 남게 했다.
향후 프로그램 : 가족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게임을 삼가고 다음 날 아침에 먹을 가족 공동 만두 빚기를 통하여 자연스러운 게임을 유도하도록 한다.		
Proposal (전체 계획을 세우라)	프로그램 진행 중에 3명의 참석자가 어린이 취침과 회사 업무 문제로 진행 과정에서 이탈했다.	전체 프로그램의 맥이 끊어지면서 밝았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잠시 어두워졌다.
향후 프로그램 : 하루 공동체 참석 전에 프로그램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강한 애정 의식을 가지게 한다.		
Process (목적에 맞는 과정을 이루라)	취침 시간이 되자 참석 가정의 부부가 초대 가정의 안방에서 잠을 잘 수 없다고 정중히 사양하는 상황 연출 되었다.	초대 가정과 참석 가정이 미리 만나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도를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프로그램 : 참석 대상이 되는 가족들이 미리 날을 정하여 전체적으로 하루 공동체의 의도와 목적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duct (결과물을 남겨 다음 단계의 발판으로 삼으라)	초대 가정의 부부가 시간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의 평가회에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자녀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평가 :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산만한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 또한 취침 시간에 참석 가정의 가장이 너무 큰 소리로 한 시간 가까이 TV를 틀어 놓은 것은 전체적인 취침 분위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기분 상하지 않게 잠을 청하도록 몇 번이나 유도하고 난 이후에 취침의 분위기가 형성 되었다. 초대 가정과 참석 가정의 사전 교육과 프로그램 목적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상황이었다.		

가. 두 번째 하루 공동체 경험

초대 가정	참석 가정
직분 : 목회자 가정	직분 : 장로 가정
초대자 명단	참석자 명단
이○○(40대), 김○○(30대), 이○○(초등) 이○○(초등)	장○○(70대), 최○○(50대), 한○○(50대) 최○○(20대), 최○○(10대)

시간별 프로그램 순서		
시간	프로그램	비고
15:00 - 16:00	환영의 노래를 통해 참석자 가정을 맞이하는 순서 진행	환영의 노래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는'의 후렴후 부분을 하기로 함
18:30 - 19:00	환영의 노래를 참석자 가정을 맞이하는 순서를 가짐	환영의 노래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는'의 후렴후 부분을 하기로 함
19:00 - 20:00	식사대접	:이○○ (밥, 오리고기) :이○○ (국) :이○○ (국 나르기) :이○○ (밥 나르기)
20:00 - 20:20	설거지	초대 가정이 진행한다. 일회용 그릇 사 용으로 시간을 절약한다.
20:20 - 21:00	다과	차와 과일을 함께 먹으며 일상적인 대 화를 유도한다. 하루 공동체 간증자 최 ○○ 장로로 확정.
21:00 - 21:30	웃놀이 진행 (3판 2승제로 진행하였고 사 전 교육으로 과열 방지)	일주일 후에 게임에 이긴 가정이 게임 에 패한 가정의 집에 가서 나같이 통 닭을 먹기로 함.
21:30 - 22:00	에찬식 (에찬식을 진행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	: 가족 에찬 (사랑 에찬) : 다른 가족 에찬 (섬김 에찬) : 자신 에찬 (존중 에찬)
22:00	취침	초대 가정이 참석 가정의 연장자에 자 신들의 안방을 내어주는 섬김의 과정
다음 날이 주일이기에 약간 서두르는 모습으로 아침을 대접하였다. 그러나 평일이 불가능한 가족에게 토요일과 주일만큼 편한 날짜는 없다.		

나. 두 번째 하루 공동체 평가

평가 기준	사전 계획	사후 평가
Purpose (의도와 목적을 세우라)	참석자들이 집에 오기 전에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하여 서로의 역할을 공유한다.	첫 번째 하루 공동체와 같은 방식이어서 회의 시간을 비교적 간략하게 하였다.
향후 프로그램 : 참석 가정을 초대하기 일주일 전부터 3번 이상 회의를 통하여 미리 의도와 목적을 공유하고 하루 공동체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가족 기도회를 준비한다.		
Program (실현 가능하고 협력 중심인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채우라)	단판의 윗놀이를 3판 2승제로 진행하였다.	윗놀이 게임 이전에 나이 어린 학생들을 충분히 교육하고 윗놀이를 진행하였다.
	에찬식을 준비된 방식대로 진행하였다.	에찬식의 과정에서 나이 어린 학생의 장난끼가 에찬식을 약간 망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향후 프로그램 : 경쟁이 과열되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지만 적절한 경쟁은 게임의 묘미를 훨씬 재미있게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한다.		
Proposal (전체 계획을 세우라)	사전에 초대 가족과 참석 가정의 하루 공동체 목적을 교육하지 못했던 문제가 드러났다.	하루 공동체 프로그램 중 에찬식 때 간단한 하루 공동체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향후 프로그램 : 초대 가정이 미리 에행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cess (목적에 맞는 과정을 이루라)	사전에 하루 공동체의 목적에 맞는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같이 모임에 참석한 최고의 연장자가 심김에 익숙하지 않아 자꾸 복회자에게 미안함 감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석하였다.
향후 프로그램 : 참석 대상이 되는 가족들을 미리 날을 정하여 전체적으로 하루 공동체의 의도와 목적을 미리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roduct (결과물을 남겨 다음 단계의 발판으로 삼으라)	초대 가정의 부부가 시간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의 평가회에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자녀들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체 평가 : 프로그램 시작 전 참석 가정의 연장자가 복회자의 집에 심김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집에 직접 가서 모시고 와 프로그램에 참석 시켰다. 사전 교육과 설득 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5. 하루 공동체 향후 계획

당회와 하루 공동체를 통하여 얻은 교훈은 하루 공동체에 대한 목적을 프로그램 시작 전에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공동체는 단순히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다. 1박 2일 동안 한 가족을 섬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확실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초대 가정의 헌신과 섬김 속에 참석 가정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 공동체의 바른 정착을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야 한다. 모든 교회들은 비록 아주 작은 농촌 교회라 할지라도 개별적인 상황이 있다. 그래서 모든 하루 공동체 이후에 진행되는 평가회는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이 평가 자료를 가지고 당회 혹은 하루 공동체 기획팀에서 각각 교인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하루 공동체 프로그램의 기초 진행 과정을 미리 확립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많은 실망감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후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현실과 교인의 실정에 맞게 하루 공동체를 개발하고 시행하게 될 것이다.

제 5 절 결론

하루 공동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하루 공동체가 부너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정 교회를 가기 위한 가교적 역할의 일시적 가정 교회 형태가 될 수 있음에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당회를 중심으로 하루 공동체를 경험하고 당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그에 속한 가족들이 작은 공동체의 회복 운동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해결을 공동으로 찾고자 모색하는 실천 행위는 모든 교인에게 교회에 대한 강한 애정과 자긍심을 갖게 할 것이다. 특별히 하루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 프로그램인 식탁 공동체와 애찬식, 그리고 안방을 내어주는 희생과 성공적인 하루 공동체를 위한 초대 가정의 노력은 가정 교회의 핵심 정신을 구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모든 성도가 교회로서 세대에 상관없이 사역에 동참하며 섬김을 통하여 삶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구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시작이 하루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지금까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정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둔 한국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특별히 농촌 교회의 교회 공동체성 붕괴 현상과 그 대안을 가정 교회에서 찾고자 연구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식탁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목적 지향 공동체의 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하루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회복의 기초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1장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 제기와 연구의 범위 및 방법을 다루었다. 특히, 무너진 공동체성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농촌 사회와 농촌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며 농촌 교회의 올바른 공동체성을 확립을 위하여 가정 교회의 시각에서 본 연구자가 서무하는 교회를 연구하였다. 또한 기존의 소그룹 운동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가정 교회로 가기 위한 소그룹 공동체 생활인 ‘하루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공동체성 붕괴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다. 그것은 이상과 현실의 괴리이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할 교회의 부족한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서의 한계를 느낀다. 또한 공동체의 파괴는 그에 대한 결과이다. 특별히 농촌 지역의 교회 공동체성 붕괴 현상이 우리 사회의 여러 사회, 문화, 경제, 가정적 문제와 맞물려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되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려가는 한국 농촌 교회의 공동체성 붕괴 현상을 막고 하루 속히 회복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지난 수세기의 교회 역사 속에서 외부적인 억압은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하였

다. 그리하여 오히려 서로를 아끼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 속에 존재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내부 문제로 말미암아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은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한 세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를 향하여 과거와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요청하시는 선교적 사명이기도 하다.

3장에서는 무너져 내려가는 교회 공동체의 대안으로 가정 교회를 주장하였다. 가정 교회는 초대교회가 모델이 된, 평신도에 의하여 폭발적인 부흥을 이룬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동시에 교회를 갱신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러나 서구의 가정 교회 형태나 농촌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가정 교회는 농촌 교회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교회라는 교회 형태가 교회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다. 가정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근본적인 3가지 가치인 성도가 교회 기본 의 핵심이며, 모든 성도가 헌신된 사역자이며, 교회는 건물이나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가정 교회의 원리인 양육, 예배, 교제, 선교를 다루었다.

4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진목교회의 역사와 목회적 상황을 다루었다.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그 교회의 현실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자기 패배감이 끊임없이 본 연구자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시무하는 교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무너진 공동체성을 위한 본 연구자의 목회적 고민과 대안, 또한 현실 장벽의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었다.

5장에서는 세대 통합적 가정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기 위한 ‘하루 공동체’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가부장적 전통적 교회의 운영 형태에 익숙한 농촌 교회가 가정 교회의 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가정 교회의 리더인 장로가 온전하게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장로교적 장로 교권의 최정점에서 교회 전체를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어 나가는 제왕적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

이다. 그에 대한 가정 교회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루 공동체'이다. 하루 공동체는 가정 교회가 가지는 장점은 수용하지만 아무리 장점이라 하여도 농촌 교회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태도를 취한다. '하루 공동체'는 결코 혼자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다. 또한 완전한 대안도 아니다. 다만 무너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가정 교회를 가기 위한 가교적 역할을 하는 일시적 형태의 가정 교회가 될 수 있는 공동체이다. '하루 공동체'는 당회를 통하여 프로그램이 고민되고, 목적이 공유되며, 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모습은 통제와 관리에 익숙한 장로교적 장로의 모습에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의 초대 교회적 장로의 모습으로 가게 하는 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루 공동체'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자신이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개인 각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환경과 세대를 초월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것이다. 형식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스도 공동체의 본질과 내용에 집중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의 행위로서 서로를 향하여 증거하는 삶을 포함하는 가정 교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정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다.

제 2 절 제언

복회가 힘들어 도망치고 싶은 엘리야의 실존 앞에 종종 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과거 내가 죄 가운데 있던 시절 그분의 엄청난 사랑으로 날 택정하시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첫사랑 앞에 서서 다시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리하여 무너지는 교회의 공동체성 현실 앞에서 도망을 치는 것이라 아니라 병들어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믿는다. 한국 사회의 가족의 기초 속에는 혈연적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이 혈연적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 없다. 가족을 사랑하는 이 혈연적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결합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이상적 공동체가 없을 것이다.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가정 교회는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각 그룹을 그룹 별로 나누고 그들을 양육하는 성과 중심적 공동체보다 조금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어린 아이와 성인과 노인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세대통합적 가정 교회 모델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족은 왜 한 가족인가? 식구이기 때문이다. 식구가 왜 식구인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굶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대 통합적 가정 교회는 서로의 문제들 때문에 복잡하게 연결되어 서로에게 상처주고 또한 상처받는 삶을 살아가는 농촌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어머니 되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게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성도가 내 피붙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한 농촌 교회 목사의 고백이다. 사랑해야 될 존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 깊은 수렁이 찾아온다. 무너진 가족 공동체의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평생 보지 않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들의 가슴에 더 큰 피멍이 드는 경우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과 이웃의 삶에서 수없이 목도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삶의 연결 고리들은 끊임없이 가시가 되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지음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 번 자각해야 할 것이다. 무너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고민은 본 연구자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농촌에 시무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며,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복회자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가 일평생 풀어야 되는 숙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친히 이끌어 가시기에 반드시 해결되어 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본 연구를 맺는다.

참고문헌

1. 국내분헌

- 강정훈. *교회학교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서울: 한국 문서 선교회, 2000.
- 곽성덕. “전통교회 정체 극복과 활성화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용인: 킹덤 북스, 2013
- _____. *부흥 어게인 1907*. 성남: 도서출판 브니엘, 2006.
- _____. “소그룹의 성공, 결속력 강화에 달렸다”. *목회와 신학*, 2104년 12월호.
- 권영분. *한국 개신교회와 천주교회의 분재점들*. 부산: 세종 출판사, 2012.
- 김정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 출판사, 1999.
- 김교성, 노혜진. *한국의 빈곤*. 서울: 나눔의 집, 2011.
- 김택수. *셀교회 전환과 셀리더 세우기*. 성남: 도서출판 NCD, 2002.
- 김상구. *개혁주의 예배론*. 서울: 도서출판 대서, 2010.
- 김성곤.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성남: 도서출판 NCD, 2001.
- 김현진. *공동체 신학*.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1998
- 김형국. “2004년 목회 어떻게 기획해야 하나?”. *목회와 신학*, 2003년 12월호.
-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4.
- 박영철. *셀 교회론*. 서울: 요단 출판사, 2004.
- _____. “한 눈에 보는 셀의 모든 것”. *목회와 신학*, 2003년 2월호.
- 박우용. *현대 교회와 교회 재정*. 서울 : 하늘 기획, 1999.
- 박종균. *기독교와 대중 문화 이해*.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99.
-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서울: 시로사랑, 2003.
- 신성종.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 서울 : 도서출판 하나, 1994.
- 신수명.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성남 : 도서출판 NCD, 2005.
- 여성 한국 사회 연구회. *가족과 한국 사회*. 서울 : 경문사, 1995.

- 옥한흠. *이것이 목회의 본질이다*.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2004.
-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 이동식. *현대인과 스트레스*. 서울: 불광 출판부, 1991.
- 이영무.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의 협력적 사역을 위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정태기. *위기목회상담*. 서울: 대한기독교 서회, 1992.
- 진영선. *노년: 인생 제 2박의 삶*. 대구: 경북 대학교 출판부, 2014.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 하우스, 2005.
- 최갑종. *바울연구 I*. 서울: 기독교 분서 선교회, 1999.
- 최상태. *21세기 新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2.
- 최석만 외. *유교적 사회질서와 문화 민주주의*.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6.
- 한국 기독교 장로회,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헌법*. 서울: 고려인쇄 공사, 2001.
- 한국 선교 신학회. *신학개론*.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2001.
- 한국 철학 사상 연구회 편역. *철학 소사전*. 서울: 동녘, 1990.
- 한완상. *예수 없는 예수 교회*. 과주: 김영사, 2008.
- 한정애. *교회사를 통해 본 작은 공동체 운동*. 천안: 한국 신학 연구소, 1997.
- 홍치모. “교회의 일치란 무엇인가?”. *신학지남*, 2002년 봄호.

2. 번역 서적

- Allen, Blaine. *그만두고 싶은 목사 그만둘 수 없는 목회(Before You Quit)*. 오현미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2004.
- Banks, Robert. *바울의 공동체 사상 사상(Paul's Idea of Community)*. 장동수 역. 서울: 이수문, 1991.
- Barrett, Lois. *가정교회 세우기(Building the Family Church)*. 임종원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리, 2002.
- Beckham, William A. *제 2의 종교 개혁(The Second Reformation)*.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성남: 도서출판 NCD, 2000.
- Bilezikian, Gilbert. *공동체(Community 101)*.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서원,

- 1998.
- Bonhoeffer, Dietrich. *신도의 공동 생활(Gemeinsames Leben)*. 문익환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64.
- Borg, Marcus J. & N. T. Wright. *예수의 의미(The Meaning of Jesus: Two isions)*.
김준우 역. 서울: 한국 기독교 연구소, 2001.
- Cloud, Henry & John Townsend. *No!라고 말할 줄 아는 남편과 아내(Boundaries in
Marriage)*. 김진웅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 _____. *성장하는 소그룹의 비밀 55가지(Making Small Groups Work)*. 윤중석 역.
서울: 좋은 씨앗, 2004.
- Collins, Gary R. *크리스찬 카운슬링(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해련 역.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84.
- Comiskey, Joel. *셀 그룹 폭발(Home Cell Group Explosion)*. 박영철 역. 서울: 도서
출판 NCD, 2000.
- Cox, Harvey. *영성 음악 여성(Fire from Heaven: The Rise of Pentecostal
Spirituality and the Reshaping of Reli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유지황 역. 서울: 동연, 1999.
- Dawn, Marva J. *희열의 공동체(Truly the Community: Romans 12 and How to Be
the Church)*. 이종태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04.
- Diana, S. & Richmond Garland & Betty Hassler. *성숙한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부부의 삶(Partnership and Commitment)*. 교회 훈련부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3.
- Donahue, Bill.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인도법(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Revised)*. 김주성 역.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1997.
- Donahue, Bill & Russ Robinson.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The Seven
Deadly Sins of Small Group Ministry)*. 김주성 역. 서울: 국제 제자
훈련원, 2003.
- Douglas, Stone & Bruce, Patton & Heen Sheila. *대화의 심리학(Difficult
Coversation)*. 김영신 역. 서울: 북21, 2003.

- Forward, Susan. *흔들리는 부모들(Toxic Parents)*. 한창완 역. 서울: 사이언티아, 2000.
- George, Carl F. et al. *소그룹 사역의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한국 소그룹 복회 연구원 역. 소그룹 하우스, 2004.
- Hart, Archibald D. *우울증 이렇게 치료할 수 있다(Dark Clouds Silver Linings)*. 정동섭 역. 서울: 요단 출판사, 2000.
- Harvey, Donald & Gene Williams. *목회자 가정 그들만의 스트레스(Living in a Glass House)*. 김재택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Horton, Michael.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Christless Christianity)*. 김성웅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9.
- Hurding, Roger. *치유나무(Roots and Shorts)*. 김예식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2000.
- Jacks, Bob & Jacks Betty & Ron Wormser. *소그룹을 통한 효과적인 전도(Your Home a Lighthouse)*. 네비게이토 역. 서울: 네비케이토 출판사, 1999.
- Khong, Lawrence. *신사도적 셀교(The Apostolic Cell Church)*. 최봉실 역.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0.
- Labberton, Mark. *제일 소명(The Crisis and Promise of Following Jesus Today)*. 하보영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4.
- Long, Thomas G. *증인하는 설교(The Witness of Preaching)*. 이우제, 황의부 역.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7.
- Macdonald, Gordon.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욱 역. 서울: IVP, 1990.
- Moltmann, Jürgen. *오시는 하나님(Das Kommen Gottes)*.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_____. *예수 그리스도의 길(Der Weg Jesu Christi)*. 김균진, 김명용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 Nicholas, Ron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 성장(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채구 역 (서울: IVP, 1986)

- Niebuhr, Richard.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 Culture)*, 김제준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사회, 1958.
- Oates, Wayne E. *그리스도인의 인격 장애와 치유(Behond The Masks)*. 안효선 역. 서울: 에스라 서원, 1996.
- Parrot III, Les & Leslie Parrot. *결혼(Marriage)*. 정동섭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8.
- Patel, Raj. *식량 전쟁(Stuffed Starved)*. 유지훈 역. 서울: 영림 카디널, 2008
- Sanders, E. P. *예수와 유대교 (Jesus and Judaism)*. 황종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Scott, Stanley et al,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결혼 생활 지침서(A Lasting Promise : A Christian Guide to Fighting for Your Marriage)*. 정동섭, 안신우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1.
- Sell, Charles M.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Unfinished Business)*. 정동섭, 최민희 역. 서울: 두란노 서원, 1992.
- _____. *가정 사역(Family Ministry)*. 정동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 Simson, Wolf. *가정 교회(The House Church Book)*. 황진기 역. 서울: 도서출판 국제 제자원, 2004.
- Stevens, R. Paul.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 Tozer, A. W. *예배인가 쇼인가(On Worship and Entertainment)*. 이용복 역. 서울: 규장, 2004.
- Trudinger, Ron. *가정 소그룹 모임(Cells for Life)*. 장동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91.
- Warren, Rick. *새들백 교회 이야기(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희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6.
- _____. *목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 고성삼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3.
- Worthington, Everett L. *결혼 예비 상담(Counseling before Marriage)*. 김창대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5.

Vita of
Yong Jin Lee

Present Position

Senior Pastor of Jinmok Presbyterian Church, Yongin.

Personal Data

Birthdate : May 21, 1973.
 Birthplace : Jeollabuk-do, Korea
 Marital Status : Married to Su Youn Kim.
 with two Children, Yedam, Hadam.
 Home Address : Eunsan 5 Gil 30, Jinwi-myeon,
 Pyeongtaek-si, Gyeonggi-do
 Denomination :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Republic of
 Korea
 Ordained : October, 2005.

Education

B. A. : Hanshin University, Osan, 2000.
 M. Div. : Hanshin Theological Seminary, Osan, 2003.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5.

Personal Experience:

12/2011 to present Senior Pastor
 of Jinmok Presbyterian Church, Yongin
 12/2009 to 12/2011 Assistant Pastor
 of Dongsuwon Presbyterian Church, Seoul.

12/2003 to 12/2004 Assistant Pastor
of Yangcheon Presbyterian Church, Seoul.